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11장 혁명의 분수령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사나운 회오리
다홍왜에서의 논쟁
공청의 산아들
사도구 참변에 대한 대답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 시기 : 1935. 2 ~ 1935. 6

1. 사나운 회오리


1930년대 후반기의 간고한 나날에

시련의 나날들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던 중중첩첩한 설령들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피와 고뇌로 얼룩진 원정은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열렸다. 병마에 지친 몸을 끌고 노야령산정에 오른 나는 대원들과 함께 왕청의 산발들을 굽어보며 환성을 올렸다. 수개월 동안 초연과 혹한속에서 겹쌓인 피곤이 순간에 다 가셔지고 고향의 뒷동산에라도 와 닿은 것 같은 희열로 마음마저 구름처럼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왕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며칠동안 침상에서 고열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정에서 얻은 촉한의 후유증이 또다시 나를 쓰러뜨렸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숙반≫바람에 유격구가 만신창이 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의 침상에까지 날아들어왔다. ≪간호병≫들도 유격구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좌경분자들의 죄상을 분노에 차서 고발하는 것이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혁명을 하느라고 왕청골 안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던 당원들과 공청원들, 부녀회원들이 광란적인 살인각본의 작성자들과 그 집행자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자기 자신들이 피로써 개척하고 사수해온 유격근거지를 버리고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같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한순간에 되다 정지되고 세상만물이 빙하에 짓눌려 종말을 고하는 것같은 무서운 절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나자구등판에서 겪은 시련이 크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다. 16명밖에 안 되는 대오를 이끌고 촉한에 걸린 몸으로 천교령을 넘을 때의 난관 역시 모진 것이기는 하였으나 ≪민생단≫문제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에는 원정대의 앞길을 막아서던 장애가 명백하였다. 그 장애란 바로 추격하는 적과 나의 촉한이었다. 우리는 김노인과 같은 귀인의 도움으로 적의 봉쇄를 돌파하였고 조택주노인과 같은 은인의 덕으로 아사, 동사, 병사의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인민이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에서는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

어지고 있었다. 타도하는 사람들과 타도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순이나 대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도하는 사람들은 타도당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혁명대오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숙반≫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지난날 혁명을 위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쳐온 검열된 투사들이었다.

그렇다면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이 해괴망측한 ≪소탕전≫에서 적아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구를 우리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숙반≫지도부는 자기들이 처형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판결을 합당하다고 보겠는가. 만일 그 판결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숙반≫ 사업을 지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해야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해야 하는가.


전문진

이것은 수백 수천 명 혁명가들의 출혈로 무섭게 비틀거리는 동만의 현실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던 물음이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다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요영구에는 나를 병마에서 건져 줄 만한 명의도 없었고 신통한 약재도 없었다. 그저 민간요법을 좀 알고 있는 대원들이 교대로 내 머리맡에 앉아 찬물 찜질을 하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할 뿐이었다.

소북구마을사람들은 내 병을 염려하여 꿀과 노루피를 보내 주었다. 중국노인들도 차를 끓여 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였다. **김**사령이 건강해야 유격구도 고수하고 항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간호를 잘해드리라고 부탁하였다.

꿀도 차도 노루피도 보양제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들과 약재들을 원정에서 돌아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는 독감환자도 있었고 동상자도 있었으며 대장염이나 기관지염에 걸려 고통받는 대원들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한을 무릅쓰고 송갑룡의 부축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대원들을 찾아갔다. 그때 내 눈을 제일 아프게 자극한 것은 원정에 참가했던 전우들의 볼품없는 옷차림이었다. 초연에 그슬리고 총탄에 찢겨진 그들의 군복마다에는 전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온 겨울 혹한속에서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재봉대에 전령병을 파견하였다. 그 전해 가을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전문진에게 다음해에 입을 부대의 여름옷을 미리 지어 놓으라는 과업을 맡기고 갔었는데 그 과제가 수행되었다면 원정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스무 벌쯤 골라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재봉대는 다홍왜에서 멀리 떨어진 솔밭골의 밀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성원이라고 해야 전문진과 한성희를 비롯한 몇 사람밖에 없었다. 전문진이 동녕현에서 양재기술을 조금 배우다가 나온 구대원이라면 한성희는 요영구에서 아동단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신대원이었다.


요영구의 오지

전령병과 함께 군복을 지고 요영구로 달려온 것

은 전문진이 아니라 몇 달째 북만에 간 원정대를 기다리며 외진 섬이나 다름없는 솔밭골의 수림속에서 임신 중에 있는 그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던 한성희였다. 한성희는 앓아누어 있는 나를 보자 눈물부터 쭈르르 흘렸다.

그가 지고 온 군복들을 원정대원들에게 갈아입힌 다음 나는 한성희를 재봉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솔밭골로 돌아간 줄로만 알았던 한성희가 다음날 아침 잣죽이 얹혀 있는 밥상을 들고 내앞에 다시금 천연스레 나타났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글에게 물었다.

≪옥봉동무, 어떻게 또 여기에 나타났소? 무슨 일이 생겼소?≫

옥봉이란 한성희의 아명이었다. 그는 한영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한성희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어제 솔밭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성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동단시절이나 입대 후나 그는 상급의 명령지시에 불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충실하고 순박하고 고지식한 여성이었다. 그가 나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몸져누워 계시는데 제가 돌아간들 문진 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한성희의 그 웅숭깊은 마음은 물론 고마운 것이었다.

나는 좁쌀과 미역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한성희의 배낭속에 넣어 주며 그를 달랬다.

≪여기서 나를 돌봐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동무는 내 걱정을 말고 오늘 중으로 당장 솔밭골에 돌아가야 하오. 동무가 가지 않으면 전문진이는 어떻게 하요? 지금이 바로 막달이라고 하는데 혼자서야 해산을 할 수 없지 않소.≫

≪장군님, 다른 명령만은 다 집행하겠지만 이 명령만은   간호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재봉대로 돌아가면 문진 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군님, 저의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장군임께서 제일 급한 대목을 넘기고 계시는 때의 여대원들이 한 명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한성희는 오히려 나를 설복하느라고 열을 올렸다.

≪성희동무, 부탁이니 어서 돌아가서 문진 동무를 간호해 주오.≫

그때 이효석중대장이 한성희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었다.

≪대장동지, 한성희가 가도 산파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못 낳아본 처녀가 어떻게 해산방조를 합니까.≫

경험 있는 여자를 물색하여 보내겠다는 중대장의 말에 나는 그만 굽어들고 말았다.

한성희는 그날부터 주야로 나를 간호하여 주었다. 그는 끼니마다 밥상에 잣죽을 놓아 주곤하였다. 아마 그의 주문을 받고 4중대 대원들이 요영구의 수림속에 들어가 눈속에 파묻힌 잣송이들을 주워온 모양이었다. 중대장 자신도 막대기를 들고 아침마다 잣사냥을 떠나곤하였다.

한성희는 자기가 간호를 잘못해서 장군님의 몸을 추세우지 못한다면 조선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극성스레 나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언제였던지 그가 자기의 머리태를 잘라 나의 신발바닥에 깔아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하나의 사실을 보고 한성희가 정 때문에 웃기도하고 울기도 하며 살마저도 서슴없이 떼주는 그런 형의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핏줄이란 역시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한성희의 일가는 모두가 동정심이 강하고 인간미가 풍부한 혁명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창섭은 이광, 김철, 김은식 등의 투사들과 함께 일찍부터 북하마탕 일대에서 항일혁명에 참가한 선각자의 한 사람

이었다. 대방자반일회조직을 책임지고 이광별동대의 군량미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는 1932년 봄에 일본군 ≪토벌대≫의 군도에 찔려 참사되였다. 언니 한옥선도 적들에게 화형을 당하였다. 오빠 한성우는 싸움터에서 전사하였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왕청에서 우리와 함께 적구활동을 많이 했고 후에는 북만의 항일연군부대에서 지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나의 전우 한흥권도 바로 한성희의 4촌 오빠이다. 한흥권이네 5형제는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렬사들이였다.

한성희네 두 자매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두 딸이 다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매간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한성희는 입대 적격자가 못된다는데로부터 매번 수세에 몰리곤 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날 숙보면 안돼. 언니가 하는 일은 나도 다하지 않니. 키두 언니만 치는 크단 말이야.≫

한성희가 이런 말로 맵짜게 공격을 들이대면 언니는 언니대로 여유작작하게 반공격을 가해오곤 하였다.

≪키는 커두 젖비린내야 어디 가겠니.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구 했다. 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동단생활이나 잘하여라.≫


유격대 입대

그 어느쪽도 상대방에게 참군의 영예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딸들이 이불밑에서 자신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화의 한 토막을 우연히 엿듣게 된 한성희의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다니던 단벌 무명치마를 뜯어 밤을 새워가며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배낭을 만들었다. 다음날에는 그 배낭들에 미숫가루를 듬뿍듬뿍 담아 넣었다. 그 두 배낭이 자기들이 지고 가게 될 행장이며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가 꾸려 줄 수 있는 지참품과 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한성희네 자매가 알게 된 것은 그 다음날의 일이였다.

그날 한성희의 어머니는 두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봉양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도 찾지 못한 주제에 효도가 다 무어냐. 너희들이 이 에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이 달음으로 유격대에 들어가거라!≫

≪어머니!≫

두 자매는 울음을 터치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들은 가슴을 치는 맹약과

눈물로써 어머니를 하직하였다. 1934년 봄에 우리는 한성희를 지휘부 직속 재봉대로 소환하였다.

그는 전도가 촉망되는 여대원이였다.

성격상 약점이 있다면 만사를 너무 태평스럽게 대하는 것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군인으로서는 놀랍다고 할 만치 양순하고 무경각하였다. 이 무경각성 때문에 한성희는 결국 적들에게 붙잡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본대로 찾아오라는 나의 지령을 받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던 그는 영안현 이도하자의 수림속에서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수십 명의 위만군 병사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 여대원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냇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우리가 무송지구에 진출하여 새 사단을 조직하고 있을 때 체포된 그는 나자구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수인들을 지키고 있던 보초들 중에는 한성희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동정한 양심적인 조선인 보초도 있었다. 그는 혁명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귀순 문서장에 도장을 찍고 매일매일을 치욕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교형리들이 한성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보초는 그 여자에게 탈출을 건의하였다. 자기도 총을 벗어던지겠으니 함께 도주하여 조선으로 나가든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이나 치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한성희는 그에 동의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적의 소굴을 감쪽같이 탈출하였다. 그 조선인 보초는 훗날 그의 남편이 되었다.

한성희가 적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다같이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어떤 여대원들은 너무 분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친동생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던 전우를 잃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성희의 금새를 잘 알고 있는 왕청시절의 투사들은 지금도 그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다.

한성희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경력을 두고 몹시 아쉬워해 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투사 어머니들처럼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빨치산대오에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한성희가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혁명이란 탄탄대로가 아니다. 출발신호만 울리면 누구나 쾌속으로 뛰어가 쉽사리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100미터 경기 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 앙양과 좌절의 부단한 교차와 반복속에서 승리를 향해 달리는 끝없는 행로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구한 행로에 무슨 곡절인들 없겠는가.

자식들이 부모들을 원망할 때마다 한성희는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력 가운데 오점이 좀 있다고 너희들까지 고민할 것은 없다. 조선노동당은 부모의 잘못을 갖고 자식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정치이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하지말고 그저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거라.≫

나는 한성희가 자식을 옳게 교양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당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한 성실하고 결백한 여성이었다.

한성희가 쑤어 준 그 잣죽과 사슴고기를 넣은 좁쌀죽의 덕으로 나는 사흘만에 병석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이효석중대장이 나에게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일고 있는 유격구의 실태를 상세히 통보해주었다.

그는 어느 현에서는 어떤 간부를 죽였고 어느 현에서는 어떤 지휘관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는가를 일일이 예증하였다. 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간도에서 현과 구의 지도간부들과 중대급 이상 유격부대지휘관들은 거의 다 숙청된 것으로 알아도 무방하였다. 조선사람치고서 글줄이나 쓰고 연설가락이나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 버렸다.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왕청에 떨궈두었던 우리 부대 장병들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만한 정수분자들은 다 잡아제꼈다. 미처 처형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서기요, 회장이요, 구위요 하는 자리에서 싹 쓸어버렸다.

≪민생단≫조작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지능화의 산물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내온 속심은 모략과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조선혁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자는데 있었다. 총칼정치를 해도 안되고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쓰고 ≪내선일체≫며 ≪동조동근≫을 부르짖어도 안되니 조선사람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혁명세력을 숙청 소멸함으로써 치안유지에서 당하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것이였다.

9.18사변 후 만주지방에서의 혁명정세의 급격한 발전에 커다란 우려를 느낀 사이또총독은 간도시찰반성원으로 동만지방에 파견된 박석윤과 연변자치촉진회의 거두 전성호, 연길주재 만주국군군사고문 박두영, 수급반공특무 김동한을 비롯한 친일적인 민족주의세력을 내세워 1932년 2월에 연길에서 ≪민생단≫을 조작하게 하였다.

≪민생단≫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으로서의 생존권확보≫라든가, ≪자유낙토건설≫이라든가,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 마치 조선사람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경륜인 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실제상에서는 조선민족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모해하여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조중인민 사이에 쐐기를 박아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제가 만들어낸 간첩모략단체였다.

≪민생단≫의 반동적 본질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생활의 산업화≫를 조선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활로≫라고 설교한 이 단체의 ≪조직 취지≫나 ≪강령≫과 같은 문건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적들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기간을 ≪생존권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절대적 시기≫로, 식민지통치질서의 기반밑에서 암흑의 세계로 변한 조선과 만주를 ≪자유≫와 ≪자율≫의 ≪대지≫로 묘사하는 한편 간도일대에 조선인에 의한 ≪자유의 낙토를 건설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만주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환영하며 간도일대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조중인민과 조중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선린관계와 혁명적 유대를 깨뜨려 버리려고 획책하였다.

≪민생단≫이 철저한 반공 주구단체라는 것은 그 발기인이라는 사람들과 창립 후 단장, 부단장, 이사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경력만 보아도 쉽사리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발기인들로서는 그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온 경성갑자구락부 이사 조병상이나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윤, 연변자치촉진회의 전성호, 김동한 등은 다 애국애민을 부르짖는 민족주의자, 혁명가로 자처하였으나 예외없이 일제가 오래 전부터 손때를 묻혀 길들여온 반역아들이였다.

16살에 일본유학을 가는 것으로써 친일의 첫걸음을 뗀 박석윤은 도쿄제국대학 법과와 제국대학연구원, 영국케임브리지대학 등 일류급의 대학들에서 여유있는 수학생활을 하였다.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는 매해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3,000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해외유학 후의 그의 직함은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였다.

≪동아일보≫기자, ≪매일신보≫부사장, 일본외무성촉탁 만주국외교부참사관, 폴란드주재 만주국 총영사　등 귀국 후 그가 역임한 직무들과 훗날 쏘일중립조약

체결시 일본측 단장으로 그 조약문에 수표했던 외상 마쯔오까 요스께가 이끄는 일본대표단성원으로 1932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연맹총회에까지 참석한 현란한 경력은 그가 일본지배층으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로서의 박석윤의 체면을 세울 수 잇게 그로 하여금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비난하는 사설도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반대하여 총독과의 정면대결도 하게 하고 태평양전쟁 말기 여운형이 주관한 건국동맹에도 관여하게 하였지만 ≪민생단≫과 관련된 원한도 있어 간도지방이 조선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해방 직후 박대우란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양덕에 숨어살다가 적발되어 민족반역자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석윤은 재판정에서 일제통치하 조선사람의 ≪민족자치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였다는 것, 조선도 영국의 식민지들인 캐나다나 남아연방과 같은 정치발전의 코스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는 것, 바로 이런 정치이념으로부터 사이또총독과도 가깝게 지냈고 일본의 이름있는 세계제패론자이며 동아연맹의 정신적 고취자의 한 사람인 이시하라 간지도 숭배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또한 ≪민생단≫의 창립취지가 공산당과 유격대의 괴멸에 있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민생단≫의 초기 목적은 순수한 ≪생존권 확보≫에 있었다는 것과 이 조직이 일제의 지령을 받는 간첩주구단체로 전락된 것은 자기가 간도를 떠나간 후의 일이라는 것, 반 ≪민생단≫투쟁 과정의 혹심한 피해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 자기는 일본인들의 조종을 받는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였다는 것 등을 진술하였다.

박석윤의 고백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역사만이 판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실여부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일제의 충견이며 심복이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논거로써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단≫창출의 산파역을 논 박석윤이 일본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면 ≪민생단≫모략공작의 현지 하수인이었던 김동한은 러시아의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었다. 김동한이 인생은 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0월혁명 직후에 벌써 러시아에서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고려공산당 군사부 위원과 장교단장직을 역임하면서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1920년초에 연해주에서 일제에게 체포되자 인차 급전향을 하여 반공 일선에 선 친일특무가 되었다.


관동군사령부

김동한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관동군의 승인을 얻어 그 후신인 ≪간도협조회≫를 조작하였으며 200여 명의 반동들로 의용자위대라는 것까지 무어가지고 다니면서 혁명군 ≪토벌≫에 극성을 부렸다. 그는 자기를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이라고 착각할 만큼 일본인으로 철저히 동화된 자였으며 조선민족은 일본을 조국으로 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고창할 정도로 매국배족근성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수급역적이었다. ≪만선일보≫가 전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가 귀순시킨 공산주의자는 자그마치 3,8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김동한이 죽은 후 일제는 연길공원에 그의 동상과 ≪간도협조회≫의 현창기념비라는 것까지 세워 주었다.

일제의 ≪간도치안전략≫에 따르는 사상모략시책으로 ≪간도성 내의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4,000명을 체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사회적 기반을 붕괴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이른바 ≪≪민생단≫전략≫의 실상을 잠깐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민생단≫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간도 민생해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였지만 일제침략자들은 그 당시 그 단체에 민족주의적 허울을 씌우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일본사람들은 ≪민생단≫의 간판을 민생고의 해결이라는 구슬로 현란하게 장식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일본영사관의 뒷문으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인차 간파했다. 적들은 만인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민생단≫의 정체를 오래 숨겨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혁명적 출판물들과 구두강연을 통하여 그 정체를 제때에 발가놓는 한편 반≪민생단≫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이도록 하였다. 간판에 현혹되어 멋도 모르고 ≪민생단≫에 들었던 사람들이 조직을 인차 탈퇴하였으며 주구로 전락되어 암해공작에 나섰던 자들은 군중의 손에 의해 적발 처단되였다.

≪민생단≫은 창립 후 얼마 못되는 사이에 해체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우리 대내에 ≪민생단≫조직을 거의나 박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민생단≫이 없는 반≪민생단≫투쟁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며 ≪민생단≫아닌 사람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무리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수립된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3년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에 있었다.

사이또총독의 전면적인 지원과 용정 일본영사관의 적극적인 배후공작으로 빛을 보았던 ≪민생단≫은 1932년 4월 조선주둔군의 간도파병과 함께 신임총독 우가끼의 의사에 따라 해체되었으나 그것은 형태상으로 자취를 감춘 것에 불과했다. ≪민생단≫은 해산되었지만 그것을 부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김동한, 박두영 등을 축으로 하여 비밀리에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1934년 봄에 연길헌병대장 가또 하꾸지로(패전 당시의 북중국 특별경비대사령관)와 독립수비보병 제 7대대장 다까모리 요시는 박두영을 비롯한 친일분자들과 함께 간도의 치안문제를 다시금 협의하면서 ≪민생단≫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으로 ≪민생단≫모략공작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생단≫조작이 만주성위 산하의 동만특위를 상대로 하는 사상모략 시책임을 명백히 하고 활동의 기본골자를 첫째로 ≪조선인 유격대에 대한 강력한 자체 붕괴분단 시책≫, 둘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양도차단 시책≫, 셋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항 귀순 권고≫, 넷째로 ≪투항귀순자에 대한 보호, 정주감시 시책≫, 다섯째로 ≪투항 귀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업알선≫에 두었으며 연길헌병대가 모략활동 전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민생단≫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생기게 될 ≪귀순투항자들을 일괄처리하며 귀순자의 배후관계, 위장귀순유무 확인,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 ≪간도협조회≫를 만들어냈으며 여기에 ≪민생단≫을 통합하였다.

김동한을 우두머리로 하는 ≪간도협조회≫는 동만특위의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일본의 음험한 모략가들이 공산당과 항일유격대를 상대로 한 사상모략 공작의 기본바탕으로 삼은 정치적 요점은 동만항일유격대의 조직구성과 지휘체계에서의 특수성이였다. 그들은 인민혁명군이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무장력이라는 점을 하나의 본질적인 약점으로 간주하였다. 일제의 모략가들은 제나름으로 중국인간부들은 조선인당원들을 신용하지 않고 부단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당원들과 대립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 특수성을 이용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조선사람이 만주에서 피를 흘리

는 것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기를 쓰고 싸우는가, 왜 역량상 우세한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에게 메여 무의미한 싸움에서 피를 흘리는가, 빨리 각성하라, 투항귀순의 길은 열려 있다, 이러한 사상을 열심히 주입시키는 것을 ≪민생단≫사상모략 공작의 주요한 선전요령으로 삼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특무들과 주구들을 발동시켜 유격구들에 ≪민생단≫원들이 수없이 침투된 것처럼 소문을 내돌리면서 견실한 간부들과 혁명가들을 모해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원시하게 했다. 적들 자신도 ≪간도 공산당파괴경험≫이라는 비밀문건에서 처음에 ≪민생단≫을 10명씩 조직하여 유격대 안에 들여 보냈으나 다 붙잡혀 죽게 되어 더는 침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사람과 중국사람, 노동자와 농민, 상부와 하부간에 상호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간시키는 전술을 써서 공산주의자들끼리 싸우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혁명대열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교란작전에서 일본의 모략가들이 발휘한 솜씨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 술책 가운데는 이런 수법도 있었다. 가령 동만특위에서 어떤 간부가 지방에 순시를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가는 길에다 이전에 지도사업차로 그 지방을 왕래하던 현급간부나 구급 간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특위 순시원이 그 편지의 수신인들을 어떤 인간들로 보겠는가.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의 길을 걷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만주성위나 동만특위, 각급 현당과 구당 조직의 책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형형색색의 일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야망에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대열 안에서 지도적 지위를 독차지하고 상승일로의 길로 전진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을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종속시키려고 하였다면 파벌근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지와 묵인속에서 종파적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오로부터 사정없이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확대하는데 이 투쟁을 악용하려고 하였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석을 가로타고 앉을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민생단≫이었다. 너는 ≪민생단≫이니 자리를 내놓아야겠다거나 죽어야겠다고 선언하면 다였다. 이런 판결에는 상소가 있을 수 없었으며 또 상소를 했대야 통하지도 않았다.

일제가 유포시킨 ≪민생단≫침투설은 당과 대중단체, 근대의 모든 책임적 자리를 좌파일색을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패권주의적이며 출세주의적인 욕구에 불을 붙여주는 인화물질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올리는 천정부지의 ≪숙반≫실적은 유격구의 혁명역량을 모조리 교살해 치우려는 모략가들에게 끝없는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은 적아가 합세하여 유격구를 마구 짓뭉개놓은 셈이다. 이런 기괴한 결탁은 세계의 어느 혁명전쟁사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반≪민생단≫투쟁이 이처럼 파쑈국가의 군법이나 중세기의 종교형벌조차 무색케 할 정도로 황당하고 가혹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일제의 간악한 모략과 그에 속아넘어간 동만특위의 일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암둔성과 그들이 추구한 목적의 비열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당시 그들이 ≪민생단≫이라고 보는 표징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형태별로 분류해놓으면 실로 수백 가지나 되었다.

유격대의 식사를 보장해 주는 작식대원이 밥을 설군 것도 ≪민생단≫으로 몰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밥에 돌이 섞이거나 물에 밥을 말아먹어도 그것은 곧 ≪유

격구의 인민들을 병들게 한 증거≫로 되고 ≪≪민생단≫의 작용≫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는 조건으로 되었다.

설사를 하면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민생단≫, 한숨을 쉬면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고 ≪민생단≫, 오발을 하면 적들에게 유격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민생단≫,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 민족주의를 고취한다고 ≪민생단≫, 일을 잘하면 정체를 숨기려는 수작이라고 ≪민생단≫,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민생단≫으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고도라는 별명을 가진 화룡현의 반제동맹위원회 책임자는 재인강에 나가서 정치공작을 하다가 자위단원들에게 체포되어 30여 명의 애국자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자위단원들은 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한사람한사람씩 목을 쳐서 죽였다. 고도도 물론 그런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도의 목은 땅에 굴러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목의 살과 가죽이 훌렁 벗겨져서 등에 가 붙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 이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치명상이였다. 고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이에 적들은 사형장을 떠나가 버렸다. 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형장에서 가까스로 일어난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면서 등에 가 붙은 살가죽을 목에 끌어다 붙이고 옷을 찢어 동여맨 다음 60여 리의 험산준령을 배밀이로 기고 굴러서 마침내 어랑촌유격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고도의 상처가 완치되기도 전에 좌경분자들은 그를 군중심판장으로 끌어냈다. 그가 적의 주구로서 혁명대열 내에 깊숙이 잠복하려고 일부러 목에 상처를 내가지고 유격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좌경분자들은 고도의 ≪죄행≫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나 심판장에 끌려나온 군중들은 그들의 판결을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 심판의 조직자들은 고도를 살려두고 일정한 기간 검열을 통해 그의 정체를 밝힌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뒤에 돌아가서 그를 암살해 버렸다.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의 수렁창으로 끌고가는데서는 이처럼 화룡현이 제일 과도하고 혹심하였다. 그것은 이 지방에서 당조직의 지도적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농락했기 때문이었다.

≪숙반≫의 화살은 혁명실천에서 모범적이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 아첨과 굴종을 모르고 불의와의 타협을 모르는 견실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조선인 간부들 주에서 반≪민생단≫투쟁을 제일 극좌적으로 벌인 인물은 김성도였다. 동만특위가 왕청에 자리잡고 있을 때 거기서 김성도는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처를 끼고 다니면서 특위, 현위의 간부들과 함께 술놀이와 화투놀이를 자주 하였다. 아내가 신여성 행세를 하며 살림살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의 집안일은 다 아동단원들이 도맡아해 주다시피 하였다. 김성도는 아편 꽃이 곱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동원시켜 아편을 심게 하고 그 진을 받아 자기한테 바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줄곧 ≪청렴정치≫를 염불처럼 뇌였다.

이처럼 뒷생활이 게겁지레한 김성도가 진실한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걸어제낀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심지어 그는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에 들었다는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정치공작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용정 동흥종아지트 책임자 김근수도 좌경분자들이 마수에 걸려들어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민생단≫이 아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나의 두 발목을 자르더라도 목숨만 살려 달라. 두 다리를 자르면 도망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두 다리만 자른다면 손으로 노전을 겯어서라도 혁명에 이바지하겠다. 혁명을

더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이것은 사형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숙반≫지도부는 도리어 ≪저걸 보라. 저놈이 죽으면서도 ≪민생단≫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끝내 그를 몽둥이로 쳐죽였다.

≪숙반≫의 철퇴는 당조직과 대중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유격대의 머리위에까지 떨어졌다.

≪호미긁개≫라는 토색적인 별명을 가지고 유격대에서 모범전투원으로 활동하던 양태옥도 ≪민생단≫모자를 쓰고 군중심판을 받았다.

≪죄명≫은 고의로 총의 격발기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양태옥에게 ≪호미긁개≫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자기네 조직책임자와 함께 삼포동 음식점에 내려가 집사대원들한테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부터였다. 그 때 두 놈의 집사대원은 음식점 안에 들어가 아편을 피웠고 한 놈은 문전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양태옥은 앞치락뒤치락하며 그 보초와 격투를 하였다. 그런데 힘으로써는 그놈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양태옥은 허리에 차고 간 호미로 집사대원의 면상을 긁어놓았다. 집사대원이 얼굴을 싸쥐고 너부러진 사이에 총을 걷어 메고 삼포동 산등으로 숨이 가쁘게 치달아 올랐다. 그는 비탈으로 톺아 오르면서도 총을 쏘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슬그머미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이상하게도 그가 기대하는 ≪꽝≫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태옥은 호미로 격발기를 쳐서 안전장치를 떨구었다. 하지만 호미등에 얻어맞은 격발기의 상처로 하여 그는 훗날 유격대에서 제거되어 적구로 추방당할 운명을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좌경분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민생단≫벙거지를 씌우고 극형에 처했거나 유격구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미긁개≫와 같이 목숨을 아낄 줄 모르는 용감하고 쟁쟁한 투사들이었다. 이런 투사들이 ≪민생단≫노릇을 하려고 가짜 권총이나 호미를 가지고 백주에 무장경관들의 수중에서 총을 탈취해 내는 그런 모험을 했겠는가. 그래 심판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인간들에게는 그런 열혈투사들이 ≪민생단≫이라는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반혁명에 가담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판별한 만한 지능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판단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혁명에 참가한 사람치고 그런 정도의 판단력조차 못 가진 천치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안도투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창즈에서만도 수백 명의 조선사람들이 ≪민생단≫바람으로 학살되었다고 한다.

동만당과의 연계가 깊었고 간도의 실정에 무척 밝은 주보중도 자기의 회상록에 ≪민생단≫에 걸려 죽은 사람의 수가 2,000명이나 된다고 증언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들은 ≪숙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로서는 감히 자행할 수 없는 악착스러운 방법으로 당조직과 대중단체 성원은 물론, 아동단 열성자에 이르는 모든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

≪숙반≫운동의 앞장에 섰던 김성도, 송일, 김권일 자신들도 나중에는 ≪민생단≫이라는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였다.

송일과 김권일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나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상급에 맹종맹동하다나니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였다. 나는 그들이 사형장에서 우리의 만세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 두 사람은 나와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자주 하였다. 그들이 사형장에서나마 이성으로 돌아와 냉철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박현숙이라면 왕청치고도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일류급의 신여성이었다. 눈이

별같이 반짝반짝한다고 하여 소왕청사람들은 그를 ≪샛별눈≫이라고 불렀다. 예능에 조예가 깊은 그는 왕청에서 한동안 아동국장으로 사업하였다. 나이는 그닥 많지 않았지만 지하공작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여자였다. 그이 시아버지 최창원(최노톨)은 현반제동맹 책임자였다.

박현숙이 아직 최형준과 결혼을 하지 않을 때 그이 지도를 받고 있던 무단천이 아동단원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통신연락을 부지런히 하였다. 박현숙이 돈을 주면 아동단원들은 상점으로 돌아다니며 유격대에 보낼 물품들을 구입하였다. 이 물품들은 ≪샛별눈≫의 손을 거쳐 비밀유격대와 별동대의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투사들에게로 전달되었다.

박현숙의 일거일동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던 적들은 그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그날 ≪샛별눈≫은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어떤 동료의 집에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집에까지 따라와서 박현숙을 내놓으라고 행패질을 하였다. 자기 때문에 집주인이 봉변을 당하게 되자 천장에 숨어 있던 박현숙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경관들앞에 버젓이 나타났다. 그는 감옥에 끌려가 살점이 뭉청뭉청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떡함지에 혁명가요를 써서 내보내 주는 식으로 오히려 감옥 밖의 인민들과 동지들을 고무해 주었다. 그 후 경찰은 그를 석방하였다.

박현숙이 최형준과 결혼잔치를 하는 날에는 공산당 여자가 시집을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하면서 백초구경찰들이 무슨 낌새라도 맡으려고 3명이나 끼어들어 술을 얻어마시고 신부에게 노래까지 청하였다. ≪샛별눈≫은 그 요청을 받고 혁명가요를 냅다 불렀다. 취중에 신부의 노래를 들은 경찰들은 그것이 혁명을 선동하는 노래인줄도 모르고 공산당 여자가 대단한 명창이라고 하면서 재청까지 요구하였다.

박현숙의 남편 최형준도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가정생활도 하고 투쟁도 잘하였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총을 맞아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지방공작에서 종전과 같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타고 다닐 말이 있는가. 자동차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는 몸으로 절름거리면서 먼길을 왔다갔다 하다나니 남보다 일을 축내지 못할 것은 뻔하였다. 그런데 ≪숙반≫지도부는 그에게 ≪소극분자≫라는 간판을 붙이고 ≪민생단≫으로 걸어 학대하고 감시하였다. 박현숙도 ≪민생단≫의 아내라는 이유로 지도간부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런 때에 그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샛별눈≫을 타일렀다. ≪민생단≫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때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최형준은 처음부터 지하공작을 잘하던 사람이고 유격구에 들어와서도 투쟁을 잘하던 동무가 아닌가, 그는 이론수준도 있는 혁명가이다.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하는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 후 우리는 박현숙을 쏘련으로 들여보냈다. ≪샛별눈≫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반≪민생단≫열파로 초목마저 떨던 왕청시절을 어떤 심정으로 회상하겠는지 모르겠다.

유격구의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동요하였다. 혁명이라는 것이 그저 그렇더라, 걸핏하면 저희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저 그 모양이더라, 조선사람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간도땅에서 농토도 개척하고 혁명도 개척했는데 그 선구자들을 다 잡아죽이고 줴내깔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심보인가, 이거야 영도권을 잡기 위한 숙청이 나이고 무엇인가, 권력을 위해서 지난날의 의리나 인연마저 다 저버리고 자기편을 서슴없이 학살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이따위 혁명은 해서 뭘 해, 이런 도깨비놀음을 할 바엔 차라리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든가 하다못해 산중에 들어가 중이 되어 목탁이라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게 낫지 않겠는가고 사람들은 쓴입을 다시며 생각하였다. 반≪민생

단≫투쟁의 미친 바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인생관과 혁명관에 녹이 쓸게 하였다.

무의식 군중들은 자연히 혁명을 버리고 적구나 무인지경으로 도주하게 되였다. 혁명을 하려고 왔다가 혁명한테서 구박을 당하고 허공중에 뜬 신세가 되였으니 그들이 깃을 붙이고 살아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혁명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혁명이며 죽어도 정의를 위해 한 몸을 아낌없이 바치다가 싸움터에서 값있게 죽어 영생을 얻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데 영생이 다 무엇인가. 혁명가들은 어젯날까지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도살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그러기에 해방 후 나는 반≪민생단≫투쟁 때문에 적구로 내려가서 ≪귀순≫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혁명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들한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격구를 결별한 것이 어떻게 죄로 될 수 있겠는가.

무지한 살륙으로 하여 왕청의 강물과 고등하의 물이 선혈로 걸어지고 간도의 어느 골짜기에서나 통곡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충항도 간도땅을 결별하였다. 나는 가겠다, 여기서 이 이상 더는 피비린내를 맡으며 살지 못하겠다, 공산당이 정치를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동만당지도부가 공산당을 망신시킨다고 하면서 북만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엄중성을 간파하고 진상을 더 구체적으로 요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당시 요영구인민들은 적들의 ≪토벌≫이 심하였기 때문에 수림속에 들어가 토굴집을 짓고 살았고 혁명군은 유격구어귀에 병실을 짓고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보호하였다. 유격대병실에서 마을까지는 15리쯤 가야 했다.

내가 전령병들을 데리고 마을에 올라가 노인들과 담화를 하고 있을 때 홍혜성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노인들과의 담화를 끝내자 그를 만나보았다.

≪지휘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합니다. 이거야 어디 억울해서 견디겠습니까. 왕청땅에 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이 마음고생만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간도 땅에서 이런 성화를 받으면서 혁명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 나가서 지하투쟁이나 합시다. 여기서처럼 유격근거지 같은 것은 창설하지 못해도 지하투쟁같은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작비는 약방을 운영하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장해 드리겠으니 조선으로 나갑시다.≫

홍혜성은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사래질로 그에게 음성을 낮추라고 신호하였다.

≪혜성동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소리를 탕탕 하오.≫

≪장군님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그런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소.≫

나는 홍혜성의 고백을 듣고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홍혜성이 마저 유격구를 떠나려고 결심하였다면 이 왕청땅에 남아서 혁명을 계속할 인물은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하는 암담한 생각조차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격구를 열렬히 사랑해

온 처녀였다. 유격구도 그에게 큰 애정을 부어 주었다. 그는 대담한 지하공작원인 동시에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아동들의 스승이었으며 면허증은 없으나 진단을 잘 내리고 치료를 잘하는 비전임 의사이기도 하였다.

동만당 지도부와 왕청현당의 간부들 가운데는 그의 치료를 받고 3년 묵은 옴병을 뗀 사람도 있었다. 옴을 뗀 사람들은 누구나 홍혜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간부들도 그를 재간둥이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은 자기야말로 유격구에 필요한 존재이며 더욱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더욱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가 돌변하여 나에게 탈출을 호소한 것이다. 처녀는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민생단≫으로 처형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믿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한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유격구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처럼 열정에 넘치고 투쟁욕으로 충만했던 홍혜성이 탈출까지 결심하였겠는가. 동지들이 주검으로 뒤덮인 이 간도 땅은 그에게 있어서 이전날 그렇게도 순정을 바쳐 사랑하던 별천지도, 보금자리도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혜성동무, 그래서는 안되오. 나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혁명이 망하는가, 흥하는가 하는 이 대목에 와서 고난을 참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소. 고통스럽고 진절머리가 나더라도 여기서 ≪민생단≫문제를 수습하고 투쟁을 계속해야 하오. 이것만이 혁명가가 갈 길이고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오.≫

내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자 홍혜성은 눈물을 씻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도 막막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 용서하십시오.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북만에 가신 장군님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민생단≫감옥에서도 대장동지를 찾았습니다. **김**대장이 언제 돌아오는가, **김**대장한테서 소식이 없는가, **김**대장한테 동만이 소식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가고 하면서 대장동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북만원정대가 다 죽었다는 소문만 자꾸 나지 않겠습니까. 일본놈들도 그렇게 신문에 내구요.≫

홍혜성은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얹었다.

나는 그이 눈굽에 맺히는 핏방울 같은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자책을 느꼈다.

홍혜성의 말은 나로 하여금 조선의 혁명가로서 자기에게 지워진 책임을 두고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혁명이 이 모양, 이 꼴대로 타살되고 마는가, 아니면 부활하여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엄숙한 시점에서 만일 수천수만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숙반≫의 무분별한 살인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조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동만당 지도부에 제기하였다. 만주성위의 순시원도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회의소집을 발기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한 장의 통신문건을 받았다. 그것은 다홍왜에서 동만지방 군정간부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서였다.

출발을 앞두고 나는 작식대병실을 찾았다. 몇 달째 ≪민생단≫혐의를 받고 울적해 한다는 홍인숙어머니를 만나 북만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옷감을 선물하려는 것이었다. ≪민생단≫ 혐의자에게 선물을 주면 대장도 ≪숙반≫지휘부사람들에게 걸려들 수 있다고 전우들이 경고하였으나 나는 그 경로를 무시하였다. 인도주의가 죄로 될 수 있다니 그게 될 말인가.

2. 다홍왜에서의 논쟁


다홍왜회의 장소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동만당 지도부 인물들 사이의 논쟁이 다홍왜회의에서 비로소 시작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고찰이라고 볼수 없다. 그 논쟁의 시초는 1932년 10월에 있었다. 북만진출을 개시한 우리 부대가 왕청지방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때였다.

나는 그때 왕청 체류 일정의 첫 순서로 1구(요영구)당 사업을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에 현당과 구당의 일부 일군들이 반≪민생단≫투쟁을 혁명적 원칙과 배치되게 극좌적인 방법으로 망탕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어느날 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던 나는 구당 사무실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저건 무슨 소립니까?≫

이웅걸은 웬일인지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현당 사람들이 이종진이란 사람을 잡아놓고 문초를 하는 소립니다.≫

≪왜요? ≪민생단≫혐의자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본인은 사흘째 아니라고 뻗대는데 간부들은 자꾸 죄상을 내놓으라고 달구치지요. 저 소리만 들으면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쳐 버립시다.≫

≪그를 ≪민생단≫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구공작을 나갔다가 며칠 늦어서 유격구로 돌아온 게 문제가 되었지요.≫

≪아니, 그런 것도 이유로 된단 말이오?≫

≪대장 동무, 말을 삼가하시우. 여기서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민생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민생단≫바람에 살기가 여간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웅걸의 만류를 물리치고 구당 사무실로 향하였다.

현당에서 온 사람은 1구의 적위대원들과 함께 그냥 이종진을 무섭게 문초하고 있었다. 현당의 간부는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손님에게 왕청사람들이 계급투쟁을 얼마나 본때 있게 하는 한번 구경하라고나 하는 듯이 기광을 부리며 이종진을 두드려 팼다.

이종진은 중국인 지주집에서 10년 이상이나 머슴살이를 해온 고농이었다. 적의 ≪토벌≫에 아내를 잃고 어린 두 자식은 혁명을 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주었다. 유격구에 들어와서는 1구 소속의 지부 당서기로 공작하였는데 군중들의 신망이 높았다. 이런 사람이 이적단체에 가담하여 반혁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 공작 날짜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사업상의 불찰을 ≪민생단≫근거로 삼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나는 심문을 중단시키고 현당과 구당의 간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었다.

≪동무들, 내가 요해한 데 의하면 이종진동무는 ≪민생단≫으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 똑똑한 근거도 없이 자그마한 공작상 오류를 가지고 아무 사람한테나 망탕 몽둥이질을 해서는 안된다. 반≪민생단≫투쟁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심중하게 해야 한다.≫

심문은 일단 중지되였으나 현당 사람들은 내가 요영구를 떠나 마촌으로 간 다음 이종진을 끝내 학살하였다.

그 대신 안도에서 온 **김일성**대장이 요영구 구당 사무실에 나타나 현당에서 내려간 모모한 간부들의 ≪민생단≫ 심문을 정지시키고 그들을 탄핵했다는 소문이 왕청현당과 동만특위 간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 소문은 왕청지경을 넘어 연길, 화룡, 훈춘 지방에도 퍼져갔다. ≪그 사람이 무슨 화를 입으려구 그런 참견을 했을까, 물불을 모르는구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왕청맛을 잘 몰라서 그래. **김**대장이야 안도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담은 큰 사람이야.≫하고 조심스럽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1구당 사무실에서 보여준 언행은 사실상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쟁의 발단으로 되였다.

이 논쟁은 1933년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였다. 1933년은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민생단≫과 관련된 숙청사업이 제일 소란스럽게 벌어지던 때였다. ≪민생단≫혐의를 뒤집어쓴 조선족 출신의 적지 않은 군정간부들과 혁명가들이 바로 이 해에 주거나 도주하였다.

나도 역시 ≪민생단≫올가미에 걸려들 뻔하였다. ≪숙반≫사업을 극좌의 흔들레판으로 끌고가던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를 ≪민생단≫과 연관시키려고 검질기게 애를 썼다.


요영구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

그들이 내두르는 ≪증거≫라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였다. 그 ≪증거≫ 가운데는 도문지주납치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 당시 유수하자지방에 상주하고 있던 100여 명의 반일부대들은 군복을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방조를 요청해 왔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구국군이 경제모연공작에 써먹으려고 잡았다가 놓친 지주를 데려가다 잘 설복하여 그의 도움으로 500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군복 천과면화를 해결하였는데 이것을 도문지주납치사건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때 그 천과 솜으로 왕청지방반일부대장병들에게 옷을 다해 입혔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엄동설한에 군복조차 해 입히지 못하면 반일부대장병들이 적들에게 귀순하거나 투항해갈 우려가 많았다. 구국군과 같은 우군의 협력이 없이 혁명군의 힘만으로 고군독전해서는 유격구를 유지해 나가기가 곤란하였다.

이용국의 후임으로 왕청현당서기의 자리에 등용된 김권일은 동만특위의 몇몇 간부들과 함께 유격대가 지주를 이용하여 구국군의 동기 군복을 해결한 것은 우경투항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군대를 맡고 있는 **김일성**은 ≪민생단≫의 작용을 방임하고 조장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내 이름까지 걸고들며 그 무슨 책임을 운운한 것은 사실 동만땅에서 발언권이 있는 조선족 출신 간부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제거해 버리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그들은 지어 **김일성**이 반≪민생단≫투쟁을 잘 안하기 때문에 왕청유격대 안에 ≪민생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나를 ≪숙반≫의 심판대 위에 올려 세우려고 애썼다.

이렇게 되어 나와 그들 사이에 정면충돌이 생겼다.

나는 지주를 통하여 구국군의 옷을 해결한 것이 우경으로 될 수 없고 더구나 ≪민생단≫의 작용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다음 반≪민생단≫투쟁에 대한 나의 견해도 서슴지 않고 공개하였다.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이 곧 간첩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는 것만큼 그것은 누구든지 외면할 권리가 없다, 나도 우리 내부에 ≪민생단≫이 침습하는 것을 바

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민생단≫을 숙청한다고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생사람을 잡는데 대해서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죄도 없는 자기편 사람들을 망탕 잡아죽이는 것이야말로 혁명을 파괴하는 이적행위인데 우리가 어찌 그런 행위를 보면서도 함구무언할 수 있겠는가. 보라. 당신들이 ≪민생단≫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격구에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쟁쟁한 싸움군들이 아닌가. 그런 싸움군들이 무엇 때문에 혁명을 반대하는 ≪민생단≫이 되겠는가. 당신들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좌경분자들은 내 말을 듣자 노발대발하면서 ≪동무는 그럼 반≪민생단≫투쟁노선을 반대하는가?≫고 큰소리로 따지고 들었다.


장룡산

≪혁명에 충실한 자기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신들이 추구하는 반≪민생단≫투쟁노선이라면 나는 그런 노선을 지지할 수 없다. ≪민생단≫을 잡아내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똑똑히 잡아낼 것이지 하필 왜 이 산속에서 배를 곯으며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껴 버리는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나의 논박이였다.

내가 날을 세워 가지고 문제를 첨예하게 끌고가자 동만특위의 좌경분자들은 ≪**김일성**이 ≪민생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부족하면 좋다.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수감자들의 진술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당신들도 입회하라.≫고 하였다.

이수구골 안의 ≪민생단≫감옥에 갇혀 있던 수감자들 중에는 장포리(본명 장룡산)라고 부르는 중대장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왕청지방의 명포수였다.

장룡산은 아버지를 따라 사냥터에 자주 다니면서 총 쏘는 솜씨를 익혔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단꺼번에 8마리의 노루를 잡아다가 수제비국을 해먹을 정도로 사격술이 높은 사람이였다. 그가 소왕청방위전에서 혼자 쏘아잡은 적만해도 아마 100명은 넘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온 지휘관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런 인물이 하루아침 사이에 ≪민생단≫ 벙거지를 쓰고 짐승우리나 다름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그것을 보는 내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장포리, 똑똑히 대답해 보라. 너 정말 ≪민생단≫인가?≫

나는 ≪민생단≫ 감옥에 가자 장룡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장룡산은 별로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민생단≫입니다.≫하고 얼른 시인해 버렸다.

≪그럼 ≪민생단≫ 노릇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왜놈 새끼들은 수태 쏴죽였는가?≫

장룡산의 진술을 들어보려고 감옥까지 따라온 좌경분자들은 모두 댕댕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흥분를 가라앉히고 장룡산을 조리 있게 타일렀다.

≪이것 보라. 장포리, ≪민생단≫이라는 것야 일본놈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또 일본놈들이 만들어낸 반동조직인데 네가 ≪민생단≫이라면 그놈들을 100여명 이상이나 쏘아 잡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 바른대로 해야 할 게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 보라.≫

장룡산은 그제서야 내 손을 붙들고 오열을 터뜨리면서 목이 꺽꺽 메이는 하소연을 하였다.

≪대장 동무, 나야 무슨 까닭으로 ≪민생단≫이 되겠소. 아니라고 대답해도 들어

주지 않고 자꾸 두드려 패니 다른 수가 없이 ≪민생단≫이라구 했소. 대장 얼굴에 먹칠을 해서 죄송스럽소.≫

≪내 얼굴에 흙칠을 하건 먹칠을 하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주리를 트는 폭군들앞에서는 ≪민생단≫이라고 대답하고 내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줏대 없는 인간이라는데 있다. 나에게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겹쟁이가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노기등등해서 ≪감옥≫문을 나섰던지 좌경분자들은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였다.

그날 나는 동장영을 만나서 한바탕 항의를 들이댔다.

≪내 보기에는 당신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 반≪민생단≫투쟁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함부로 잡아 가둘 수 있는가? 반≪민생단≫투쟁은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한다. 상층에 있는 몇몇 권력자들의 독단이 아니라 대중의 토의를 거쳐 적아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고문과 위협의 방법으로 없는 ≪민생단≫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왕청에서 장포리를 ≪민생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다. 장포리는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하니 당장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좌경분자들에게 유격대 안에 있는 ≪민생단≫은 정치부의 승인이 없이 마음대로 다치지 못한다고 선포한 다음 부대에 돌아와 장룡산을 ≪숙반≫지휘부에 제멋대로 넘겨준 지휘관을 처벌하였다.

그날 동만특위에서는 나의 요구대로 장룡산을 석방하였다.

장포리는 그 후 영안현 주지툰이라는 곳에 파견되어 식량공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싸웠다.

세상에 널리 소개된 박창길사건도 하나의 시련이라면 시련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허라는 곳에 주둔해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우리는 도문 부근에서부터 끌고 온 민회소를 잡아 군인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먹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고기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설사에 걸려 고생하였다.

전우들은 내 숙소에 우르르 쓸어와서 ≪민생단≫이 우물에 다 독약을 쳐서 전부 중독되었는데 무리죽음이 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는 전멸될 수 있었다.

나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중대를 전부 뒷산에 데리고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적의 내습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여도 내 자신은 전혀 배가 아파나지 않는 것이었다. 응당 있게 되리라고 예측했던 적의 출동도 없었다.

나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공청서기, 청년간사를 비롯한 중대의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두 불러다놓고 동무들도 ≪민생단≫이 정말로 우물에 독약을 쳤다고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지휘관들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제히 ≪예, 그런 것 같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나는 소고기국을 어제 저녁에도 먹고 오늘 새벽에도 먹었는데 배가 아프지 않소.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내 배나 중대장의 배도 아프겠는데 아프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소?≫

≪지휘관들이 먹는 국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대장이 하는 말이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소. 한 가마국을 먹은 이상 지휘관들의 것이라고 해서 약독이 미치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얼마 후 마을을 순찰하던 소대장이 우물에 독약을 친 ≪민생단≫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키가 장총 기장만큼 되는 아이를 나한테로 데려왔다. 그 아이가 바로 문제의 박창길이였다. 소대장이 하는 말이 그가 마을사람들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것이였다.

동네에서는 범인들 잡아냈다고 술렁술렁 끓었다. 그놈이 몹쓸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창길의 어머니를 때려죽일 여자라고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창길이는 중국인 지주네 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며 고생스럽게 자라난 애였다. 그의 형들 가운데는 유격대에서 중대 후방책임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아이가 유격대의 한 개 중대 역량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해독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나는 창길이와 몇 시간 동안 담화를 하였다. 창길이는 내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울면서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가 처음에 마을사람들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 것은 자기에게 독약을 쳤다는 험턱을 억지로 들씌우는 마을아낙네들에 대한 반발이였다.

우리는 중대를 데리고 지체없이 산에서 내려와 군중대회를 열고 박창길의 무죄를 선포하였다.

≪이 애는 약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약을 쳤는가? 여러 분들 가운데는 약을 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약을 먹은 사람도 없다. 있다면 설사를 만나서 하루이틀 고생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배앓이를 한 것은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몰아주던 창길이를 유격대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선포한다.≫

마을아낙네들은 나의 연설을 듣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박창길이를 ≪민생단≫으로 몰아주던 여자들까지도 다 흐느껴 울었다.

좌경분자들은 박창길사건도 역시 우경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문제시하였다.

박창길은 그 후 유격대에 입대하여 소왕청방위전투에서 영용하게 싸웠다.

이처럼 나는 좌경분자들의 포위속에서 몇 가지의 큰 모험을 하였다. ≪민생단≫ 감옥에서 장포리와 양성룡을 빼내온 것이 하나의 모험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모험은 박창길의 무죄를 선포하고 그를 유격대에 받아들인 것이였다.

권력에 환장한 천박하고 암둔한 인간들이 색안경 너머로 만사람의 진가를 가늠해보며 검사나 판사나 형리의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동지를 동지로 대하며 인민을 인민으로 섬기는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했던 투쟁이였다.

만사를 ≪민생단≫의 작간으로 보는 불신의 감시경밀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최대의 보신책은 사실 아무 일에도 참견하지 않으며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른 것을 보고서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목숨과 같고 구태여 살 필요조차 없는 생명 없는 생명이라는 제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라고 보는 모든 것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한다면 그것이 무슨 혁명가이겠는가. 나는 ≪숙반≫의 회오리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한 몸을 내대고 투쟁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밀어제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민생단≫ 아닌 ≪민생단≫을 숙청하는데서 권력의 진미를 느낀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심지어 동만유격구 내에 꾸려진 당과 유격대의 조직체계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만당의 ≪민생단≫체계와 인민혁명군의 ≪민생단≫체계라는 것까지 고안해내고 그것을 공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좌경분자들은 우리에게 유격대 내에도 ≪민생단≫이 많이 침투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반≪민생단≫투쟁에서 더는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나와 내 수하의 대원들 사이에도 쐐기를 박으려고 획책하였다.

어느 날 모 간부가 우리 부대를 찾아와 동만당조직부장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 주었다. 편지를 뜯어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서 입수한 자료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조직부장은 한봉선이라는 대원이 ≪민생단≫을 크게 해 가지고 나까지 죽이려 하였는데 죄상으로 보아 마땅히 체포하여야 할 대상이니 당장 잡아내야겠다고 하였다.

한봉선의 ≪죄상≫은 엄청난 것이었으나 편지를 읽어보니 어째서인지 거기에 씌어진 사연들에 믿음이 잘 가지 않았다. 우선 그가 ≪민생단≫책동을 크게 벌인다는 사실이 몹시 허황해 보였다. 지금껏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을 잘해온 한봉선이 무슨 망녕이 들어 ≪민생단≫에 가담한단 말인가.

인격상으로 보더라도 그는 자기 상관을 모함하거나 살해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할 수 있는 포악한 성격의 사나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남들이 시샘을 하리만치 선량하고 예절이 밝은 미남자였다. 평상시 나와의 친분도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준 상관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편지에 씌어진 사연들을 무턱대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조직부장이 아무려면 나에게 거짓말을 꾸며내겠는가. 내 심중은 이래저래 불쾌해졌다.

나는 편지를 가지고 온 간부에게 내가 직접 더 검열해보고 처리할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언제 일이 날지 모를 판인데…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군.≫하고 그 간부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내 곁을 떠나가 버렸다.

내 머리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봉선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자고 할까? 나를 해칠 건덕지가 없지 않는가. 그를 특위에 보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를 둬두었다가 정말로 후환이 생기면 야단이 아닌가.

며칠 후 나는 한봉선을 지휘부로 불렀다.

한봉선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대장동지,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혹시 적구공작에 내보내자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맞혔소. 오늘 당장 삼차구에 가서 밀정 한 놈을 붙잡아와야겠소. 동문 참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구만.≫

≪후각이고 뭐고가 있습니까. 지난밤 꿈에 도문구경을 좀 했는데 우리 중대 친구들이 해몽하기를 적구공작에 나갈 징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해몽을 멋있게 해낸 셈이지요.≫

≪그럼 내가 호신용 권총을 한 자루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떠나도록 하오.≫

≪총은 거치장스러워서 두고 가겠습니다. 입으로 구슬려서 데리고 올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럼 총은 묻어두었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오시오.≫

한봉선은 내가 시킨 대로 싸창 한 자루를 중도에 묻어두고 삼차구 시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명한 밀정을 만났다. 너 공산구역에 한번 들어가보지 않겠는가? 너의 신변안전은 내가 담보한다는 말로 그를 구슬려서 유격구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 밀정을 내가 직접 심문하였다.

≪우린 네가 일본놈의 개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대신 우리 일을 좀 해줘야겠다. 헌병대에 이름을 걸고 서약도 했으니 일본놈들이 시키

는 일은 그냥 하면서 ≪토벌대≫가 올 때에만 우리한테 미리 알려 달라. 너에게 다른 임무는 주지 않겠다. 너 그것만 잘해 주면 이 다음에 혁명가로 인정해 주겠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밀정은 대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혁명조직성원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신변보호만 잘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나는 밀정이 돌아갈 때에도 한봉선을 불러 그를 삼차구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였다. 물론 한봉선은 그 임무도 훌륭히 집행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나는 동만특위의 간부들에게 말했다.

≪한봉선을 검열해보느라고 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뛰지 않았다. 일본놈 개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개도 잡아왔다. 총과 탄알을 다 주었으니 나를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민생단≫이겠는가?≫

동만당의 간부들은 ≪민생단≫도 그런 흉내는 낼 수 있다, 그가 총을 가지고서도 도망치거나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은 간부들의 신용을 얻어 가지고 대열에 더 깊이 침투하여 ≪민생단≫ 작용을 큼직하게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한봉선에게 두 번째 과업을 주었다. 도가선 철길에 가서 폭발을 묻고 오라고 하였다.

한봉선은 이번에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슴지 않고 공작지로 떠나갔다. 동무는 모험심이 너무 강한 것이 탈이다,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더니 그는 잡히면 잡히고… 까짓 것, 그런 건 꿈만합니다. 잡혀도 변절은 하지 않을 테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기껏해서 총살을 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한봉선을 돌격조에 망라시킨 것은 그 다음에 있은 일이었다. 우리는 그때 왕청 주변의 어느 집단부락을 습격하였는데 그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 돌격조를 책임진 한봉선은 선두에서 포대를 들이치다가 불행하게도 한 쪽 손을 잃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 용감무상한 낙천가는 ≪민생단≫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나는 세 차례의 검열을 통하여 그가 ≪민생단≫이 아니고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때 내가 한봉선을 검열해보지 않고 조직부장에게 보냈더라면 그는 영락없이 반동분자의 감투를 쓰고 처단되었을 것이다. 내가 좌경분자들의 영을 잠깐 보류시키고 검열을 통하여 한봉선을 구원해 준 것은 사실 목숨까지도 왔다갔다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만일 그때 한봉선이 총을 가지고 어느 간부를 살해했거나 적구로 달아났다면 나는 그를 신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모험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개별적 일군이 내던지는 한마디의 명령이나 한 번의 손짓에 따라 수십 수백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험악한 ≪계급투쟁≫의 마당에서 혁명가의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정이나 의리마저 저버린 목석 같은 인간들의 도전을 순간마다 당하면서도 내가 그 어떤 압력에도 굽어들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은 것은 깨끗한 나의 경력과 유격대지휘관으로서의 전투성과와 이론적 뒷받침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도에서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간부들 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또한 길림시절부터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나만은 함부로 ≪민생단≫으로 걸어 제끼지 못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동만의 유격구들을 한창 휩쓸고 있을 때 나는 병석에서 일어나 다홍왜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수십 일간이나 내처 앓던 몸이어서 회의에 참가할 만한 기력은 없었으나 내가 요구한 회의이니 반드시 가야 했다. 그런데 4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비롯한 군대 내의 많은 동무들이 내가 다홍왜로 떠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대장동지, 만주성당에서도 파견원이 오고 공청 만주성위에서도 파견원이 왔다는데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대장동지 편에 있다고 해도 어쨌든 대장동지는 혼자이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중대 정치지도원이 나에게 넌지시 한 말이였다.

전령병인 오대성까지도 나의 다홍왜행에 대해 우려하였다. 다홍왜회의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축복의 인사를 보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고무해 주는 낙천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나의 출발을 앞두고 그처럼 불안해 한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1935년 2월이면 만주성당이 동만 각급당부와 전체당원들에게 전당을 볼셰비키화하기 위하여 숙반공작과 좌우경을 반대하는 양조전선의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 당내에 침입한 반혁명분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파쟁주의, 민족주의, 사회개량주의를 청산구축할 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한 뒤였다. 이 지령이 하달된 후 동만 각급당조직들에서는 반≪민생단≫투쟁이 더욱 극좌적으로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쟁은 그때까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당과 군대, 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모이는 다홍왜회의에서는 논쟁이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첨예하게 벌어질 것이다. 좌경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 하나라면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10이나 20명도 넘을 수 있다. ≪민생단≫문제가 일정에 오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체로 다 입을 봉하고 아닌 보살을 하는 것이 전례이니까. 그런즉 나는 좌경의 포위속에서 전체를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논쟁은 나를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되고 회의장은 나를 매장해 버리는 재판장으로 변할 수 있다. ≪민생단≫이라고 하면서 나를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장해 버리려는 극단한 시도도 있을 우려가 없지 않았다.

전우들은 바로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숙반≫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 사정없는 돌심장들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우들은 사색이 되어 다홍왜로 가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길을 떠났다.

≪동무들, 이 길은 죽든지 살든지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다. 내가 만일 다홍왜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앞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기회가 왔다. 대결은 피할 수 없고 흑백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나는 오대성과 다른 한 명의 전령병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야 다홍왜에 도착하였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엄한 경호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제8구 농민위원회 사무소에서 만주성당 파견원 위증민이 왕윤성, 주수동, 조아범, 왕덕태, 왕중산을 비롯한 동만당단특위의 간부들과 함께 나를 맞아 주었다. 이 너렁청한 사무소건물에서 바로 중국사람들이 동만당단특위 연석대회라고 규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회의를 다홍왜회의라고 부르고 있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이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한 명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홍왜회의는 약 10일 가량 진행되었다. 회의 도중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석자의 숫자는 고르롭지 못하였다. 대부분은 중국사람들이였고 조선족 출신으로는 나와 송일, 임수산, 조동욱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뿐이였다고 생각된다. 조동욱은 회의 전기간 중국말을 잘 모르는 조선족 간부들을 위해 통역의 임무를 수행하였

다. 나는 동만당 특위위원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다홍왜에서 회의가 소집되게 된 동기는 공청 만주성우 순시원의 자격으로 간도지방의 사업을 요해하러 내려왔던 종자운(쏘중)이 동만지방 조선사람들의 70%가 ≪민생단≫이라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보고를 성당조직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만혁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주성당이 대표를 동만에 급파하여 수습책을 강구하려고 한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논쟁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였다.

논쟁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종자운이 보고에서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70%, 조선혁명가들이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면 유격구가 ≪민생단≫의 양성소라는 종래의 견해를 되풀이한 순간부터였다.

회의분위기는 종자운의 보고를 지지하는데로 기울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숙반공작위원회를 강화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숙청은 혁명으로 대내의 반혁명을 포위섬멸하는 특수전이라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이 뿌리놓은 씨종자들을 보다 철저히 무자비하게 뿌리째 뽑아내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몇 마디 질문을 들이댔다.

동만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나와 기타 조선동지들도 다 ≪민생단≫으로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과 마주앉아 회의를 하는가? 우리가 ≪민생단≫이라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고 여기에 불러다 놓고 정치를 상론하는가?

동무들이 찍어놓은 그 숫자속에는 싸움터에서 전사한 혁명가들도 포함되는가? 만일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항일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놈들이 자기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것으로 되는데 그들이 모처럼 키워놓은 ≪민생단≫원들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 회의장을 호위하고 있는 1중대의 80-90%도 ≪민생단≫으로 보는가?

이 질문으로 하여 술렁거리던 회의장 안에서는 갑자기 우리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차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행석에 앉아 있는 위증민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다 알다시피 어떤 물질이든지 본래의 구성요소와 다른 요소가 80-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다.

동만에 사는 조선사람의 70%가 ≪민생단≫이라는 것은 노인들과 아녀자들을 제외한 조선족 청장년들 전부가 ≪민생단≫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렇다면 동만에서는 ≪민생단≫이 혁명을 하고 있으며 ≪민생단≫이 자기 상전을 반대하는 혈전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그들이 만일 ≪민생단≫이라면 무엇 때문에 3년동안이나 만성적인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유격구들에서 엄동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적들과 힘에 겨운 싸움을 해왔겠는가?

조선혁명가들의 80-90%는 고사하고 그 십분의 일인 8-9%만 ≪민생단≫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놓고 회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의장 주변에서는 지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1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우리들에 대한 경위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몇 해째 적들이 소멸하지 못해 애를 쓰는 동만지방의 이름난 혁명가들과 지도핵심들이 다 모여 있다.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1중대 성원들도 거의나 ≪민생단≫이겠는데 그들이 좋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습격하여 일망타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모두가 ≪민생단≫이라는 생억지의 주창자들은 이 물음에도 역시 함구무언이었다.

≪1중대는 원래 당신들이 ≪민생단≫중대라고 선포했던 불우한 중대이다. 우리가 20일 가량 중대에 직접 내려가서 요해해본 데 의하면 중대전원을 ≪민생단≫으로 볼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20일 간의 지도검열과정을 통해 1중대는 모범중대로 되었고 여기서 7중대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하였다.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된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동만유격구들에 사는 조선사람들이나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유격구를 ≪민생단≫의 양성소라고 하고 당, 단조직도 ≪민생단≫조직이라고 하면서 이용국은 ≪민생단≫왕청현당책임자, 김명균은 ≪민생단≫왕청현 조직 및 군사책임자, 이상묵은 ≪민생단≫동만당조직책, 주진은 인민혁명군 1사 ≪민생단≫책임자, 박춘은 인민혁명군 ≪민생단≫참모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동만당이나 왕청현당이나 인민혁명군 1사를 모두 ≪민생단≫조직으로 보아도 되겠는가? 동만당간부들을 ≪민생단≫의 조종자, 지도자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는가?≫

청중은 이 물음에도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성당 파견원으로서 이 투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종합분석하고 평가할 사명을 걸머진 위증민 한 사람만이 당, 단 조직 자체를 ≪민생단≫조직으로 보는 것은 착오이며 부분과 전체는 반드시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하여 장내에 조성된 긴장도를 약간 늦추어놓았다.

나는 동만인민의 대부분을 ≪민생단≫이라고 낙인하는 것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 견해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즉석에서 조아범의 반격을 받았다.

≪당신은 무턱대고 ≪민생단≫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주관이다. 감옥들에는 지금 수백 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이 갇혀 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민생단≫에 들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자기 손으로 자백서까지 쓰고 있는데 그 자백과 자백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 당신은 이런 증거자료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백이나 자백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거자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문장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받아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 가서 자백을 했다는 혐의자들을 수십 명이나 만나보았는데 자기의 자백을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당신들의 그 증거자료보다 사업과 생활을 통해 발휘된 그들이 충실성을 더 믿는다. 솔직히 말해 보라. 당신들이 자백과 자백서를 어떻게 받아냈는지.…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몰아대는 혐의자들의 대다수는 ≪숙반≫의 집행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에 견디지 못해 가짜 자백을 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 아닌 ≪민생단≫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다.≫

이때 조아범이 ≪부뚜이!≫(아니다!)하고 소리쳤다.

그 ≪부뚜이!≫라는 말에 나는 그만 신경이 한껏 팽팽해졌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조아범이 감히 이 자리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아니란 말인가?≫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하고 내리쳤다.

≪간도의 조선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이 직권을 악용하여 사람잡이를 망탕했기 때문이다.

안도유격대 정치위원 김정룡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화룡현당 서기 김일환은 누구 손에 죽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대답해 보라. 길림 시절의 조아범은 포악하지도 않았고 탐위욕도 없는 사람이었다. 김일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분해서 울었다. 그 사람이야 당신의 혁명선배가 아닌가. 당신이 그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죽이기까지 한단 말인가.≫

나는 김일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달프게 조상한 전우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김일환은 우리가 동만지방을 개척할 때 처음으로 쟁취한 혁명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중화와 쌍벽을 이룬 인물이였다. 그와의 첫 상봉이 이루어진 곳이 조아범이네 집이였던지 이청산이네 집이였던지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명월구회의 때 그와 함께 밤을 밝혀가며 허심탄회하게 담화를 나누던 일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첫 담화가 아주 인상이 깊었다. 심한 연령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김일환은 그때 틀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부리지 않고 동등한 자세로 나를 겸손하게 대해 주었다.



화룡현당 서기
김일환

나에게 오중화를 소개한 것이 김준, 채수항인 것처럼 김일환을 소개해 준 것도 길림, 용정 바닥을 쌍둥이같이 붙어다니던 김준, 채수항이네 패거리들이였다.

≪축구를 해서 황소를 탄 사람.≫

김일환에 대한 채수항의 소개는 언제나 이런 말로 시작되곤 하였다. 명월구회의 참가자들에게 김일환을 소개할 때에도 그는 이 광고부터 휘둘렀다. 이름난 운동선수인 채수항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그가 축구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곧잘 삼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재미나는 기준이였다.

채수항의 소개로 하여 김일환은 어쨌든 동만지방의 많은 혁명가들속에서 재능있는 운동선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일환은 노숙하고 경험 많은 정치일군이였다. 그는 오중화와 마찬가지로 간도지방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가정혁명화의 선구자이다. 그의 집안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있는 혁명가들이였고 혁명을 하다가 순국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김일환의 어머니 오옥경은 혁명가들의 시중을 위해 일생을 바친 오랜 공산당원이였고 아내 이계순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진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딸이였다. 동생 김동산은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적의 ≪토벌≫에 희생되었다. 화룡유격대의 김정식이란 사람도 김일환의 4촌이다. 김일환의 처가 편 사람들도 혁명에 한생을 바쳤다. 처남 이지춘은 일찍이 길림시절에 우리를 찾아와서 투쟁방향을 받아 가지고 간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김일환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씨알이 박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공부를 착실하게 한 듬직한 지식분자였다.

화룡에서 김일환과 함께 지하활동을 다년간 해온 김일과 박영순은 그가 사업작풍이 좋고 사업방법이 노숙하며 군중성이 좋다는데 대해서 자주 회상하였다. 김일, 박영순은 다 그의 영향밑에서 당일군으로 자라난 사람들이였다. 그가 구국군공작에 종종 파견된 것은 이런 우점 때문이였다고 생각된다. 그 당시 화룡지방의 구국군들은 누구나 김일환을 존경하고 우대하였다.

한번은 안도에서 이도선부대가 구국군을 ≪토벌≫하느라고 처창즈에 갑작스레 쓸어든 적이 있다. 정안군놈들은 구국군을 찾느라고 마을을 발칵 뒤졌다. 그러다가 김일환이네 집에서 삐라뭉테기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김일환의 어머니가 다른 지방조직에 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중요한 삐라뭉테기였다.

이도선은 공산당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김일환이네 일가족을 모두 붙잡아놓고 심문을 시작하였다. 낯 모를 사람이 맡기고 간 삐라라고 김일환의 어머니가 그럴듯하게 둘러대기는 하였으나 적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도선의 눈은 온통 살기로

무섭게 번뜩거렸다. 김일환일가의 운명에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이웃에 사는 지주가 그들은 공산당이 아니고 알짜 농사군이라는 것을 온갖 감언이설을 다하여 보증해 나섬으로써 이도선을 설득시켰다. 이것도 역시 평시에 김일환이 그 지주와의 사업을 잘한 덕이었다.

김일환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에 대한 비타협성과 드팀없는 혁명적 원칙성이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질로 하여 그는 훗날 ≪민생단≫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게 되었고 종당에는 좌경분자들의 손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권력앞에 아부하지 않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으면서 제 정신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였다. 원칙이 있는 곳에서는 부정이 판을 칠 수 없고 도깨비나 잡귀신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환이네가 살던 마을에는 이억만이라는 당조직책임자가 있었다. 그는 혁명대열 내에 우연히 끼어들어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아편중독자였다. 김일환은 이억만이 직권을 이용하여 숱한 여자들과 치정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하여 동지적으로 충고해 주고 약담배를 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억만이 만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비판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부에 있는 좌경분자들을 사촉하여 김일환에게 ≪민생단≫모자를 씌우고 현당 서기의 자리에서 내쫓는 방법으로 비판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

김일환은 현당 서기직에서 철직을 당한 다음에도 일을 충실하게 하였다. 좌경분자들은 그를 검열하기 위하여 개인자본가가 경영하는 탄광에 노동자공작을 보냈다.

김일환은 자기를 검열하는 기간에 좌경분자들한테서 당하는 고통과 결별하고 가족들과 함께 적구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생단≫혐의를 벗지 못한 채 유격구인민들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대오를 버리고 달아난 도주자라는 치욕을 걸머지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체포되어 죽을 것이오.

나는 일본놈의 주구단체인 ≪민생단≫이 될 수도 없고 또 ≪민생단≫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그러나 나는 혁명가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곳에서 ≪민생단≫으로 몰려 죽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만약 내가 살기를 원하여 적에게 투항하여 변절한다면 혁명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오.

이렇게 되면 혁명을 배반한 나의 죄악은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게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나의 부탁은 온 가족이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는 날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 달라는 그것뿐이오.≫

이것은 김일환이 자기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였을 때 어머니와 아내에게 한 말이다.

1934년 11월에 좌경분자들은 그를 마침내 재판장으로 끌어냈다. 이억만의 악에 받친 논고는 온통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는 반동치고도 아주 지독한 반동이다. 오랫동안 심문했으나 한마디도 불지 않았다.속에 구렝이가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놈들을 그냥 살려두면 우리 혁명이 10년 안팎에 넝마조각처럼 거덜날 수 있다. 살려야겠는가, 죽여야겠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청중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산혁명을 하겠는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있어도 정면에서 그의 무죄를 부르짖는 정의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처창즈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김일환의 무죄를 주장하면 그들 자신도 ≪민생단≫으로 되기 때문

이다.

좌경분자들은 화룡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김일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두고 보아라, 누가 진짜 ≪민생단≫이고 누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인지.… 역사는 반드시 흑백을 갈라 줄 것이다.≫

사형판결을 받은 김일환은 형리들을 쏘아보며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손장상부대의 구국군대원들이 여기저기에서 총을 들고 뛰쳐 일어나 분격을 터뜨렸다. 김일환이를 왜 죽이는가?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고 은인이다. 저런 혁명가가 ≪민생단≫이라면 도대체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김일환은 우리가 보증한다. 총살형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좌경분자들은 구국군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언도를 취소하고 김일환을 석방하였으나 그날 밤중으로 그를 학살하였다.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래 당신들은 정말로 김일환을 ≪민생단≫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민생단≫이 아닌 줄 알면서도 딴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총살하지 않았는가? 김일환과 같은 사람들이 ≪민생단≫이라면 이 간도 땅에서 ≪민생단≫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조아범을 응시하며 목갈린 소리로 이런 주장을 피력했다. 그리고는 어성을 낮추어 연설을 계속했다.

≪동무들, 이제 더는 인간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지 말라.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고 동지들을 동지답게 대하며 민중을 민중답게 대하라. 우리는 인간애와 동지애, 민중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해 일어난 투사들이 아닌가. 이 사랑의 무기가 없다면 우리가 부르주아지들이나 마적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이상 ≪숙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우롱한다면 인민이 영원히 우리를 외면할 것이며 후대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천 명의 열사들의 죽음을 보상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이 무의미한 살육을 중단하고 사랑과 믿음과 단합의 정치로 모든 힘을 항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적들이 던진 ≪민생단≫의 미끼를 뱉아버리고 우리의 대오에서 종파주의, 배타주의, 모험주의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라. 이것만이 지난 몇 해 동안 ≪민생단≫으로 생긴 상처를 가시고 민중을 구원하고 혁명을 구원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유대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우리 두 나라 혁명가들의 진정한 화합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호이해, 계급적 믿음에 기초해야 하며 형제적 우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공동투쟁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이기를 추구하거나 그 이기를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킨다면 그러한 합작은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화합은 믿음과 사랑을 원동력으로 할 때 영원히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다.≫

다홍왜회의에서는 간부문제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논쟁의 발단으로 된 것은 특위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소수민족은 간부로 될 수 없고 다수민족만이 간부로 될 수 있으며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도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있었다. 그들은 조선사람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다수민족을 지도할 수 없으며 더욱이 조선혁명가들은 종파적 습성과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간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만주성당이 동만당지도부의 간부 선발과 배치에서 종래의 조선인 중심주의부터 중국인 중심주의로 전환할 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지령의 요점은 지난날 조선사람들이 민족운동에서도 실패하고 공산주의운동에서도 실패하고 또 동요하거나 반동화되기 쉬운 데다가 언어풍속이 다른 것으

로 하여 ≪소수민족의 혁명기초≫가 공고하지 못하고 ≪소수민족의 영도에 의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성공이 불가능≫하므로 ≪동만에 있어서 조선인의 기초를 중국인의 기초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 지령의 요구에 의하면 동만특위 서기 이하 주요 간부들은 모두 만주성위에서 임명하며 조선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혁명군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으로 될수록 등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였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이 지령이 중국공산당중앙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지령이 하달된 때는 중국당중앙의 지도핵심들이 장개석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2만 5천 리 장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내전의 진통속에서 혁명전쟁의 중하를 걸머지고 간고분투의 길을 걷고 있던 중국당중앙은 자기 조국의 동북변방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변들에 주의를 돌릴 수가 없었다.

만주성당의 조치들 가운데는 왕명과 강생이 주관하고 있던 국제당동양부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그 지령에 준하여 만들어낸 것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성당의 소재지인 하얼빈에서 국제당 동양부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던 이르쿠츠크나 불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것은 정강산이나 연안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그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간부선발배치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 당시 동만의 간부 구성실태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논조였다.

나는 또 논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야 할 숭고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만큼 조중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반일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 부합되게 간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적인 입장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여 간부를 선발 배치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신들도 인정하다시피 조선사람들은 동만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이다. 동만지방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구성을 보아도 압도적 다수는 조선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공동투쟁을 몇 해 동안 해오다가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민족의 지도이니, 다수민족 간부에 의한 소수민족 간부의 교체니 하는 주장들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견지에서 조선민족 우월론을 제창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열등론을 떠들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을 다수민족의 출신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등용시키는 경향은 반드시 시정 퇴치되어야 한다.

국적이나 소속, 인구의 다수가 간부 선발의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수민족이건 다수민족이건 간부의 표징을 갖추었으면 간부로 되는 것이고 갖추지 못했으면 간부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조선혁명가들이 지난날 대부분의 민족주의운동이나 종파에 관계했던 사람들이여서 간부로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 주장을 즉석에서 일축해 버렸다.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혁명가들의 절대 다수는 그 어떤 종파에도 관계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들이다. 우리가 일심전력으로 키워낸 기본계급 출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인민혁명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젊은 세대는 당, 정부, 대중 단체에서도 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날 민족주의운동에 참가했거나 파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다 혁명적으로 개조되었다.≫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반격을 하였다. 그 사람은 ≪민생단≫의 아버지는 종파이고 종파의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의 아버지는 일본제국주의라는 괴이한 주장으로 회의장 안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 주장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난날 민족운동에 참가했거나 파벌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부양을 받는 아들로 된다. 이것은 아무런 이론적 타당성도 없는 궤변으로서 교양개조된 파벌경력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다.

나는 그 궤변에 타격을 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민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꾸준한 개조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과거 경력 중에 민족운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런 사람을 종파의 아버지라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아들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닌가.

원래 민족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애국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을 반동시하는 것은 곧 애국주의를 반동시하는 것으로 된다. 민족주의라고 하여 덮어놓고 이단시하지 말라. 민족주의가 부르주아지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무턱대고 배척할 필요가 없다. 민족주의가 역사의 반동으로 되는 것은 다만 온 민족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뿐이다.

만일 그 누가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창시한 손문선생을 제국주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런 망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면 그 자체가 심한 민족적 편견이다.

조선의 종파분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적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소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파쟁이 마치 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차적인 기질인 것처럼 여기며 조선공산주의자라면 의례 종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 듯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것 역시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종파는 조선공산주의대열 내에만 있은 것이 아니다. 종파는 독일과 쏘련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으며 일본에도 있고 국제당에도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조선사람들만이 종파적 습성을 기질적으로 소유한 민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선공산주의자라는 이름이 왜 종파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조선민족은 과거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실패한 소수민족으로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성공이 불가능하다느니, 혁명투쟁에서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쉬운 민족이라느니 하면서 간부로 쓸 수 없다는 논거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조선인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황된 논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배타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신들은 이미 동만의 군정관계 간부들 중에서 당신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한 전호에서 충실하게 싸워온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수십 수백 명 제거하거나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다.

수많은 지도핵심들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내놓았는데 아직도 더 제거해야겠는가.

당신들이 만일 지금과 같이 조선사람들을 배척하고 학대하는 길로 집요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곁방살이를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폭탄 같은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목구멍으로 침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만큼 회의장의 긴장도 팽팽하였다.

그때 만일 누가 내 말을 반박했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논쟁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간부문제에 대한 토의는 그 이상의 격론을 빚어내지 않았다.

회의가 심화됨에 따라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전은 더 치열해졌다. 회의장에 조선인 간부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만 지켰다.

그러나 그들도 내심으로는 나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좌경의 대리인역을 수행하면서 가슴아픈 흔적을 적지 않게 남긴 송일이조차도 나를 찾아와 누구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해 제꼈다고 하면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위증민과 왕윤성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나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였다. 특히 위증민의 이성적 판단과 공정한 태도는 나에게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었다.

하루 세 끼의 콩죽을 먹으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논쟁을 하다나니 나는 뼈만 남은 몸이 되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밤늦게 숙소를 돌아와 앓다가도 아침이 되면 또 논쟁마당에 나가야 했다. 단독으로 여러 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에게 결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기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간도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위해서 싫건 좋건 논쟁마당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증민

회의에서 토의된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추켜들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다시 말하여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그 구호가 ≪민생단≫이 표방했던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 본질상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가 ≪민생단≫에서 만들어낸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 같으며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도 모순된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간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의 견해와 완전히 상반되는 위험한 견해였다. 만일 이 견해대로 한다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명을 위해서 그들의 시중꾼이나 국제군의 한 구분대의 사명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조선혁명을 한갖 다른 큰 나라 혁명의 부속물로밖에 보지 않는 이런 견해를 용인할 수 없었다.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는 일제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의 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시켜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민생단≫에 쥐어 준 구호이다. 그것이 간도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우리가 내세운 민족해방의 구호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을 광복하며 우리 인민이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내놓은 구호이다.

그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고 하여 자기 조국을 해방하고 자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신성한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기 나라 혁명을 하지 않고 남의 나라의 혁명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이 만주 땅에 주저앉아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여러 해 동안 조선의 민중을 결속시키고 훈련시키겠는가. 일부 사람들은 중국혁명이 승리하면 조선혁명도 저절로 승리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황된 소리이다. 매개 나라 혁명에는 자체의 노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 자체의 역량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웃나라의 혁명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승리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남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도와주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을 내걸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견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요영구회의 장소

프랑스에 가서 활동한 중국공산주의자들에게 그 나라의 공산당원들이 중국혁명의 구호를 들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디에 가서 활동하건 자기 나라 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워야 하며 그것으로 그 나라 혁명도 도와주고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자주적 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다홍왜회의에서 시작된 논쟁은 그 해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도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미결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두 회의의 논점에서 핵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위증민과 공청동만특위 간부인 윤병도를 모스크바에 보냈다.

≪민생단≫ 문제로 하여 파생된 간도지방의 혼란은 일종의 악몽과도 같은 것이였다.

좌경분자들은 무분별한 ≪숙반≫운동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축성해놓은 혁명의 기초를 거의나 허물어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죄다 ≪민생단≫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적들의 문건에는 ≪민생단≫이 겨우 7-8명이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7-8명을 색출해 내려고 ≪숙반≫운동은 2,000여 명의 자기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세의 비극으로서 우매와 무지와 몰상식의 극치였다.

조선과 해외 각지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간도지방에 모여들었던 끌끌한 사람들이 2-3년 사이에 ≪숙반≫의 총 끝에서 다 녹아났다. 그 불우한 수난자들 가운데는 별의별 인재들이 다 있었다. 무슨 재간둥이인들 없었겠는가. ≪숙반≫의 미친 바람은 우리의 항일혁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민족의 자랑스러운 총아들을 사정없이 쓸어갔다.

≪민생단≫의 여파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의 수를 능가한다면 아마 후대들을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항일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적과의 교전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격구들에서는 20-30명의 전사자를 낸 실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20-30명의 혁명가들이 ≪민생단≫이라는 죄명을 쓰고 무리죽음을 당한 날도 많았다. 우리는 그들의 영전에 정중하게 명복을 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하에 가서도 살인자들을 저주하였을 것이다.

≪민생단≫이 해체된 간도 땅에 ≪민생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처형이 두려워서 유격구를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생단≫은 없었다.

주진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박길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박길은 독립운동으로부터 항일구국의 성전에 뛰어든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연해주지방에 가서 공산주의사상으로 자신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성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간도 땅에 달려나와 지하정치공작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였다. 그는 우리가 비밀유격대라고 명명했던 소규모 유격대 시절에 벌써 대중의 신망을 받는 정치지도원으로 되었으며 반일인민유격대가 정식으로 창건된 후에는 연길대대에서 대대정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길

연길지방에서 혁명을 개척한 선구자였던 박길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유능한 정치활동가, 선동가였고 뛰어난 군사지휘관이었다.

그의 일가는 5-6명이나 되는 항일혁명열사들을 배출한 애국적 가정이었다. 박길의 아버지 박중원(별명 호랑이)은 원래 소작살이를 할 때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품삯 대신 새끼소를 어미소로 키워 그것을 원호기금으로 바치면서까지 유격대를 성심성의로 후원하였다.

이런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박길을 ≪민생단≫으로 모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경분자들은 박길이 이전날 독립군이었다는 것과 그의 누이가 강제에 못 이겨 순사의 첩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여자라는 것을 문제시하던 끝에 학살하였다.

김명균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김명균은 왕청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이다. 현당 군사책인 그가 무엇이 탐나서 ≪민생단≫에 들었겠는가. 적들이 작성한 공판문건은 그가 ≪민생단≫ 감옥에 구금되기 전까지 일본인을 사살한 사건이 20여 건, 일만관헌을 습격한 사건이 20여 건, 무기를 탈취한 사건이 8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만일 ≪민생단≫이라면 이런 공적을 세울 수 있겠는가? 유격구를 탈출한 다음에도 훈도가 되어 아이들의 넋속에 민족정기를 부어넣을 수 있겠는가? 적들에게서 총살형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웅걸도? 그도 ≪민생단≫이 아니다. 나는 이웅걸이란 사람을 잘 안다. 우리가 왕청땅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1932년 10월 나를 마중하기 위해 군마 두 필을 끌고 소북구로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민생단≫으로 몰려 죽을 뻔했던 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이다. 젊은 빨치산 대장을 위해 한꺼번에 군마를 두 필이나 끌고 온 이 체통이 큰 사나이의 융숭한 대접에서 나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

이웅걸은 화룡현에서 공청시기로 사업하다가 용정과 서울에서 감옥생활도 해보고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에서 정치위원으로도 공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감수성도 풍부하고 투쟁역사가 깊은 혁명가였다.

나는 이웅걸을 통하여 구당사업을 지도하였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왕청지방의 당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1933년 여름에 이웅걸은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 좌경분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나에게는 ≪민생단≫이 당치 않다!≫는 글을 남기고 유격구를 탈출하여 국내에 나왔다. 부령지방에 활동거점을 잡은 그는 함북, 함남일대에서 애국적인 청장년들을 결속하여 공산주의동맹을 뭇고 군용도로건설반대투쟁, 공출반대투쟁, 징용반대투쟁 등의 반일투쟁을 조직 지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징역 12년이 그에게 떨어진 판결이었다. 일본 법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민생단≫으로 처형되었어야 하겠는가.

다홍왜에서의 논쟁의 의의는 바로 이웅걸과 같은 사람들의 경력에서 ≪민생단≫ 감투를 벗겨준 데 있다. 이 회의의 논쟁과 그 후 국제당이 내린 결론으로 하여 처형된 사람들도 무죄로 판명되었다. 육체적 생명은 회복될 수 없었지만 정치적 생명은 부활되었다. 이 회의의 다른 하나의 의의는 일제의 음험한 모략이 얼마나 간악하고 지독했는가 하는 것과 그에 농락된 자들의 정치적 졸렬성을 고발함으로써 좌경분자들의 정치적 쿠데타에 자갈을 물리고 그 손발을 철저히 얽어맨 데 있다. 그렇다. ≪숙반≫의 좌경화는 곧 높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낮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단행한 정치적 폭행이며 하향식 쿠데타이다.

다홍왜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동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우리의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이 글에서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과거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추억하는 것은 그런 비화를 빚어낸 장본인들을 구태여 만천하에 고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계산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추억은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열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모략과 간계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며 민족배타주의와 좌경분자들의 정치적 졸렬성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후대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확립과 민족의 자주성과 관련된 교훈을 심어주자는데 있다.

나는 반≪민생단≫투쟁과 그 총화로서의 다홍왜회의 과정을 통하여 자주성은 민족의 첫째가는 생명이라는 것과 이 자주성을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는 그 선각자들의 희생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장 깊이 절감하였다.

인간의 첫째가는 속성이 자주성인 것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도 자주성에 있다. 개별적인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민족을 이루는 대집단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은 자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항일혁명을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전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주권의 부활이야말로 조선인민이 수십 년동안 절절히 품어온 일차적 숙망이었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해방투쟁의 총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복종되어야 했다. 우리는 사고와 실천에서 자주성에 대한 옹호를 생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에서나 맹호가 되고 우뢰가 되어야 했다.

자주성이란 그 누가 만들어서 선사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의 누적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백절불굴의 희생적인 투쟁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만이 자주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다른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강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자기네가 자주성을 가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여기면서도 남들이 자주적으로 살려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해하는 인간들도 수두룩하다. 자주성을 저들만이 점유할 수 있는 독점물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오만성이다.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워온 투쟁대열 내부에 있은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의 변덕이었다. 이 변덕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심각한 고민과 좌절을 겪었다. 우리는 좌절에서 돌격에로 이전하기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조선민족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과 맹호가 되어 싸웠다. 다홍왜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깃발을 들고 조선혁명의 주

체노선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인 대사상전이였다.

만일 우리가 인정 사정없는 좌경의 철권앞에서 질겁하였거나 희생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더라면 우리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 좌경의 무한궤도밑에서 혁명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한 것은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강의한 희생정신과 공산주의적 원칙성,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불변의 신념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궤도에서 밀어던지려고 정치적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 자주성을 계속 옹호 고수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민족과 우리 공화국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대결에서도 역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민생단≫투쟁과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나 혁명투쟁에서 모함과 모해가 얼마나 유해로운가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으며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는 혁명을 같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 안았다. 모함, 모해, 파쟁의 해독성과 반동성을 이해하려면 이조 500년사만 돌이켜보아도 충분하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자식사이, 형제사이에도 칼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동화된 인간들의 본성이며 종파의 악습이다.


강영창

해방 후 적들은 일제가 적용했던 ≪민생단≫의 수법을 이용하여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시도하였다. 한때 그들은 위조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백남운, 강영창, 최응석과 같이 당에 충실한 남조선출신 간부들을 모해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그 모해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유격구에서 겪은 반≪민생단≫투쟁 경험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치안대 가담자들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에서 좌경을 범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혁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치안대 가담자들과 그 연루자들의 정치적 운명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새 사회안전부장이 임명될 때마다 매번 우경을 범해서도 안되지만 좌경을 경계하며 ≪민생단≫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곤 한다.

좌경은 정치적 사기군들과 야심가들이 새 형의 ≪민생단≫소동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온상이다. 이 온상의 주인들은 남들보다 10배나 20배쯤 더 높은 목소리로 당을 운운하고 혁명을 운운하고 충실성을 운운한다. 이러한 초혁명성이 지난날 유격구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제멋대로 농락하던 좌경분자들의 소행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우경이 공개적인 반혁명이라면 좌경은 은폐된 반혁명이고 우경이 암이라면 좌경도 그에 못지 않은 독버섯이다. 우경과 좌경은 혁명이라는 하나의 거목 위에 기생하면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동상이몽하는 듯하지만 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좌경을 하면 집단을 해칠 수 있고 집권당이 좌경을 하면 인민을 잃어 혁명을 망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고수할 수 없다. 이것은 반≪민생단≫투쟁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며 좌경의 침해로 하여 막대한 출혈을 당한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뼈아픈 체험이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호소이다.

초당적인 언행으로 가리워진 좌경을 반대하고 경계하며 그 침해로부터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정권을 잡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한시도 놓치지 말고 틀어쥐고 나가야 할 영원한 주제이다.

3. 공청의 산아들

청년사업은 내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바쳐온 중대사의 하나이다. 나의 혁명활동이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길림시절의 생활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나는 길림감옥에 구금되기 전에도 청년학생운동을 하였지만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하활동의 형식으로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국제당일군들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던 1930년 여름부터는 공청 길동지구책임비서로 임명되어 공청사업을 하였다.

물론 왕청시절에도 청년들과의 사업은 나의 군사정치활동에서 주선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유격대의 정치사업을 책임진 지휘관이 군대안의 공청사업을 지도하는 것은 직능에 맞는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동만당지도부와 왕청현당일군들의 요구에 의하여 군대 밖의 공청사업에도 많은 시간을 투하하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는 당, 공청, 아동단을 가리켜 3대동맹이라고 하였는데 이 3대동맹에서 공청은 당 다음 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청을 가리켜 당의 교대자, 당의 후비대 또는 당의 저수지라고 불렀으며 그 사명과 역할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제2의 당이라고도 명명하였다.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 문제들과 그 집행대책을 논의하는 당회의들에는 언제나 공청서기들이 연석으로 참가하였다. 동만당에서는 이런 회의를 가리켜 당단연석회의라고 하였다. 그런 회의들에서 공청서기들은 당원들과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까지 당당하게 행사하였다. 당원들이 없거나 당세가 미약한 고장들에서는 공청열성자들이 주동이 되어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김중권

남북만진출을 끝마치고 간도에 도착한 후 나는 이광별동대공청서기 조동욱, 왕청현공청서기 한재출, 왕청현공청조직부장 김중권 등을 통하여 동만지방공청사업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요해했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공청사업에서는 공청조직건설과 혁명발전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좌우경적 편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청지방 공청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로 제기된 것은 유능한 지도일군의 부족이었다.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이 눈부신 상승기를 걷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처리할 만한 능력 있는 공청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청원들의 대부분은 문맹자거나 국해 정도였고 쌀에 뉘만큼한 사람들만이 중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청년운동을 협소한 유격구역의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청년사업을 노동자, 농민 계층의 청년 본위로 진행하면서 마치도 공청활동은 성분이 좋고 식견

이 높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경향은 불피코 공청건설에서 관문주의를 낳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공청조직의 순결성과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문을 꽁꽁 닫아걸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가면서 공청에 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무턱대고 배척하였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출신이 걸린다고 하면서 따돌렸고 소박한 노농청년들을 무식하다고 외면하였다.

공청에 가입하자면 적어도 ≪사회주의대의≫쯤은 통달해야 했고 ≪공산당선언≫이나 ≪임금노동과 자본≫과 같은 고전들도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했다. 만일 심사과정에 ≪공산당선언≫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산당선언≫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청생활을 해!≫하고 까박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대왕청의 어떤 청년은 소비에트정부에 소를 몰수당한 것이 흠으로 되어 공청가맹을 청원하였다가 부결당하였다. 부림소를 몰수당하는 정도의 집이면 자산가 출신이라는 것이고 소비에트의 수탈대상이 되었으니 가맹 적격자가 못된다는 것이다.


전문진

좌경관문주의자들은 지어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선봉대에서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해온 청년들까지도 공청조직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좌경이 차단봉을 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 맨 지역들에서는 100여 명을 망라한 군중단체 안에 공청원이 고작 3-4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동만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청지방에서는 공청대열을 확대하는데서도 텃세가 셌다. 다른 현에서 아무리 조직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해당 조직이 발급한 이동문건이나 보증서가 없으면 왕청에 와서 공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동녕현성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군벌의 체포소동을 피해 왕청으로 온 전문진도 유격대의 재봉대에서 일을 잘하였지만 이동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적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복을 해준 데 대한 답례 인사를 하려고 재봉대에 찾아간 나는 그가 무슨 일인지 몹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재봉대 출입을 여러 번 하였지만 전문진의 침울한 기색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그와 담화를 하였다. 전문진은 소심한 여자였지만 심중의 고충을 솔직하게 다 말했다. 그는 목적했던 새 고장에 와서 소망대로 유격대에 입대하였지만 공청조직이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외기러기처럼 늘 우울하게 살았다. 그의 고충이 조직문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는 해당 일군들과 의논하여 그가 종전대로 공청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공청조직들에서는 동향, 동창, 친척, 친우 등의 안면 정실관계를 타고 이색분자들과 불순분자들, 동요분자들만이 대열 내에 망탕 끼어들었다. 어떤 공청 일군들은 출신성분만을 절대화하던 나머지 머슴꾼 출신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간첩임무를 받고 유격구에 잠입한 불순분자들까지 공청에 받아들였다. 이런 좌우경의 틈바구니에서 혁명적 세련이 부족한 일부 공청원들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구로 내려갔다.

공청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은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경원시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유격대 내의 공청사업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깃발 아래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유격구의 공청사업에서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청의 지

도일군들이 조선혁명의 실정과 이익에 알맞은 옳은 조직건설노선을 가지지 못하고 고전의 요구를 교조적으로 적용하거나 남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유격구사업을 주관하는 지도일군들이 공청이 범하고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고 청년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와 출로를 열심히 모색하고 있던 1933년 3월 소왕청 마촌에서는 공청일군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왕청지구 공청위원들, 아동국장들, 연길에서 온 청년대표들과 용정학생대표들(지하공작원)을 비롯한 30명 정도의 청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로는 김중권, 박현숙, 조동욱, 박길송, 이성일, 김범수, 최봉송 동무들을 들 수 있다.


박길송

공청일군회의를 회상할 때면 어째서인지 회의 전기간 유달리 영채 도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줄곧 지켜보던 박길송의 눈동자가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내가 박길송의 눈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게 회상하게 되는 것은 훗날 그가 그 영롱한 두 눈의 한 쪽을 관동군부대와의 조우전에서 잃어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북만의 뛰어난 유격대장으로서 최후를 마친 박길송이 1933년 당시에는 특별한 공청직위도 없이 모범공청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회의를 마감짓는 날 현공청 일군들과 대표들은 나에게 연설을 청탁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길림에서도 공청활동을 많이 하고 간도지방에 와서도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라는 간판을 가지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참고할 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견해나 들어보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공청단체들 앞에 나선 과업을 두고 길다란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 중의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조동욱이 자상하게 회고하였다.

동서고금의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들은 예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세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고견들을 내놓았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일치하게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 보았다. 고대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국가의 장래 운명은 청년에 대한 교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유물론 철학가이든 관념론 철학가이든, 동양의 학자이든 서양의 학자이든 미래의 운명으로 되는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그 세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대동소이하게 평가하였다.

청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물론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의 지위를 혁명의 교량자나 후비대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선행 고전가들과 이론가들은 청년들을 전세대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도와 교양을 받으며 보조적으로 혁명을 해 나가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청년들을 보조적인 역량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조선혁명이 걸어온 노정과 실정을 볼 때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 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주장이었다. 80고령에 이른 지금에 와서도 나는 혁명의 전위로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전세

대에만 의거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들의 뒤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낡은 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민족의 선봉에 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 전반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3.1인민봉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선봉결사대로 나섰고 6.10만세시위운동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때에도 주력으로 등장하여 애국적인 구호들을 고창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도 그 주체는 청년학생들이었다.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볐으며 총검을 박차고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朝鮮日報

號外

광주학생운동(위)과 그 보도가 실린 호외(아래)

나의 청춘시절이 공청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 권들에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은 나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우리는 그 나이에 연대도 이끌고 사단도 지휘하고 군도 영솔하였다. 한때 우리 인민들속에는 나를 백발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던 당시의 나의 나이는 34살도 못되었다.

유격전쟁은 옛날의 군사들처럼 서로 대치되어 영채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장수들이 필마단창으로 접전하거나 높은 성벽에 의지하여 화살을 날리는 그런 구식싸움도 아니며 발달된 군수기재를 이용하여 전화나 무선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신식싸움도 아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50-70대의 노장군들도 능히 전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격전쟁에서는 전사나 지휘관이나 할 것 없이 동빙한설의 쓴맛을 다같이 맛보아야 한다.

지휘관들도 때로는 기관총을 잡아야 하며 정황이 요구하면 총창을 꼬나들고 백병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건실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항일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었다. 양정우는 32살

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장으로 되었고 진한장은 27살부터 제3방면군 군장으로 활동하였다. 오중흡이 연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29살의 꽃나이였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청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청년세대를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만 평가하겠는가.

나의 이런 견해와 입장은 그날의 연설과 담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을 추진시키는 주력 중에서 기간적인 역량으로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사회개조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의 전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사업이다.

그런데 공청조직이 문을 딱 닫아걸고 청년군중을 등지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어떤 공청조직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우수한 청년들을 대열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관문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관순이 나이가 많아서 3.1이 낳은 영웅으로 민족사에 남아 있겠는가. 남이 장군도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자기들을 가리켜 대장부라 하겠는가고 하였다.

나이를 문제시하면서 10대의 열혈청년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청조직을 청년조직으로가 아니라 장년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10년이나 20년쯤 도를 닦고 성인현자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공청이라면 그것이 무슨 청년들의 조직이겠는가.≫

다음으로 대표들의 흥미를 끈 것이 공청일군들이 엄수해야 할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이 항목에 들어가서도 많은 말을 하였다.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 세우자면 공청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공청원이 총 5발을 쏘았는데 적을 한 놈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자. 유격대에서는 탄알 한 알에 원쑤 한 놈이라는 구호가 통용되고 있는데 5발 쏘아서 한 놈도 잡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가령 이런 결함을 범한 공청원에게 해당 조직에서 비판을 주고 조직문제를 보았다면 이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선 과오를 범했다면 여러 각도에서 요해해야 한다. 측면으로도 요해하고 후면으로도 요해해야 한다. 무기성능이 좋지 못한가? 조성, 조문이 틀리지 않았는가? 총탁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살그머니 당기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방아쇠를 당길 때 숨조절을 잘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생리적 약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아야 한다. 근시인가? 원시인가? 아니면 난시인가? 그리고 대담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비겁한 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여러 모로 따져보고 문제를 취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사상이 나쁘다고 보고 사상투쟁만 하면 안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결함에 대해서는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판하되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폭로하는 식으로 욕설하고 모욕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날 회의에서 공청대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선전선동 교양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상호비판,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는 문제, 아동단을 공청후비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과거 애국청년들의 투쟁에서 그 우수한 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청사업의 전반 분야를 포괄하여 연설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청지도일군들이 항상 군중속에서 살며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후 공청지도일군들의 일본새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관료주의와 관문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에 얽매여 있던 공청조직들은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되어 청년대중속에 깊이 침투했다.

어느 날 나는 김중권을 만나려고 공청현위를 찾아갔다. 그런데 현위에는 통신원 한 동무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모두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구와 지부 조직들에 내려갔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범수

종전까지는 현 공청일군들이 동맹원들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지부서기, 구서기들을 불러다가 일거리를 맡기고 받아내는 식으로 안일하게 사업을 하였다. 현 공청은 어디서 수말이 새끼를 낳았다고 하여도 믿을 정도로 하부실정에 깜깜하였다. 그러면서도 회의를 열고 사상전을 한바탕씩하고는 만세를 불렀다. 공청단체들은 회의와 비판이며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런 재래식 사업방법이 공청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어느덧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공청일군들은 유격대와 지방의 지부조직들에 내려가서 공청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었다. 현위 사무실에서 말공부와 문서놀음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이 아래에 내려가 맹원들도 만나보고 소조모임이나 지부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공청서기들을 도와 사업계획도 세워 주었다. 현위 사무실에 공청간부들이 모이는 것은 회의가 있는 날뿐이었다.

공청열성자들의 대오에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임기응변하는 능숙한 수완가들과 작풍이 좋고 지도방법이 원만한 세련된 일군들도 적지 않았다.

연길현에서 8도공청 조직부장으로 사업한 김범수는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유능한 공청지도일군들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김범수가 소학교를 다닐 때 그의 어머니는 외아들이 글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그를 학교에 업고 다녔다.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운 아들이 총각꼴이 잡히기 바쁘게 장가도 일찍 보냈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까봐 그가 장가를 간 다음에도 문밖출입을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나 김범수는 문밖출입을 못하는 대신 자기 집 뒷고방을 회합장소로 정하고 울바자밑에 사람들이 드나들 만한 개구멍을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 청년들을 뻔질나게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아들이 나들이도 가지 않고 신랑구실을 ≪착실하게≫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지만 아들은 밤마다 뒷고방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느라고 새색시의 얼굴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그 뒷고방에서 김범수는 수십 명의 열성 공청원들을 육성해냈다.

현공청서기는 주로 유격대공청조직에 들어가서 청년사업을 지도하였으며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은 유격구공청조직과 적구공청조직들과의 연계밑에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현공청서기는 필요에 따라 유격대원들과 함께 전투작전에도 직접 참가하면서 대중을 지도하였다.

마촌작전 때의 일이다. 마촌 앞덕에 배치된 중대 공청지부는 현공청서기의 참석하에 비상회의를 열었다. 결전을 눈앞에 둔 공청원들은 저마다 불같은 맹세를 토하였다.

≪공청원의 심장으로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을 끝까지 지키자!≫

공청원들의 총구에서는 복수의 명중탄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적들은 이 전투에서만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성과 나자구를 들이칠 때에도 공청서기는 빨치산대오의 앞장에 서 있었다.

나는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다음에도 공청지도일군들을 자주 만나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그 당시 내가 공청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은 청년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낙관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군사교육을 강화하여 공청 지도일군들과 공청원들속에서 군중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들이었다.

우리는 공청조직들이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상의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낯을 돌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공청조직은 학술단체도 아니고 계몽단체도 아니며 구락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 청년대중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는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직들의 활동은 언제나 현행 정치실천, 군사실천, 경제실천에 복종되어야 했다. 그래야 매개 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강력한 발동기로 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유격구의 인민들과 청년들속에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얼굴을 잘 돌리지 않는 편향들이 존재하였다. 유격구에서의 경제문제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말한다. 지금 식대로 표현하면 식의주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유격구인민들이 소비하는 식량의 대부분은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 식량으로 충당하였다. 유격구의 척박한 경작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으로는 한 해 농량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군대를 쳐다보곤 하였다. 이런 과정에 적지 않은 일군들과 유격구주민들속에서는 유격구주민들속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의존심이 생겼다. 절량기가 닥쳐오면 으레 군대가 또 적들을 답새기고 식량을 빼앗아다가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 농사차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1934년 봄 다홍왜에 가서 3중대동무들과 함께 5.1절을 쇠었다. 중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을 겸하여 영농준비 정형도 요해하였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이 고장사람들은 춘경기가 다되었는데도 씨붙임준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셈판인가. 놀란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나와 동행했던 현공청서기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태해질 수 있는가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요영구의 비밀아지트에서 현공청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춘기파종을 위한 청년들의 과업을 협의하였다. 1932년 가을에 추수대를 조직하여 중간지대 농경지들의 가을걷이를 보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생산돌격대가 조직되어 간도전역의 유격구들에서 봄씨붙임을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다. 이 돌격대에는 공청열성자들을 비롯한 유격구의 핵심청년들이 다 망라되었다. 그들은 보탑을 쥐고 밭갈이만 한 것이 아니라 종곡을 마련하고 농쟁기를 준비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파손된 연장들은 야장간에서 청년들이 달라붙어 집체적으로 수리하였다. 부림소가 모자라는 지역들에서는 곡괭이나 삽으로 뚜져서라도 씨붙임을 일매지게 다하였다.

1934년의 춘기파종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 돌격대의 활동을 통하여 유격구들에서는 공청의 위신이 쑥 올라가고 청년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당조직들은 공청이 바라고 설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 주었으며 공청 지도일군들이 청년사업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농민협회,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조직들도 공청사업을 각방으로 후원해 주었다.

유격구 인민들이 공청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1934년 9월의 9청데이기념일 행사과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9청데이란 국제무산청년절이라는 뜻이다.

전세계 무산청년들은 1915년에 1차로 이날을 기념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9청데이 행사를 하였다. 이 기념행사는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였다.

왕청사람들은 1934년 9청데이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적구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부락단위로 되는 참관단들을 초청하는 한편 행사를 당일 참관단 접대에 소비하게 될 입쌀, 밀가루, 고기 등의 후방물자들을 구입해 들였다. 어떤 후방일군들은 차까지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 유격대는 적들을 치고 명절준비에 필요한 일용필수품들을 노획해왔다.

요영구광장에는 솔문을 해 세우고 광장 변두리에는 유격대의 전과를 반영한 연속화들을 그려 붙였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는 격동적인 구호들도 써 붙였다. 그 당시 5중대에서는 그림을 기막히게 그리는 재간둥이가 한 명 있었다. 쏘련에서 살다가 나온 동무였는데 서예솜씨도 놀랄 만하였다. 그는 광장 주변에 인민혁명군의 업적을 보여 주는 전투약도까지 내다 붙였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하였다.

우리는 정부청사를 통째로 내어 손님들이 들 숙소를 꾸리고 거기에도 참관단원들이 감상할 수 있는 선전화를 붙였다.

9청데이를 앞두고 계관라자, 영벽라자, 천교령, 전각루 등 유격구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대표들을 선출하여 요영구로 파견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성문밖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적구대표들은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오지 못하고 한 사람씩 낫을 들거나 광주리를 이고 전야작업에 나가는 차림새로 유격구행을 하였다.

행사 당일이 되자 유격구청년들은 인민들과 함께 북삼차구에서 노획한 비단과 세루로 만든 옷을 쭉쭉 뽑아 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었다. 현 공청일군들도 새 양복들을 쑥 빼고 광장에 나타나 행사를 주관하였다. 주름을 세운 군복을 입고 대오를 지어 정연하게 행사장에 들어서는 유격대원들의 늠름한 모습은 적구대표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이날의 개회선언은 연길폭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참관단원들은 ≪꽝≫하는 폭탄소리를 신호로 하여 수십 폭의 붉은 깃발들이 광장에 나부끼고 구호소리, 박수소리, 북소리가 장내를 진감하는 광경을 보면서 다같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9청데이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각계 대표들은 공청의 업적을 찬양하고 반일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 당시는 이런 연설을 감상발표라고 하였다. 우리는 행사 끝에 적구 참관단원들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가졌다. 현당과 현공청일군들의 요청으로 나는 이 환영모임에서 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적극 방조할 데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답사를 하려고 적구에서 온 대표 한 사람이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감격에 목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방에 대고 연방 절만 하였다.

9청데이행사에 참가한 적구대표들은 나의 연설까지 듣고나서 저저마다 입대를 청원하였다. 모두가 유격대에 들어가겠다고 간청하므로 오히려 설복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우리는 가정사정과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대표들만 혁명군에 받아들였다.

그날의 환영공연에서 이채를 띤 것은 5중대가 준비한 연예종목들이었다. 노흑산지하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한 유격대원이 연해주에 가 있을 때 배웠다는 러시아춤은 참말로 장관이었다.

참관단원들이 유격구를 떠날 때 우리는 적구인민들의 몫으로 따로 남겨놓았던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지워 보냈다.


김택만

내가 여기에서 1934년의 9청데이행사를 이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그 행사가 유격구시절의 청년들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인상 깊은 명절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국제적인 성격의 기념일들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국제당, 국제공청, 국제노조, 국제농조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들과 연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적인 중앙이 있었던 것처럼 만국의 공청들에도 낌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제적 중앙이 있었다. 낌은 국제공산주의 청년조직의 약칭이다. 우리가 하얼빈에 가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조직도 국제공청 산하의 조직이었고 우리에게 모스크바유학을 주선한 단체도 국제당청년부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던 국제공청조직이었다.

공청의 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속에서는 민족해방투쟁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한 훌륭한 혁명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13연발≫, 강차위(김봉욱), 박길송, 황정해, 김택만, 김충진, 주춘일, 이신순, 김범수, 이동화, 이순희, 박호준 등 무수한 항일영웅들은 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공청의 산아들이다. 공청이 낳은 이름있는 영웅들 가운데는 빨치산지휘관도 있고 지하공작원도 있고 교육자도 있다.


황정해

요영구 비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모임에서는 적구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겸하여 토의하였다.

적구에서는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공청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의 그릇된 시책으로 하여 적통치구역에서의 공청활동은 홀시되었다. 이런 실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청모임은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적군들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는 것은 구호와 대동소이한 말이었다.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것은 원쑤의 심장부에 우리의 조직체들을 튼튼히 꾸려나가자는 사상이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공청간부들이 적구공작의 어려운 임무를 맡고 동만지방과 조선 국내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동만특별구위원회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박길송도 나자구에 파견되었다. 그는 유능한 공청 열성자들과 함께 조직들을 늘려갔으며 청년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켰다. 수많은 소년 계절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 간도 굴지의 나자구 양주소에도 그가 박아넣은 공작선이 넝쿨을 깊숙이 뻗쳤다.

나자구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최광도 공청조직의 지시로 이 양주소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다.

유가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이 양주소에서는 해마다 2-5월 사이와 9-10월 사이에 계절노동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품삯을 적게 주고도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소년노동자들만 채용하였다. 공장주는 소년노동자들에게 성인 일노임의 절반도 안되는 30전의 돈을 주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술을 주었다. 30전이면 술 한 병 값밖에 되지 않았다. 이 한 병의 술을 벌려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퇴근 후에는 노임 대신 받아 가지고 나온 술을 팔려고 시내를 온밤 돌아다니곤 하였다.

최광은 공청조직의 지도밑에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로 소년노동자들을 궐기시켰다. 양주소에 입직한 후 아동단조직에 받아들여 10여 명의 동료들을 동원하여 파업을 호소하는 선동활동을 벌였다. 그 자신도 바로크식으로 되어있는 식당의 문들마다 보초를 세우고 선동연설을 하였다. 조직생활을 해보지 못한 소년들을 파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느라고 그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래도 최광은 인내성 있게 설복하고 또 설복하였다. ≪술 한 병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모두가 단결해서 일한 것만큼 돈을 받아내자. 힘만 합치면 공장주를 굴복시킬 수 있다!≫


최광

그의 호소에 따라 소년노동자들은 3일 동안이나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떼울까봐 공장으로 나가던 소년공들도 그의 해설을 듣고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파업대열에 합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치는 파업을 통하여 소년노동자들은 공장주를 굴복시키고 하루임금을 30전으로부터 40전으로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나자구공청위원으로 사업하던 박호준은 뛰어난 조직적 수완과 능란한 군중공작으로 적구 공청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나자구 양주소의 소년노동자들은 반일조직에 묶어 세우고 파업투쟁이 승리하도록 배후에서 지도한 인물은 다름아닌 박호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작 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를 체포하자 금시 나자구일대의 비밀조직을 다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쾌재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써도 박호준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어느 날 놈들은 반주검이 된 그를 회유해 보려고 이렇게 구슬렸다.

≪너는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청년이다. 나이가 아깝다. 너를 믿고 홀로 사는 너의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은가.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너는 많은 상금을 받고 호강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되지도 않을 혁명에 대한 공상을 말고 살길을 찾는게 어떤가.≫

그러자 박호준은 쓴 웃음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

≪공청조직과 간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받아쓰시오. 나를 지도한 간부의 성은 ≪공≫가요, 이름은 ≪산당≫이요.≫

적들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적다가 놀라는 것을 보고 박호준은 벽을 짚고 일어나 그들을 조롱하였다.

≪나를 키워 준 그 위대한 간부의 이름을 너희들이 수첩에 적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공산당은 내 원쑤를 갚아 줄 것이다.≫

박준호는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저고리 앞자락을 활짝 헤치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공청원의 불굴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 보라. 그가 어떻게나 떳떳

이 걸어갔던지 적군 사병들조차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한 애연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손에 슬그머니 담배를 쥐어 주기까지 했다. 처녀들은 그의 발밑에 꽃묶음들을 내던졌다.

항일혁명이 키워낸 공청의 첫 세대들은 이렇게 신의를 지켜 싸웠고 깨끗이 죽을 줄도 알았다.

그때 공청대열에서 교양육성된 공청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조직과 혁명의 이익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이순희

공청원 임춘익도 바로 그런 투사였다.

공청 연길현 8구 남선특별지부 서기였던 그는 일찌이 지하 공청단체를 조직한 유능한 정치공작원이였으나 그 단체를 지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도 역시 야수적인 고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임춘익은 다른 동지들이 한 비밀공작까지도 다 자기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덕으로 체포되었던 동지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그는 18살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아름답고 고상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조직과 동지들을 살려내고 홀로 형장에 나선 18살 공청원의 고결한 인품앞에서는 적들도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공청원 이순희도 항일혁명이 낳은 불굴의 투사이다. 내가 이순희를 처음으로 만나본 것은 1934년초 겨울이였다고 생각된다. 그때 나는 적들의 ≪토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아동단학교에 갔다가 이순희를 보게 되였다. 연길에서 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그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다.

내가 아이들속에 싸여 아동단학교 마당에 서 있을 때 이순희가 급히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눈매가 시원하게 생긴 그는 시냇가의 물망초처럼 청초한 기운을 풍기는 처녀였다.

학교마당에서는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좋아라 매달리는 아이들속에는 홑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거나 맨짚신에 몽당치마를 두른 애들이 많았다. ≪토벌≫을 당할 때 불속에서 뛰쳐나왔는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도 보였다. 적통치구역에서 부모를 잃고 찾아들어 온 아동단원들은 거의나 헐벗은 몸들이었다.

나는 화상을 입은 한 어린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아동단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새까만 눈동자들이 그 무슨 간절한 기원을 담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몹시 아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어이 너희들을 고아로 만든 왜놈들을 쳐 없애야겠다고 속다짐하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애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였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서 무럭무럭 커서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거라.≫

아이들은 금시 밝아진 얼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소리를 모아 기운

차게 대답하고 나서 좋아라고 떠들어댔으나 아동국장 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장군님, 용서해 주십시오. 공청조직은 저에게 아동국장의 책임을 맡겨 주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순희는 내앞에서 죄를 진 사람처럼 민망해 하였다.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짙은 회오의 빛이 어려 있었다.

헐벗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어찌 이순희에게 있겠는가. 사실상 이순희는 아이들의 옷을 꿰매 주고 신발을 손질하고 공책들을 매주느라고 밤에도 눈을 붙일 새가 없었다.

내가 이순희와의 첫 상봉에서 받은 강한 인상은 자기 사업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잘못과 불상사들의 원인을 늘 주관에서 찾는 그 혁명가적인 자아반성의 태도였다.

나는 며칠 후 아동단원들을 위해 일부러 전투를 조직하였다. 노획한 전리품을 가지고 아동단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솜이불과 새 옷 그리고 신발, 학습장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유격대원들이 피를 바쳐서 마련한 어린이들의 새 옷에 볼을 비비며 울고 있던 이순희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순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어느 날인가 아동단유희대를 무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장군님! 솜이불과 새 옷을 보내주신 장군님의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하겠다고 아이들과 연예대를 무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날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준 종목 중의 하나가 구연이였다.

나어린 소녀가 새 옷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내가 입은 이 새 옷은 유격대 언니, 오빠들이 피를 바쳐 구해 준 옷이다 하고 허두를 떼고 화상을 입은 자기의 자그마한 손을 내보였다.

≪장군님께서는 왜놈의 ≪토벌≫에 상처입은 이 손을 어루만지시며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셨어요.

유격대 오빠, 언니들!

우리들은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기뻐해 주세요. 기운을 내 주세요.

장군님 말씀대로 나도 어서 무럭무럭 커서 공청원 오빠, 언니들처럼 총잡고 왜놈과 싸우겠어요.…≫

소녀의 구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무르익은 풍년 이삭에서 근실한 농민의 구슬땀을 보듯이 우리는 그 무대에서 어린이들에게 바친 이순희의 심혈을 읽었다.

어느 날 이순희는 나를 찾아와서 느닷없이 자기를 적구공작에 보내 달라고 제기하였다.

아동사업에 심혈을 쏟아왔고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던 그가 갑작스레 그런 제기를 하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희는 그 후 공청조직에 거듭 제기하여 마침내 박길송과 함께 나자구로 파견되었다.

삼면이 험준한 산으로 첩첩히 둘러싸여 있는 나자구의 만첩청산과 비옥한 전야에는 항일혈전의 발자취와 함께 적구공작의 길을 걸어간 용감한 공청원들의 붉은

넋이 어려 있다.

나는 여기서 이순희의 적구공작과정을 누누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그의 정신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순희는 그때 나자구에서 조금 떨어진 초막을 근거지로 삼고 공작하였다. 찬바람이 스며들고 빗물이 새는 어설픈 그 초막에서 봄을 맞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았다. 그 기간에 나자구에서는 공청조직이 늘어나고 아동당조직이 자라났다. 원쑤들의 아성에 강유력한 혁명의 포대가 쌓아진 것이다.

이순희는 이 포대를 쌓느라고 변장한 몸으로 군경들의 총검과 밀정들의 감시가 무시로 뒤따르는 위험천만한 적구를 주야불식으로 수없이 누비며 다녔다.

그러나 그는 이봉문이라는 고약한 밀정 놈에게 뒤를 밟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나자구의 지하조직을 들춰내려고 순희를 음침한 철창속에 가둬 놓고 가혹하게 고문하였다. 지하조직의 운명은 이순희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나자구에 깔려 있는 조직망들이 다 들장이 나고 애써 쌓아 올린 혁명의 포대가 일조에 무너질 수 있었다.

놈들은 거짓 약속과 감언이설로 처녀의 심장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순희에게 알아낸 비밀은 오직 하나, 그가 공청원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아마도 순희는 철장속에 들어가서 공청원이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던 것 같았다.

고문을 주관하던 나자구헌병대대장은 악에 치받쳐 마침내 순희를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형 전날 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병대장이 이순희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꾀어보려고 졸개들을 이끌고 이순희를 찾아갔을 때였다.

그때 순희는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록 땀에 절고 피로 얼룩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나마 단정히 입고 사형장에 나가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헌병대장을 개처럼 따라다니던 이봉문이란 자가 처녀의 곁에 다가가서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다, 꽃다운 네 나이가 아깝고 불쌍해서 그러니 나자구에 있는 지하조직원의 이름을 한 사람만이라도 외워 바쳐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고 하였다. 처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피에 엉킨 머리를 비다듬고 찢어진 저고리품에 손을 가져가더니 조그마한 회색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순간 이봉문은 사색이 되어 감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른 교형리들도 아우성을 치며 그를 따라나갔다. 이봉문은 순희가 꺼낸 회색주머니를 수류탄과 같은 무슨 폭발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발물이 아니라 흙주머니였다. 그 앙증스러운 주머니는 순희 아버지가 유격근거지에서 전사할 때 딸에게 물려준 것이다.

≪놀라지들 말거라! 이것은 내 나라의 흙을 담은 주머니다. 더러운 그 목숨이 무얼 그리 귀중해서 줄행랑을 놓느냐!≫

조국의 흙을 품에 안고 철장속에서 광복의 그날을 그려본 공청원 이순희와 변절자 이봉문의 인격적 대조를 ≪봉황새와 까마귀≫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무리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봉문과 같은 배신자가 그 흙주머니의 가치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튿날 이순희는 사형장에서 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쳤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부른≪공청가≫를 아래에 소개하고 싶다.

새 세상 동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우리는 무산청년 모두 앞서가자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 나가자
우리는 무산청년이니 무산청년답게
우리는 근로대중의 청년전위대

나는 언제인가 이순희와 함께 아동단학교에서 풍금을 타며 이 노래를 불렀다. ≪공청가≫는 공청원들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들과 아동단원들, 부녀회원들까지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그것은 그 노래속에 새 사회에 대한 근로대중의 한결같은 동경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새 세상을 앞당기려는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였다. 수많은 공청원들이 이순희처럼 단두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 ≪공청가≫는 원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였다. 러시아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나 가사와 선율속에 흐르는 사상감정은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온 세계 청년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에젠 포치에의 ≪인터내셔널≫이 많은 나라 당들의 당가로 되었던 것처럼 ≪공청가≫역시 국제적인 청년가로 널리 애창되었다.

이순희와 같은 열녀를 배출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정치적 생명에 빛을 주고 날개를 달아 준 공청조직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존재가 없고 조직적 단련이라는 성장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순희와 같이 앳된 처녀가 교형리들앞에서 그처럼 용감해질 수 있으며 그처럼 도도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최후의 순간을 떳떳하게 장식할 수 있었겠는가.



조선화 ≪청춘의 위훈≫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조직은 영웅을 낳는 집이며 대학이라고 말한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1명의 공청원이나 사로청원은 100명, 1,000명의 적도 타승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다. 우리 인민이 일당백의 인민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인민이기 때문이며 우리 인민군대가 일당백, 일당천의 군대로 되는 것은 그들이 다같이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연마해가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조동욱

오늘날의 청년들은 사로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투사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자라나고 있다. 항일전쟁 당시의 공청조직이 직업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학교였다면 지금의 사로청조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위부대를 육성해내는 기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항일혁명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주공을 담당하고 있다. 사로청은 우리 당이 가장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직한 주력부대로 되고 있다. 이 주력부대가 진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위훈이 창조되고 기적이 나래친다. 서해갑문, 북부철길, 광복거리, 5.1경기장, 망경대, 학생소년궁전, 태권도전당 등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로 되고 있는 위대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는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노동당 시대의 청년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 우리 인민이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사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시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속에서는 만민의 찬탄을 자아내는 공산주의적 미거들이 끝없이 발양되고 있다. 한번 죽으면 두 번 다시 받아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남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고 있다. 일생을 영예군인의 손발이 되어 줄 것을 결심하고 그들의 아내가 된 처녀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꼽아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사로청원들속에는 미혼의 몸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준 고마운 처녀도 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정든 수도를 서슴없이 떠나 전야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자진하여 탄원해가고 있다. 진실을 말하건대 나는 이런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싶은 심정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청년운동을 위해 바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고를 더듬어보며 그 운동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해가고 있는 사로청을 생각하곤 한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속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미담들이 연이어 태어나 만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은 사로청의 공적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청년들의 대부대, 그것은 사실상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것이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 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 것이다.

유격구 해산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또다시 적구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안도, 돈화, 무송, 장백, 임강 등지에 사람들을 보내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를 꾸리고 적구에서의 지하청년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요길변이란 요녕, 길림, 간도의 변경지대를 말한다. 우리는 또한 지하청년조직을 무산, 갑산, 풍산,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에 일차적으로 꾸리고 나아가서 평양, 서울, 부산을 비롯한 조선의 중부일대와 남부지대에까지 확대할 원대한 구상을 세웠

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왕청현 공청서기 조동욱도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 서기의 책임을 지니고 적구로 들어갔다.

조동욱도 공청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5.30폭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길림성 제3감옥이라고 부르던 하얼빈감옥에서 1년 이상의 옥중생활까지 하였다. 감옥에서 중어공부도 하고 공청에도 들었다는데 중학교 졸업생치고는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학구욕이 강하였다. 조동욱은 공청 영안현위의 위임을 받고 구국군부대에 파견되어 공청사업을 하다가 40여 명에 달하는 무장인원을 이끌고 1932년 9월경에 왕청으로 나왔다.

내가 조동욱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그 해 가을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는 그를 이광 별동대의 공청간사로 임명하고 영안에서 나온 무장인원들을 그 별동대에 배속시킨 다음 대원들을 북만에 파견하여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조동욱의 의붓아버지 장기섭은 ≪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불리우던 성실한 당원이었다.

조동욱은 나와 오의성과의 담판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왕윤성과 함께 담판 중의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준 사람이다. 이 담판이 있은 후 나는 그와 왕윤성을 나자구시내에 있는 반일부대연합판사처에 파견하였다.

조동욱과 왕윤성은 각지의 반일부대들에서 파견되어온 연락군관들과 결의형제를 뭇고 중하층 장교들과 병사대중속에 공산당지부와 공청지부까지 조직하였다.

반일부대 연합판사처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조동욱의 정치활동 솜씨는 더 세련되였다. 그가 적구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발을 붙인 곳은 안도현 양강구였다. 그는 자그마한 상점을 하나 차려놓고 ≪장사≫질을 하면서 상점에 드나드는 위만군들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하여 15명의 중하층 장교와 병사들로 결의형제를 뭇고 1개 중대를 완전히 전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1개 중대는 조동욱의 조종에 따라 병변을 일으키고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조동욱은 산중에 웅거해 있는 병변군인들과 유격대와의 연계를 지어 주려고 처창즈로 찾아갔다. 그런데 좌경분자들은 그를 ≪민생단≫ 혐의자로 보면서 구속하려고 하였다.

훗날 조동욱은 그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

≪그때 동만특위의 좌경분자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문초했습니다. 송일이 ≪민생단≫이니 너도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증거를 내놓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탈출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에게 밥을 날라다주던 **김정숙**동무도 그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숙동무는 여비로 쓰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양강구에 돌아온 다음 어머니를 데리고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 후 조선의 여러 지역에 나가 청년사업을 계속하였다.

김진의 넋이 이수복에 의해 이어지고 이수복의 넋이 김광철, 한영철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공청의 명맥은 민청에 의해 이어지고 민청의 명맥은 사로청에 의해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어 할아버지네 세대들이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금 사로청대열에는 **김정일**조직비서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백만맹원들이 집결되어 있다. 21세기의 우리의 조국은 그들의 힘에 의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4. 사도구참변에 대한 대답



노흑산의 용사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는 사업을 지도하느라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자구 지하조직에서는 요영구에 연락원을 파견하여 나에게 사도구참변에 대한 상보를 전해 주었다. 연락원이 가져온 통신문건에는 문영장 부대가 노흑산지방에 있는 정안군을 끌어들여 사도구부락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부락민 전부를 살해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적혀 있었다.

통보는 믿을 만한 것이였지만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문영장이 우리와의 언약을 무시하고 정안군을 대학살에로 유도하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영장과 우리부대 사이에는 오늘날의 공수동맹 비슷한 것이 맺어져 있었다. 우리가 문영장과 손을 잡은 것은 나자구전투 직후였다.

하루는 적구지하조직에서 나자구로 가는 위만군부대의 우마차수송대가 백초구를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는 계관라자부근에서 매복전을 하였다. 위만군호송병들은 변변히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전원 포로되였다. 포로들 중에는 문영장의 수하에서 복무하는 첼가 성을 가진 중대장도 있었다. 그 중대장은 혁명군에 붙잡힌 몸이라는 강박관념은 조금도 없이 마치 응당 겪어야 할 일을 당한 사람처럼 태평스러운 얼굴로 히물히물 웃기만 하였다.

≪당신은 장교인데 왜 저항도 하지 않고 투항하였소?≫

나는 그 괴짜에게 질문을 하였다.

≪여기야 ≪고려홍군≫ 활동구역인데 저항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싸워도 이기지 못할 바에야 손을 드는 게 상책이지요.≫

그도 영안지방의 사람들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을 ≪고려홍군≫이라고 불렀다.

≪게다가 ≪고려홍군≫이 포로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건 온 만주가 다 알고 있는 거구요.≫

빈농가의 자식인 철중대장은 만주국군대의 봉급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장가갈 밑천이라도 마련해보려고 총을 멘 사람이었다. 세상물정에 너무나 어둡다고 흠을 잡는 동무들도 있었지만 교양만 잘하면 위만군장교라는 간판과 관계없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었다. 우리가 포로들과의 담화를 끝내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철중대장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대장 나리, 이 우마차들에 싣고 온 물건 가운데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돈과 총만은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병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아마 문영장이 우리를 총살할 것입니다.≫

나는 우마차에 실린 물자 전량과 함께 포로들을 고스란히 나자구로 돌려보냈다. 우리 동무들은 ≪친구들, 우린 탄알값도 못하고 잠만 밑졌소.≫하는 농까지 해가며 그들을 바래주었다.

철중대장은 이효석중대장을 보고 ≪친구, 센가리(무우를 썰어서 말린 것)가마니에 총을 몇 방만 쏴주게.≫하면서 탄알 상자 한 개를 통째로 내주었다. 우리의 대범한 처분에 감심했던 모양이었다. 이효석이 탄알상자를 받지 않고 마차에 실어주자 호송병들은 자기네끼리 센기리가마니에 총을 몇 방 갈겼다. 그런 다음 장탄했던 총알들을 모조리 뽑아 손수건에 싸서 풀밭에 내던지고 덜렁덜렁 달아나 버렸다.

이 일로 하여 철중대장은 문영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되었다. 문영장은 수송대를 파견할 때마다 그의 중대를 따라보내곤 하였다. 다른 중대들을 보내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데 철중대장만은 한 번도 털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곤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수송대들은 다치면서도 그 수송대만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군수물자를 실으러 갈 때마다 부하들을 보내 아무아무 날 몇 시에 자기네 수송대가 어느어느 지점들을 통과하는데 수송대의 표적은 어떠어떠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곤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문영장도 철중대장이 인민혁명군의 보호와 관심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철중대장은 문영장을 만나 ≪우리 중대가 나자구에 와서 인민혁명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영(대대)이 **김**대장네 부대와 공수동맹을 맺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슬쩍 제기하였다. 문영장은 처음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는 시늉을 해보였으나 나중에는 본심대로 아주 훌륭한 보신책이라고 하면서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해 나섰다. 이 사실이 철중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위만군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동맹을 맺는데 동의한다는 우리의 의사가 문영장한테 전달되었다. 회담도 없고 서명날인도 없는 파격적인 ≪신사협정≫이었다.

우리 부대와 문영장부대와의 공수동맹은 쌍방이 서로 협동하여 공격도 같이 하고 방어도 같이 하는 동맹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떠나 두 군사집단이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고 친선적으로 지내는 동맹이라는 전이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동맹은 양측의 이익을 존중시하고 상호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큰 곡절이 없이 좋게 유지되어 왔다. 우리가 불가침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자 문영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혁명군에 많은 양의 탄약과 식량, 피복을 보내 주었다. 지어 그들은 일본군의 움직임과 관련한 중요한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동맹의 화평관계를 보더라도 문영장이 정안군의 사도구≪토벌≫을 유도했다는 소식은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철 중대장에게 연락원을 보내 진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연락원의 보고에 의해 사도구참변도 사실이고 문영장의 배신행위도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영장이 일본상전의 압력을 받고 공수동맹을 파기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철 중대장이 알려왔다.

우리는 문영장의 배신과 그가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도구참변에 응당한 대답을 주어야 했다. 복수전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지휘부에 날아왔다. 지휘관들도 사도구인민들의 핏값을 받아내자고 대원들을 선동하였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혁명군이 즐겨 사용하던 격언이였다.

나는 대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노흑산의 정안군 부대나 나자구의 위만군 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고 마을마다에 박혀 있는 지하조직들의 활동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다. 나자구는 유격구를 떠난 왕청, 훈춘 지방의 해산군중이 가서 살게 될 소개지이기도 했다.

우리는 정안군부대와 문영장부대를 동시에 치기로 결심하고 부족되는 역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길 1연대와 처창즈에 가 있는 독립연대를 왕청으로 소환하였다. 독립연대는 그때 한 끼에 빵을 한 개씩 먹으면서 5일 가량 강행군을 하여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당수하자의 산제부락까지 왔다. 독립연대의 연대급간부들은 연대장 윤창범이하 대부분 ≪민생단≫으로 몰려 죽고 참모장이 중대들을 인솔해 가지고 왔는데 지휘관들을 잃은 그들의 사기는 여지없이 저락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때 독립연대의 일부와 연길 1연대의 일부, 왕청 3연대의 일부 역량으로 전각루전투를 조직하였다. 토성속에 깊숙이 들이박혀 오만가지 악행을 다하는 위만군과 자위단 무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나자구로 가는 통로를 개척할 수 없었다.

전각루전투를 끝낸 혁명군 무력은 나자구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출진기지로 내정되어 있는 사도구와 삼도구, 태평구 방향으로 백일행군으로 강행하였다. 죽을 먹으면서 200여 리를 행군 하였으나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았다.

사도구는 원래 이태경과 같은 독립군 출신의 노병들과 의병 출신 선각자들이 ≪이상촌≫으로 개척한 고장이었다. 사도하자 또는 상방자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을 후에는 우리가 이광과 함께 혁명촌으로 개조하였다. 우리는 이태경노인을 내세워 이 마을에 반일회도 뭇고 농민협회도 내오고 혁명호제회도 조직하였다. 우리가 사도구에 자주 다니다나니 당시 나자구와 그 주변부락 사람들은 그곳을 ≪공산당사령부≫라고도 불렀다. 인민혁명군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우대와 애정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혁명군이 왔다는 말만 들으면 신짝도 걸치지 않고 맨발바람으로 뛰어나오곤 하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앞에서 나는 한두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사도구마을 가까이에 있는 삼도하자도 우리의 물을 많이 먹은 유명한 혁명촌이였다. 삼도하자부락의 서쪽 산기슭에는 중국사람들이 경영하는 양조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주보중과 함께 이 양조장에 가서 지하혁명조직의 간부들과 인민들을 자주 만나보았다.

사도구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옛정은 이 고장을 적시는 수분하의 흐름처럼 연연하였건만 마을은 불타 버려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진토속에 묻혔다. 고개 너머 이태경 노인의 8칸 집도 다 타버리고 주춧돌만 남았다. 그것은 우리가 한 해 전에 나자구 진공전투를 앞두고 주보중을 비롯한 구국군 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했던 집이었다.

노인은 이 집터 근처에 학교를 세우고 후대교육에 열중하고 있었다. 참변의 총소리, 아우성소리가 아직 귓전에 쟁쟁한 그때 그는 강심을 먹고 교육운동을 위해 궐기한 것이다. 노인은 사도구참변에서 요행 살아남은 독립군 친지의 아들을 집에 숨겨두고 있었다. 청년은 그날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도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산상에서 정안군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사도구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나자구시내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공청원 서일남에 대한 부당한 심문이었다. 그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민생단≫으로 몰리다가 체포되어 사도구혁명조직 책임자로부터 억울한 심문을 당하였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민생단≫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서일남을 체포한 사람들은 일단 그를 석방하고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서일남은 집에 돌아가자 ≪민생단≫도 아닌 애매한 사람을 ≪민생단≫으로 몰아 고문한다고 불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에서는 다시금 그를 체포하여 ≪민생단≫으로 처형하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를 학대하고 고문한 인간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사도구지하혁명조직가 관련된 비밀을 불어 버렸다.

서일남이 제공한 비밀을 당시 나자구에 와서 설명절 준비를 하고 있던 정안군 부대의 살인마들을 흥분시켰다. 100여명에 달하는 ≪토벌≫군은 1935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사도구마을을 감쪽같이 포위하고 중기, 경기의 일제사력으로 마을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눕혔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화염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림없이 총창으로 찔러 불속에 던져 넣었다.



을미사변
(민비의 장례식)

적들은 1시간밖에 안되는 사이에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삼도하자의 백호장이 사건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거기서는 참변을 요행 모면한 8명의 조선족 어린이들이 시쳇더미속에서 울고 있었다.

백호장은 근처의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의논하였다.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1명씩 데려다 기르기로 하였다. 백호장 자신도 고아1명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참화를 면한 3명의 사도구청년들은 우리부대에 입대하였다.

우리들은 이 참변의 전말을 듣고 모두 다 이를 갈았다. 화근의 동기로 된 것은 물론 서일남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대한 인간들의 좌경망동적 행위임에 틀림없었으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사도구 마을을 피바다로 만든 정안군의 살인백정들에게 일차작인 저주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구대학살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종과 사촉에 의해서만 감행될 수 있는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의 극치였다. 남의 나라 왕궁 안에 뛰어들어 그 나라의 왕비를 서슴없이 살해하고 그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시체마저 불태우는 그런 무지막지한 강도의 후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을미사변(1895)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금치 못하였다. 왕궁 안에서 살해되어 시체마저 건질 수 없었다던 그 왕비가 바로 우리 나라의 마지막 왕 순종을 낳은 명성왕후 민비였다. 조선의 국정을 한 손아귀에 거머쥐고 있던 민비가 친러파의 수괴가 되어 일본세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자 이에 당황망조한 일본의 통치자들은 조선주재 자국 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까지 포함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습격하게 하였다.

일본도로 민비를 난도질한 미우라의 하수인들은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체를 화장하고 남은 그의 유물까지도 못속에 집어 던졌다.

원래 조선사람들은 민비를 그다지 숭상하지 않았다. 개국으로 나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왕가의 며느리로서 외부세력과 결탁하

여 시아버지인 대원군을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낸데 대해서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원군이 둘러친 쇄국의 울바자가 20년이나 30년만 더 유지되였어도 우리 나라가 남들의 식민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민비에 대해 국민들이 품고 있었던 고까운 심정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민비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고 왕비는 왕비인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일원이 였고 왕가의 주인이였으며 고종을 대변하여 국정을 다스린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 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국민의식이 강하고 존왕정신이 강하며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조선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할리 만무하였다.


단발령과 반대통문

거기다가 단발령까지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민족감정은 분화구를 헤치고 크게 폭발하였다. 우리 인민은 의병항쟁으로써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시행에 대답하였다.

간도대 ≪토벌≫의 해로 알려진 경신년에도 일본군대는 만주지방에서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그것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당한 대참변의 수치를 재만조선족 비군사인원들에 대한 살육으로 씻어보려는 전례 없는 살인광증의 폭발이였다. 시베리아출병을 끝내고 남하하는 일본군과 나남을 떠나 만주지방으로 북상하던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락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청장년들을 끌어내다가 무더기로 학살하였다. 민비시해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체들은 석유를 치고 화장해 버렸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를 없애치우자는 수작이였다.

1923년의 간도대진재는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과 함께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인공적인 재난도 기록하고 있다. 대진재를 조선인 탄압의 호기회로 삼은 깡패들은 도처에서 일본도와 참대창으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들은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서도 조선족들을 정확히 식별해 내려고 겉만 보고 잘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고엔 고주고센≫이라는 말을 번져보게 하였다. ≪고엔 고주고센≫이란 ≪5원 55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유창하게 번지지 못하는 주민들은 예외없이 조선사람으로 인정되고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재난의 첫 18일 동안에만도 우리 민족은 6,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과녁으로 하여 저질렀던 죄악의 일부이며 살육과 약탈로 얼룩진 일본근대사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역사의 일부가 사도구라는 자그마한 부락에서 재현된 것이다.

≪마을에는 지하조직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도 무경각했습니까?≫

나는 분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이태경노인에게 물었다. 사실 그것은 부질없는 질문이었다. 경각성이 있은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상비적인 유격대무력이 없는 이 부락에서 보초를 세울 수야 없지 않는가. 설사 보초를 세웠다고 해도 숱한 무장인원이 새벽 어둠을 타고 은밀히 기어드는데 다른 수가 있는가.

≪장군님, 우리가 너무 허리띠를 풀어놓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늙다리들에게 죄가 많습니다. 혁명군의 보호밑에서 늘 편안하게 살아오다나니 우리가 망국민이라는 것도 잊고 독립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고 있은 것 같습니다. 사도구마을의 어떤 영감들 중에는 간디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태경노인은 어그러지는 말이라도 꺼낸 사람처럼 어줍게 웃었다.

나는 놀랐다. 이 산골에 간디의 숭배자가 다 있다니?!

≪노인님, 그 노인은 어떻게 되어 간디를 숭배하게 됐습니까?≫

≪조선서 건너온 어떤 신사멋쟁이가 영감에게 간디를 소개해 준 모양입니다. 우리 나라 신문에 실린 간디의 편지까지 보여 주었다지 않겠습니까. 그 후부터 영감이 마실방에만 나타나면 폭력이 어떻고 비폭력이 어떻고 하면서 무혈독립론을 염불처럼 외웠습니다.≫

나도 길림 시절에 ≪조선일보≫지상에서 간디의 편지를 읽고 박소심과 함께 무저항주의를 논평한 적이 있었다. 그 편지의 원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들의 편지를 받았나이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사바르마티에서

엠. 케이. 간디



간도대학살사건

편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간디는 조선사람들에게 무저항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아마 간디의 사고방식에 매력을 느낀 어떤 무저항주의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았다.

길림의 교포청년들속에서는 간디의 사상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 같은 것으로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독립을 선사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환상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간디의 사고방식은 무력항쟁을 포기하였거나 독립운동의 길에서 탈락한 일부 민족운동자들에게서 일정한 공명과 지지를 받았다.

영국의 지배를 저주롭게 여기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국인도 해칠 생각 없다고 하였고 영국정부의 조직적인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조직화된 비폭력이라고 언명한 간디의 사상이 광범한 인도인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의 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인도의 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설사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아시아와 구라파의 서로 다른 강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던 조선과 인도가 같은 처방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었다. 인도는 인도이고 조선은 조선이였다.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이 가장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나자구지구에 무혈독립군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영감이 죽는 순간에야 무혈독립론이 허황하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놈들은 피맛을 보구 싶어 자꾸만 갈개는데 당치도 않게 무혈이라니 ≫

이태경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노인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강도들하고는 무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

≪장군님, 조선사람 목숨이 너무도 헐값입니다. 우리 백의민족이 언제까지나 이

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탁입니다. 사도구사람들의 핏값을 받아주십시오. 그 원쑤만 갚아 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고 편안히 죽겠습니다.≫

노인은 나를 바래주면서도 복수를 해 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노인님의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구인민들의 핏값을 받아내지 못하고 돌아오면 이 집 마당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시오.≫

살인마들의 머리 위에 철추를 내리려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 우리는 나자구진공의 길로 오랐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해치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는 선린관계를 맺고 친선적으로 지내왔다. 상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도 상대를 치고 상대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면 우리도 상대에게 미소를 보냈다.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는 것이 내가 일생을 통해 고수해오고 있는 상호성의 원칙이다.

지난날 조선의 무능한 봉건정부는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남조선 통치배들이 미군의 위법행위앞에서 법을 발동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마구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가해자들을 조선의 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법으로만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구역에서는 그런 치외법권이 허용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조선민족과 조선의 강토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법이 있었다. 사도구참변을 도발한 살인자들은 그 법앞에서 무사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단오날을 계기로 서산포대부터 점령하고 일거에 나자구시내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훈춘연대의 도착으로 하여 작전역량은 증강되었다.

혁명군의 종대들이 나자구 쪽으로 계속 행군해가고 있을 때 시내에 정찰을 갔던 왕청연대의 대원들이 철중대장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철중대장이 나를 갑자기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문영장의 동향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영장님은 인민혁명군이 나자구를 포위공격한다는 정보를 받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안군이 쓸어와서 사도구의 위치를 대 달라고 하기에 부하를 시켜 위치를 대주게 하였는데 그런 변이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왜놈들 압력에 못이겨 사도구에 정안군을 안내한 것이고 부하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할 때 그것을 제지시키지 못한 것밖에 없다, 아무렴 **김**대장과의 약속을 의식적으로 줴버렸겠는가고 하면서 제발 용서를 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철 중대장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문영장이 사병들의 약탈행위를 엄단하지 못한 것과 정안군의 길 안내를 해 주도록 한 것은 분명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일본 상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괴뢰군 부대의 장교가 한 짓이니 그 죄는 대범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다.

만약 문영장을 쳐 없앤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우리와의 공수동맹은 완전한 결렬에 이를 것이고 나자구에는 문영장 부대와는 대비도 할 수 악질적인 부대가 새롭게 파견되어 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않건 적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일대에 왕청, 훈춘 지방의 유격구 주민들을 소개시키려던 우리의 노력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나자구지구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략적 지탱점으로 계속 고수하려는 우리의 의도도 엄혹한 도전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문영장을 징벌하지 않고 우리 편에 더 바싹 끌어당기기로 결심하였다. 그 대

신 노흑산 일대의 정안군을 답새겨 인민을 해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주려고 하였다. 동녕현 일대에 파견되었던 정찰병들의 보고에 의하면 노흑산 왕보만이라는 곳에 증강된 정안군 1개 중대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구를 초토화한 살인광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정찰병들은 이 중대가 악명 높은 요시자끼부대에 소속된 1개 파견대라는 것까지 탐문해왔다.

나는 철 중대장에게 우리의 결심을 말해 주었다.

≪인민혁명군은 나자구진공계획을 보류한다. 문영장이 우리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문영장은 공수동맹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하여 왔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 맹약이 사실이라면 우선 단오날 인민혁명군이 나자구시내에서 군민연환운동회를 할 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돌아가서 영장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라. 우리는 여기서 회답을 기다리겠다.≫


로흑산전투가 진행된 산골짜기

철 중대장은 군영에 돌아가자 문영장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통지해왔다.

우리의 연대들은 전투대형으로부터 명절놀이대형으로 재빨리 이행하였다. 나자구진공의 설계를 담당했던 작전의 능수들은 군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는 체육종목들을 설정하고 군민일치의 위력을 시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수단 구성을 위해 바쁘게 돌아갔다. 적이 주둔하고 있는 성시 한복판에서 혁명군 ≪토벌≫의 사명을 띠고 있는 적군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황리에 진행된 전쟁사상 유례를 모르는 나자구 군민연환운동회는 이렇게 마련되었다.

이날은 지하에 숨어 있던 공작원들까지 다 떨쳐나와 운동회를 구경하였다. 문영장부대의 사병들도 이 희한한 명절놀이에 넋을 잃었다. 사도구참변을 계기로 저락되었던 인민들의 기세는 단오놀이와 함께 다시금 고조되었다. 군민연환운동회는 그 소속과 명칭에 관계없이 인민을 건드리지 않는 군대와는 언제든지 우호적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과 의지를 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하였다. 우리는 태평구에서 중대정치지도원급 이상의 군정간부들이 참가하는 지휘관회의를 열고 노흑산전투 계획을 면밀히 작성한 다음 사도구참변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성대히 하였다. 그 추도식은 혁명군 장병들의 복수심을 격발시키는 하나의 좋은 연단으로 되었다.

우리가 노흑산에서 ≪홍수툴≫을 요정낸 것이 아마 1935년 6월 중순경이라고 생각된다. ≪홍수툴≫이란 만주지방인민들이 정안군놈들에게 달아준 별명이다. 소매에 붉은 완장을 끼고 다니는 그들의 허식적인 차림새가 그런 별명을 만들어내게 한 동기로 된 것 같다.

그때 우리 대원들은 왕보만에서 적들을 아주 교묘하게 끌어냈다. 노흑산의 왕보만에 주둔하고 있는 정안군은 제1차 북만원정 때에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부대였고 사도구참변을 일으킨 독종들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정안군에 싸움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후각이 예민한 정안군은 우리 부대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던지 좀처럼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사람들을 통하여 정안군놈들이 겨울에만 유격대 ≪토

벌≫을 하고 여름에는 될수록 혁명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산림대나 토비 같은 것만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적들이 볼 수 있게 일부러 대낮에 부대를 나자구로 철수시켰다. 놈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데로 철수한 것으로 믿게 하려는 계책에서였다. 그리고는 그날 밤으로 은밀히 정안군이 주둔하고 있는 왕보만근처의 수림속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매복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중국말을 아는 대원 10여 명을 산림대로 가장시켜 왕보만으로 내려보냈다. 마을에 내려간 우리 대원들은 주민들의 하늘소도 빼앗고 가재도구도 차 굴리고 남새밭의 울짱도 뽑아 던지면서 한바탕 야료를 부리는 척하다가 부대로 돌아왔다.


노획한 적의 박격포

그러나 첫날은 어떻게 된 셈판인지 정안군놈들이 그 수에 걸려들지 않았다. 우리는 불편한 대로 매복지점에서 마른 음식으로 대충 저녁을 굼때고 모기들의 성화를 받으면서 지루하게 하룻밤을 보냈다. 이관린이 장철호와 함께 백두산을 개척할 때 모기들의 성화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마에 쑥타래를 둘러감고 감자밭을 맸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흑산 깔따구의 드살이 또한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볼과 뒷덜미를 철썩철썩 때리면서 이 노흑산이라는데서는 깔따구조차도 ≪홍수톱≫을 닮아서 독침으로 사람을 찌른다고 푸념을 하였다.

다음날에서 유인조동무들은 왕보만부락에 내려가서 산림대 행세를 하고 돌아왔다. 좀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닭을 두세 마리 잡아 가지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사리는 척했더니 그제서야 정안군이 무리를 지어 유인조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날은 주민들이 산림대가 또 왔다갔다고 굉장히 아부재기를 친 모양이었다.

사실상 정안군놈들은 유격대의 전법에 정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대가 수송대는 어떻게 치고 성시습격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놈들을 속인다는 것은 참새 목에 굴레를 씌우는 것만치나 힘든 일이었다. 우리 유인조동무들이 확실히 산림대 망나니들의 연기를 빈틈없이 수행한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전투와 관련된 일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두 번째 날 매복지점에서 피곤에 못 이겨 졸고 있을 때 김택근의 부인이 나를 흔들어 깨워 주던 일이다. 그 여자는 내가 십리평 골짜기에서 열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간호병의 구실을 하느라고 남편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였다. 말하자면 부관 노릇을 한 셈이었다. 그때 택근의 처가 넙적하게 생긴 풀을 뜯어 가지고 와서 먹음직하게 생겼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내가 보니 취였다. 곰이 많은 고장에서 나는 취이므로 나는 그 풀에 ≪곰취≫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했다. 해방 후에는 대흥단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곰취를 먹어보았다.

혁명군의 매복진으로 기여든 적들은 ≪이런 곳에서 포위에 들면 재미없겠는데.≫하면서 불안스럽게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적들이 산골짜기에 다 들어섰을 때 전투개시를 알리는 신호총을 쏘았다. 일본지도관을 겨냥하여 한 방 갈겼는데 단번에 꺼꾸러졌다. 적은 저항도 못하고 순식간에 괴멸되었다. 유격대의 선동가들은 적들이 지형지물에 의지하여 저항을 꾀하기 전에 중국말로 함화공작을 들이댔다. ≪일제를 타도하라!≫, ≪총을 바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함화에 적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순순히 무장을 바쳤다. 노흑산전투는 우리가 진행한 최초의 대표적인 유

인매복전이었다. 이때부터 일본군경과 위만군은 우리의 전법을 ≪라와전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노흑산전투에서 ≪천하무적≫을 자랑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던 정안군을 100여 명이나 쏴 제꼈다. 중기, 경기, 보총, 수류탄, 군마를 비롯한 많은 전리품들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 전리품들 중에는 박격포도 있었다. 적들은 말안장에 그 포를 싣고 거들먹거렸으나 한 방도 쏴보지 못한 채 우리에게 빼앗겼다. 내가 조택주노인에게 주었던 백마도 바로 이 전투에서 노획한 10여 마리의 우량종 군마들 중 한 마리었다.



노획한
적의 기관총

우리는 이 전투에서 여러 마리의 군견도 노획하였다. 그때 우리 지휘관들은 그 군견들 중 몇 마리를 나의 호신용으로 쓰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세파트들을 모두 태평구와 석두하자 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다. 노획한 군견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홍왜회의 때 동무들이 나의 호신용으로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개를 한 마리 끌어온 적이 있었다. 아주 영악하고 영리한 개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전우들의 성의는 고마웠으나 나는 일본사람들이 길들인 개인데 빨치산대장에게 정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나다를까 훗날 적 ≪토벌대≫와의 싸움이 붙었을 때 그 개는 일본놈의 냄새를 맡고 적진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나는 백마의 덕은 많이 보았지만 전리품 군견의 덕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항일전쟁사에서 유인매복전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흑산전투의 전과정은 유인매복전이야말로 유격전의 특성에 부합되는 가장 능률적인 전투형식의 하나라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는 훗날 몽강 땅에서 구도의 부대를 소탕하였고 장백, 임강 일대에서는 요시자끼 자신이 이끄는 정예부대를 타승하였으며 최후 결전의 시기에는 정안군의 1사를 와해 괴멸시키는 연전연승의 통쾌한 기록을 남겼다.

노흑산전투는 고정된 지역에서 유격구방위에 주력을 돌리던 인민혁명군이 협소한 해방지구의 울타리를 터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대부대활동의 위력을 처음으로 시위한 전투였다. 노흑산골짜기를 진감시킨 아군의 총성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데 대한 요영구회의의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찬가였으며 제2차 북만원정의 승리를 예고해 주는 종소리었다. 노흑산에서의 승리로 하여 인민혁명군은 2차 북만원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

인민혁명군의 승전 소식은 전광석화와도 같은 속도로 만주대지에 전파되어 정안군의 압제밑에서 고통받던 조중 양국의 노동대중에게 신심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해 주었다. 노획한 말들에 전리품을 처싣고 태평구로 돌아올 때 그 고장 인민들은 도로 양옆에 장사진을 치고서 우리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삼도구의 이태경도 우리가 휴식하고 있는 신툰자마을로 달려왔다. 진창과 화소포 사람

들도 위문품들을 가지고 인민혁명군을 찾아왔다.

나는 2차 북만원정 전야에 훈춘유격대가 보내온 정보에 따라 대황구에 있는 1개 중대의 위만군을 돌려세우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그때 나에게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훈춘유격대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던 황정해였다. 그의 아버지 황병길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할 때 그 거사에 적극 참여했던 이름난 애국열사였다.

황정해는 대황구의 위만군중대에는 연공사상을 가진 중사가 1명 있는데 그가 지금 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는 중대 전체를 돌려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부 대원들만 데리고 유격대로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 잘만하면 중대 전체를 돌려세울 것 같은데 나의 조언을 바란다고 하였다.

대황구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중대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1개 중대의 위만군은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뻗치고 서서 이모저모로 유격대의 활동을 구속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우리는 중대장이 중국사람이라는 것과 중대에서 통역으로 복무하는 조선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병변공작에서 주인공역을 담당한 인물은 바로 황정해를 비롯한 우리 공작원들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던 그 중사였다. 중사는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도 아니었고 공산당원도 아니었다. 그저 대련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군대에 징모된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가 속한 ≪토벌대≫는 원래 열하에 있었다. ≪토벌대≫가 간도로 활동무대로 바꾸게 되자 그도 자동적으로 훈춘에 와서 복무하게 되었다.

열하에 있을 때부터 간도에 공산당이 와글와글하다는 선전을 많이 들어온 중사는 훈춘에 와서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어는 공산당과 손을 잡고 자기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까지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중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빌어먹을 것, 공산당과 싸움을 해서는 뭘 해, 차라리 이놈 새끼들을 한 놈 쏘아 죽이고 넘어가고 말아야지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음식점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온 황정해는 이 사실을 곧 지휘관들에게 보고하였다. 중사는 곧 우리가 쟁취해야 할 사업대상이 되었다.

바로 이 무렵에 훈춘시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우리 동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동무는 조선사람이었지만 중국말을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경찰이 그를 비끄러매 가지고 차고 때리고 고함을 치면서 야단법석을 할 때 시가지를 지나가던 그 노동자 출신 위만군중사가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동무를 가로챘다. 이 자식아, 공산당이면 공산당이지 너나 이 사람이나 다 압박받는 처지인데 사람을 이렇게 치는 법이 있는가고 하면서 경찰놈을 후려갈기고 쫓아버린 다음 자기네 병영으로 우리 대원을 데려갔다.

중사는 우리 동무에게 말했다.

≪당신을 당장 놓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하고 같이 우리 병영으로 가야겠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면 우리 부대에 가 하룻밤 자면서 우리 중대장한테랑 공산군의 형편을 좀 말해 주라. 우리는 그것을 몹시 알고 싶다. 우리 중대에는 일본놈지도관이 하나 있고 통역을 하는 조선놈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놈이 다 나쁜 놈이다. 요 두 놈은 수를 써서 시가지로 보낼테니까 마음을 놓으라.≫

우리 동무는 중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권


간도의 조선인 정착촌

고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좀 얼떠름했지만 이래도 죽도 저래도 죽을 바에는 영예롭게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만군병영으로 따라갔다.

중사는 병영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친구인 중대장한테 우리 동무를 데리고 갔다. 세사람이 차탁을 가운데 두고 밀담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일본지도관이 중대부로 쑥 들어와서 우리 동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중사는 지도관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중대장을 향해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술값 받으러 왔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야단났다, 중대장, 술값을 대줄 테니 그건 걱정 말라, 당신의 친구이면 내 친구나 같은데 잘 대접해야지 그저 보낼 수야 없지 않는가. 여기서 차나 마시면서 천천히 회포를 나누다가 헤어지라고 하였다.

일본지도관이 시가지로 내려간 다음 세사람은 밀담을 계속 하였다.

중사의 간청으로 우리 동무는 공산당 선전을 들이댔다. 유격대는 조선사람도 있고 중국사람도 있는 조중연합군이다, 나는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들도 일본놈의 만주강점을 반대한다, 당신네 위만군에도 애국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위만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선전하고 중국말로 위만군에 대한 노래를 몇 가지 불러 주었다.

우리 동무의 선전에 감화된 위만군 중대장은 당신은 내일 돌아가서 상관에게 보고하라, 우리는 유격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설사 우리 부대가 ≪토벌≫을 간다 해도 수림근방에다 대고 암호로 총을 몇 방 쏠 테니까 당신네는 다른 데로 피하라고 하였다.



황정해

중사는 중사대로 우리 동무를 바래주면서 나는 앞으로 당신과 연계를 가지고 싶다, 당신도 나와 연계를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당신네 정치위원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그 줄을 잡아쥐게 되었고 그 줄을 움직이면서 병변공작을 심화시켰다. 나는 황정해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어 대황구로 돌려보냈다. 황정해는 그 중사와 다시금 연계를 맺고 위만군중대를 통째로 병변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였다. 중사는 황정해를 보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노릇을 해먹는다. 사람으로 태어나 남의 괴뢰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당신네가 부럽다. 중대를 다 데리고 공산군 편으로 넘어갈 각오가 돼 있으니 우리를 습격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위만군의 병영 근처에 2개 중대인가 3개 중대의 역량을 파견하였다. 그 중대들이 병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위만군사병들이 조기체조를 하고 있을 때 위협사격을 하면서 함화를 들이댔다. 위만군측에서는 대표를 보내 담판을 요구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대련내기 중사였다. 중사는 교전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우리의 대표앞에 병변결의를 표명하였다. 그 결의대로 150여 명에 달하는 위만군 장병들은 일본교관과 조선인 통역을 제껴버린 다음 시가지에 있는 적들의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서 말수레에 싣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 유격구역으로 들어왔다.

이 중대를 인민혁명군에 어떻게 편입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훈춘연대의 지휘관들은 한동안 토론을 많이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중대를 해체하여 인민혁명군의 새 중대들에 배치하자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중대를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편입시키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안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해체해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었다.

연대지휘부는 이 안을 가지고 반변해 온 중대의 지휘관들과 담판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위만군 지휘관들은 자기네 중대를 해체하는데 좀처럼 동의하지 않았다. 훈춘연대의 정치위원 최봉호는 결론을 바란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는 위만군 사병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속에 들어가서 담화를 하였다. 해체를 반대하는 위만군측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해체설로 하여 사병들은 몹시 뒤숭숭해 하고 있었다. 포로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반변하여 넘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이 중대, 저 중대에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예절에도 어그러지는 처사였다. 가장 합리적인 안은 위만군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중대를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편입시키되 그것을 인민혁명군의 실정에 맞게 3개의 중대로 나눈다는 것과 각 중대의 지휘관은 병변군인들의 전대회의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선거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토의에 붙였다. 위만군측에서는 그 절충안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 후국충연대장과 최봉호정치위원도 그 안을 지지하였다.

병변공작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중사도 중대장으로 되었다. 그전 중대장은 쏘련에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

나는 위만군 중대의 병변군인들 가운데서 중국관내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쏘련을 거쳐 관내로 보내고 남아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훈춘유격대에 편입시켜 데리고 다니다가 북만에 가서 이연록의 부대에 넘겨주었다.

적들은 나자구, 태평구 방면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를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 철도경호대 등의 대무력을 동원하였다. ≪토벌≫군의 주력은 나자구 방면에서 태평구를 압박하였고 일부는 요영구와 백초구 일대에 전개되어 인민혁명군이 서남방향으로 퇴각할 경우 이 일대의 협소한 지역에서 완전히 포위섬멸할 작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1935년 6월 20일 적들은 마침내 태평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태평구 뒷산에 부대들을 전개시키고 박격포중대 가까이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지휘처 아래에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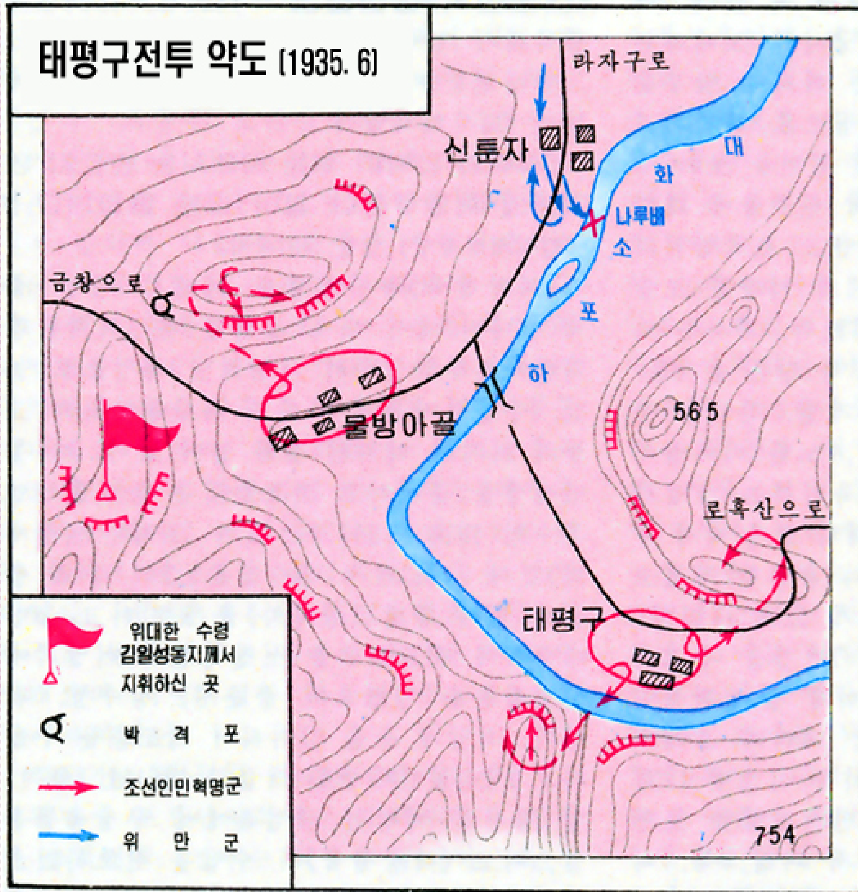
적들은 배를 타고 대화소포강을 도하하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의 박격포중대가 포문을 열었다. 배 한 척이 강복판에서 박살이 났다. 혼비백산한 적들은 대화소포강 도하를 단념하고 자기들의 진지로 황망히 달아나 버렸다. 그 박격포의 포수들이 대단했다. 위만군을 병변시키고 그 일부 역량으로 포중대를 따로 내온 보람이 있었다. 위만군의 전투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회의론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실책을 뉘우쳤다.

나는 포중대장을 얼싸안고 전투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위만군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미덥지 않게 여기던 혁명군의 일부 지휘관들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포좌지로 뛰어왔다. 대화소포강에서 울린 인민혁명군의 포성은 우리 나라 포무력의 탄생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이었다. 적들은 그 포성앞에서 전율하였고 인민은 그 포성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포병절로 기념하고 있다.


대화소포강

대화소포강을 도하하려다가 우리의 박격포 공격에 넋을 잃고 나자구로 달아난 문영장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민혁명군이다. 어제



포를 노획해 가지고 오늘은 단 두 방에 명중시키는 귀신같은 재간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인민혁명군과 맞서는 것은 머저리들이나 할 짓이다. 이제는 내 목에 일본도가 날아들어도 **김일성**부대와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철 중대장이 보낸 정보이다.

노흑산과 태평구에서 연이어 전승의 개가를 올린 인민혁명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도처에서 생기발랄하게 움직였다. 나자구 반일회장은 인민혁명군이 노흑산에서 정안군을 녹여낸 다음부터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촌정부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와 결혼등록도 하고 출생신고까지 한다고 자랑하였다.

인민을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흑산이 태평구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 의지를 다시금 실천으로 힘있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민을 건드리는 자들은 너무나도 간악하였다.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우리가 생존한다!≫, 이것은 바로 인민의 적으로 등장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과 아직도 많은 싸움을 해야 했다.

태평구전투 때 적들이 흘린 피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화소포강을 어지럽혔다. 그래서인지 그 해에는 전례없이 많은 황어가 떼를 지어 이 강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5.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숙반≫의 회오리가 남긴 파멸적인 결과를 놓고 온 동만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갈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근거들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 활동을 벌일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1935년 3월의 요영구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노선은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군정간부들한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 이해와 공명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에 참가한 당과 공청의 일부 간부들 가운데는 유격구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유격근거지를 해산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해산해 버릴 유격구라면 애당초 건설은 왜 하였는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이 유격구를 위해 3-4년동안이나 피를 왜 흘려왔는가, 이것은 우경이다, 투항주의다, 패배주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였다. 그때 그들이 유격구해산을 반대하여 들고 나왔던 주장을 학계에서는 지금 유격구 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사수를 제일 강경하게 제창한 대표적 인물은 영안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이광림이었다. 공청 영안현위와 길동국에서 청년사업을 많이 해온 이광림은 그 후 왕청지방에 파견되어 채세영, 부현명을 비롯한 반일부대사령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관계하였다. 그가 요영구회의에 참가한 것은 공청동만특위임시서기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할 때였다고 생각된다.

이광림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가지고 유격구 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들이댔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떠나가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격구를 해산한 다음에는 인민들은 적구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그들을 사지에 밀어 넣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유격구라는 군사정치적 지탱점이 없이 혁명군이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유격구에서 혁명적으로 세련된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손때를 묻혀 키워온 수만 명의 혁명군중을 잃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총체적으로는 유격구 해산조치가 혁명을 1932년의 원점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순조롭게 낙착을 지을 것 같던 논의는 이광림의 장광설로 하여 점차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되었다. 유격구해산방침에 지지를 표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회의참가자들은 유격구사수론자와 유격구해산론자의 두 패로 갈라져 입씨름을 벌쳤다. 논쟁이 극점에 이르자 수양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인신공격까지 해가며 상대를 강짜로 눌러 버리려고 하였다. 누구인가는 이광림의 사생활까지 거들면서 그이 주장을 논박하였다.

이광림은 영안현에서 구공청책임자로 활동할 때 어떤 여성을 짝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랑은 매우 열정적인 것이었으나 상대는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순정을 기울인 대가로 얻은 것이란 보낼 때마다 답장도 없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연정의 편지와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는 처녀의 무정하고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사랑이란 역시 어느 일방의 주관적 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광림은 자기에게 실연의 쓴맛을 안긴 그 여성을 목릉현으로 쫓아버리고 다른 여성과 치정관계를 맺다가 왕청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광림의 주장을 논박하느라고 끄집어낸 이면사이니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속단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런 이면사를 끌어내는 비열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이광림을 강타한 것은 그가 사랑하던 여자를 타방으로 추방해 버릴 정도로 무서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만큼 논쟁상대를 꺼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서였다.

어떤 사람은 이광림이 지난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모모한 인물들에게 열심히 추종하던 ≪화요파 계열의 잔당≫이라는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유격구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종파병의 재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까박을 붙였다.

실패작으로 끝난 논쟁 상대의 애정사를 들추어낸다든가 그에게 종파잔당이라는 감투를 씌운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야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책임은 이광림에게도 있었다. 그가 자기를 인민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 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가장 철저한 대변자로 묘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경기회주의이니, 인민에 대한 배신이니, 용서할 수 없는 자살행위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마구 가져다 붙였기 때문이었다.

이광림과 같은 사람들이 유격구해산을 한사코 반대하는 그 심정의 일단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유격구를 해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고통으로 되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했고 자기들의 심혈로 가꾸었으며 ≪천당≫이상으로 여기면서 철통같이 지켜온 보금자리를 아무 미련도 애정도 없이 냉담하게 집어던지고 달아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끝없는 미련과 애정에 부대끼면서 유격구 해산을 결심했다.

이광림도 물론 우리만 못지않게 유격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에서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구를 타고 앉아 막대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강적을 상대로 하여 장기간 1대1의 정면대결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여도 모험주의라고 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유격구의 생활력이 절정에 올랐던 1933년이나 1934년에는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유격구를 오아시스나 지상천국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1935년에 와서는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변덕이 아닌가? 아니다. 변덕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며 후퇴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이 큰 전략적 조치였다.

우리가 1935년에 와서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감히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였다.

두만강 연안에 건설된 유격구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의 사명과 임무로 내세웠던 최대의 과제는 혁명역량을 보존육성하는데 있었고 아울러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을 위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자는데 있었다. 물론 그때 우리가 그 임무수행 기간을 3년이라거나 4년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고 보았을 뿐이다.


김자린

무장투쟁의 열기속에서 군대와 인민은 모두 불사조로 성장하였다. 출발역을 떠날 때 수십 명에 불과했던 유격대오는 대규모의 유격근거지 방어전투들과 도시공격전까지 벌일 수 있는 방대한 역량을 포섭한 인민혁명군으로 발전하였다.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 보물고에는 생신하고 독창적인 유격전의 경험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었다.

유격전쟁은 투사들을 키워내는 용광로였고 군정대학이였다. 이 용광로에서는 순수한 강쇠만 뽑아냈다. 돌밭이나 지주집 외양간에서 굴러다니던 떡쇠도 이 노에만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강쇠가 되어 나왔다. 항일군정대학은 부와 가난이 다같이 손금에 있고 점쟁이의 점괘에 있고 무당의 넋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던 촌무지렁이들과 품팔이꾼들까지도 투사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전에 김자린의 머슴꾼 시절의 경력을 듣고 앙천대소한 적이 있었다. 웃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한 토막의 희극이 그 경력을 채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날로 김자린은 지주집의 소를 끌고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갔다. 그가 먹음직한 풀을 골라가며 한창 낫질을 하고 있을 때 산굽이에서 기차가 불쑥 나타나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일손을 놓고 두렁에 앉아 잠깐동안 기차구경을 하였다. 김자린의 눈길은 승강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신사의 해말쑥한 모습을 우연히 포착하였다. 그는 어째서인지 그 해말쑥한 꼴이 몹시 밉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신사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신사도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질을 하였다. 그 서슬에 그의 머리에 맥고모자가 날아났다. 신사는 어이가 없는 듯이 몇 번 두 손을 허공에 저어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달리는 기차와 함께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그의 맥고모는 철길 가의 늪속에 날아가 떨어졌다.

김자린은 늪속에 뛰어들어가 그 맥고모를 건져 쓰고 부자가 된 기분으로 철길뚝에 올라섰다. 그는 그 뚝 위에서 운수가 좋게도 은전 5전이 들어 있는 손수건을 발견하였다. 신사의 머리에서 맥고모자가 벗어질 때 그 모자와 함께 공중에 떠돌던 손수건이었다.

은전 5전으로 무엇을 사면 좋겠는가고 하루 종일 궁리를 하던 10대의 머슴꾼 김자린은 그날 밤 신사가 떨구고 간 맥고모를 쓰고 부잣집 자식들이 밤마다 모여서 풍청대는 도박장에 나타났다. 그는 5전을 밑천으로 우연히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 자식들한테서 거액의 돈을 따냈다.

김자린은 그 돈 중에서 지주집에 진 빚을 물어주고 더러는 가난과 눈물로 한평생을 엮어가고 있는 이웃집의 불쌍한 노인에게 주었다.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안되었

으나 그 돈이면 몇 해를 두고 흥야라붕야라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어린 머슴꾼은 타산하였다.

그러나 한 해도 지나기 전에 김자린은 다시금 빚에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고 황소처럼 일하였다. 일만 부지런히 하면 살림도 펴고 팔자도 고칠 수 있으며 지어는 출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머슴꾼 시절에 김자린이 간직하고 있던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노동은 그에게 부도 주지 않았고 생활개선의 길도 열어 주지 않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차례지는 것은 가난과 천대뿐이었다. 그는 머리도 총명하고 힘도 장사였으나 돈이 없는 탓으로 사람값에 들지 못하고 짐승 같은 대접만 받았다.

김자린은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수틀리면 못살게 구는 자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휘두르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울분만으로는 생활고를 타개할 수 없었다. 그는 후에 왕우구유격구에 들어와 유격대원이 되었으며 간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기관총수로 성장하였다.

우리 인민들속에 불사조로 널리 알려진 홍두산전투의 주인공 이두수도 한때는 길가에서 동냥자루를 들고 밥비럭질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장 이두수

유격구는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항일의 영웅들과 열사들을 육성해 낸 온상으로 되었다. 이빨이 다 빠진 노파도 유격구에만 오면 항일을 부르짖는 선동가로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모두가 노력가였고 초병이었고 전투원이었으며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실천가들이었다. 조동욱, 전문진, 오동우, 박길송, 김택근 등은 모두가 왕청유격구에서 단련된 쟁쟁한 혁명가들이였다. 항일의 영웅들은 피와 땀으로 온 세상이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다.

종파주의와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통일 단결되었다. 무장투쟁과 당건설을 위한 군중적 지반도 튼튼히 마련되고 중국인민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다져졌으니 이 모든 성과는 유격구가 생겨 3-4년동안에 이룩된 결실이었다.

과연 유격구라는 책원지가 없이 조중공산주의자들이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유격구라는 출진기지, 병참지, 후방기지가 없이 항일혁명앞에 나선 첫 단계의 전략적 과업들을 그처럼 철저하고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었겠는가.

김명화는 처녀시절에 말총으로 감투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 가던 최하층의 여성이었다. 그도 유격구에 들어와 사람다운 생활을 하였고 항일대전의 열풍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성장하였다. 유격구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이처럼 놀라운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였을 것이다. 진보는커녕 육체적 생명도 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명화

항일전쟁이 낳은 투사들 중에는 지난날의 포수도 있고 백정도 있고 훈장도 있고 뗏목꾼도 있고 대장쟁이도 있었다. 임춘추와 같은 약국 주인이 있는가 하면 서철과 같은 의사 출신의 혁명가도 있었다. 동만청총의 영향을 받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있었는가 하면 남만청총이나 주중청총의 지붕밑에서 살다가 참군한 청년들도

있었고 유격구는 출신과 생활경로가 얼럭덜럭한 인간들을 하나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실한 군인들로 키워냈으며 항일구국의 전열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결사분투하는 시대의 총아들로 육성해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창설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정당했고 시기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런데 유격구의 생활력이 아직은 남아 있던 그때 우리는 요영구에서 그 해산의 절박성을 새롭게 역설하게 된 것이다. 무슨 근거지를 가지고? 사명과 임무를 다한 유격구를 더는 사수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서철

1930년대 중엽의 간도지방 혁명정세는 조중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답할 수 있는 노선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유격구에 그대로 틀고 앉아 결사전가를 부르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땅덩어리를 지키는 놀음을 하겠다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혁명을 더 심화시킬 의향은 없이 현상유지나 하자는 속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혁명을 흐르는 물에 비길 수 있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호수나 저수지 안에서만 맴돌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혁명이란 대하나 장강과 같은 것이다. 절벽에 부딪쳐 아우성치고 계곡에 막혀 태질을 하면서도 허공에 부서져 나뒹구는 억만의 비말들을 고스란히 걷어 안고 바다를 향해 용용히 흘러가는 대하나 장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혁명이다. 대해를 등지고 산악을 향해 거꾸로 흐르는 장강을 본 적이 있는가? 역류와 정지는 장강의 본성이 아니다. 장강은 오직 앞으로만 달린다. 장애물이 있으면 격파하고 동료나 동행자가 있으면 포섭하면서 머나먼 종착점인 바다로 쉬임없이 달린다.


근거지에서 출판된 정치학습자료

장강이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정지나 휴식을 모르는 그 꾸준한 운동에 있다. 만약 장강이 한순간만이라도 흐름을 멈춘 강물과 같이 된다. 혁명은 자기가 세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 이런 갱신이 없다면 혁명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한 방법이 50년 후에도 유효하고 100년 후에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의를 가진다. 한순간을 대표할 수도 있고 하루를 대표할 수도 있고 한 달이나 한 분기, 한 시기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술이다. 하나의 전략을 성공에로 이끄는 과정에는 열 가지 전술이 있고 백 가지 전술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전략을 위해 한 가지 처방만을 내세우는 것은 혁명에 대한 창조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교조이다. 교조는 자기의 손발을 자기 스스로 얽어매는 미욱한 자살행위이다. 교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생동하고 박력 있는 정치를 볼 수 없으

며 도도하고 활력에 넘친 혁명의 장강을 만날 수가 없다.

혁명을 장강의 흐름처럼 줄기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창조와 혁신에 있다. 창조와 혁신이야말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끝없는 진보와 번영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와 혁신은 혁명을 추동하는 발동기라고 할 수도 있다. 한 개 민족의 발전역사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은 이 발동기의 마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혁명은 이 발동기의 힘으로 21세기의 대문앞에까지 와 닿았다.

21세기를 지척에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연합의 강력한 봉쇄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고수하고 빛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세기 전에도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포위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인천 앞바다에는 열강들의 군함이 노상 떠 있었다. 봉건조정이 쇄국을 고집하면서 척양척왜의 입장을 취할 때마다 그네들은 대포를 몇 방씩 쏘아대면서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왕과 왕후의 측근에서는 일제가 박아 놓은 고문들과 공사들, 밀사들이 맴돌았다. 이것도 일종의 포위였다.

외래침략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이 포위와 봉쇄는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강요되고 있는 시련이다. 나도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한평생을 이 포위와 봉쇄속에서 살아왔다. 지정학적 특성으로부터 오는 숙명인가?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만일 알래스카나 북극의 어느 빙하 한 끝에 붙어 있다면 혹시 우리 나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구미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만일≫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대국들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 나가는 나라들은 지구의 어느 곳에 있건 항상 ≪푸른 베레모≫의 공격목표가 되든가 무수한 ≪토리셀리법안≫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생을 자주적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제국주의들의 봉쇄를 항상 각오해야 하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간도의 항일근거지들은 1935년에도 물샐틈없는 봉쇄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해에는 적들의 봉쇄가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가 노선을 바꾸어 혁명에서 대단원을 이루어보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들은 봉쇄망을 최대한으로 조여 ≪공비≫숙청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일제는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매일같이 항일근거지의 모든 생물체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연계들을 끊어 버리기 위한 적들의 책동 중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바로 집단부락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인민혁명정부의 관할밖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싫건 좋건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여 있는 밀집부락에 들어가서 오가작통법이나 십가연좌법과 같은 악법들과 중세기적인 질서의 지배밑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적들이 만주각지에 널려 있는 수천수만 개의 산재부락들과 가가호호들에 불을 지르고 최후의 통첩적인 철거령을 내리고 그 주민들을 벌방의 토성촌들로 무자비하게 이주시킨 목적은 군대와 경찰, 무장자위단이 상주하고 있는 ≪안민촌≫들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편안한 통치를 하자는데도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토성, 포대, 물홈, 울타리, 탐조등, 철조망과 같은 인공적인 장벽들로 ≪공비박멸≫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던 군민 일치의 핏줄기를 영원히 끊어 버리자는데 있었다. 유격대가 인민의 보호자이고 인민이 유격대의 후방이며 중요한 정보원천이라는 것은 적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였다.

인민을 토성속에 모조리 걷어 넣으면 도로건설과 군사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역에도 집단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었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으며 노력과 자금, 물자의 징발도 어느 때나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적들은 집단부락 건설을 계기로 반공선전을 강화했다. 너희들이 정든 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집단부락으로 가게 된 것은 공산당 때문이고 혁명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들과 내통하면서 치안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당국은 부득불 산재부락들을 없애고 백성들이 ≪공비≫나 마적들의 성화를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안성촌≫들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지껄였다.

적들은 토성을 네모나게 쌓고 한 토성 안에 100호 또는 200호의 집들을 밀어 넣었다. 집든 군경들의 감시에 편리하게 현대 공장지구 사택들처럼 줄을 맞춰 지었다.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집단부락에만 들어가면서 서로 추녀를 맞대고 살지 못하게 갈라놓았으며 친척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앞뒷집이나 아래윗집에 있게 하지 않고 동서남북에 각각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그것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치안유지에 방해되는 모의를 하거나 비밀결사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조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 안의 주민들의 분열과 이간을 얼마나 꾀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가작통법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적들은 다섯 집으로 한 개조를 뭇고 그 중 한 집이라도 유격대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 안의 모든 세대들에 꼭같은 처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구에는 그 다섯 집의 주민들을 전부 학살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오가작통법이다.

집단부락을 통치하는 행정관리들과 무장군경들은 인민혁명군의 수중으로 한 됫박의 쌀이라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이 토성 밖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공비≫들에게 줄 여분의 밥이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점심 보따리까지 헤쳐보았다. 점심 그릇도 한 사람 몫이 넘으면 무턱대고 빼앗아냈다. 집단부락의 농민들은 밭일이 묵어서 새벽 작업을 하고 싶어도 날이 밝기 전에는 성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혁명군은 집단부락 인민들의 식량상 방조를 거의나 기대할 수 없었다.

유격구에서 재배하는 곡식으로는 군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적들이 줄곧 농사를 방해했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농작물도 초토화대상으로 삼았다. 싹이 돋아나는 곡식은 군화로 짓밟았고 성장기의 작물은 불을 질러 태워 버렸으며 다 익은 낟알은 무장대가 우마차를 끌고 와서 모조리 실어갔다. 이것은 총과 대포로써도 멸살시킬 수 없는 유격구역의 군대와 인민을 완전히 굶겨서 죽이기 위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아작전이였으며 목을 조이는 봉쇄작전이였다.

≪민생단≫은 해체되었지만 혁명대오를 안팎으로부터 분열와해하기 위한 적의 파괴작전은 종전보다 더 악랄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들에는 미인들의 나체사진이나 추잡한 남녀관계를 그린 누거리춘화들까지 나타났다. 돈에 매수된 미녀들이 로자 룩셈부르크나 잔 다르크의 탈을 쓰고 우리 대오에 침투하여 군정간부들의 넋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경찰서나 헌병대로 데려가지 위한 부식공작을 열심히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간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절해고도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철저히 초토화하고 질식시키기 위한 대살인광대극이었다.

이런 대세를 보지 않고 이미 노출된 유격구를 보위하는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혁명군은 결국 군사적으로 피동에 빠지게 될 것이며 적과의 끊임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가 다년간에 걸쳐 육성된 혁명역량은 보존되지 못하고 지리멸렬될 것이었다. 협소한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것은 결국 적색 구역의 모든 군민을 입체전으로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적의 기대에 발을 맞추어 주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회의참가자의 과반수가 유격구사수론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사수론을 고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교조가 심하고 좌경기가 많은 독선적인 인간들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원시하였으며 창안을 잘하는 사람, 발기를 잘하는 사람, 꿈이 많고 환상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해 서로 시답지 않게 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영구회의에서 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들을 끝끝내 설복해 내고야 말았다.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반≪민생단≫투쟁문제와 달리 유격구를 해산하는 문제는 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좌경모험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였다.

요영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구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로부터 전략적 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 계기로 되었다. 이 회의의 결정으로 하여 우리는 유격구역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동북과 조선의 광활한 판도에서 적극적인 대부대유격전을 영활하게 벌일 수 있는 창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도 5개 현에 국한되었던 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는 수십 배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활동무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한된 지역의 봉쇄에만 매달리던 적들이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5개 현을 포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밖의 동북의 여러 성들은 문제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격구를 봉쇄해놓고 고정된 지역에서 틀고 앉아 휘파람을 불며 호강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인민혁명군을 쫓아다니며 전례도 없고 규범에도 없는 싸움을 해야 했다.

적들은 우리의 유격구해산조치를 ≪관군의 분산배치에 의한 철저한 토벌의 결과≫로 ≪간도곤비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광범한 유격운동에로 이전하기 위한 새 전술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이고 진공적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조치는 적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들은 그 해산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군대와 인민이 유격구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적색구역의 철폐는 무장투쟁의 종말을 의미한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구역을 해산하는 것은 곧 유격운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각방으로 벌였다. 적들의 이런 책동은 유격구해산에서 첫째가는 난관으로 되었다.

곤란은 비단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민이 유격구해산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광림과 같은 군정간부조차도 선뜻 찬성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선을 그들이 아무런 심리적 고충도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다. 어제까지는 ≪천당≫이라고 선전하던 근거지인데 오늘은 왜 갑자기 없애치우지 못해 안달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감투끈인가고 하면서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태희노인은 십리평인민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는 진성서까지 보냈다.

각이한 해석과 판단들이 유격구에 떠돌았다. 밤을 자고 나면 누가 끌어들였는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한두 가지씩 나돌아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했다. 혁명군이 적색구역을 철폐한다는 것은 민중보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말도 나돌았고 조선의 낭림산을 타고 앉아 국내에서 유격전을 벌이려고 간도를 포기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군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쏘련이나 중국 관내 같은 데 깊숙이 들어가서 휴식을 좀 하다가 대열을 와짝 늘려 가지고 간도로 다시 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런 억측에다가 적의 선무공작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유격구의 여론은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상을 이루었다.


황순희

우리는 요영구에서 군민연합대회를 열고 유격구해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인내성 있게 해설해 주었다. 동만의 각 현과 혁명조직구들에 내려간 특파원들도 같은 성격의 대회를 열고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였다. 해산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치를 민중은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정당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산을 집행하는 실무적 단계에 들어가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나가누웠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어도 좋고 짐승가죽을 우려먹어도 좋다, 적구로 갈 바엔 차라리 유격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어떻게 적구에 내려가서 왜놈들의 단련을 받으며 살겠는가, 죽어도 유격구를 베고 죽을 테니 우리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소하였다.

우리는 ≪설복하고 설복하고 또 설복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매일같이 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구별로도 모임을 열고 조직별로도 회의를 열어 해설에 해설을 거듭했지만 적지 않는 주민들은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냥 검질기게 고집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어떤 동무들은 그 힘을 무한대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간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적구살이를 모면하려고 참군을 요청했다. 입대 적령기에 들어서지 않은 아동단원들과 소설대원들도 혁명군을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먹였다. 황순희는 그때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 달라고까지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매달려 강짜를 부렸다. 그래서 연길유격대에서는 그의 참군을 허락하였다. 그가 그 체소하고 연약한 몸으로 무장투쟁의 어려운 세례를 이겨내고 수백 수천 갈래도 더 되는 사선을 넘어 오늘까지도 혁명투사로서 한평생을 빛나게 살아올 수 있은 것은 그 강짜의 덕인지도 모른다. 태병열, 최순산도 유격구 해산과 함께 혁명군에 입대한 투사들이다.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였다. 유격구에서 여러 해 동안 인민들과 함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당일군들과 공청일군들, 인민혁명정부일군

들도 무장을 메고 우리의 대오에 들어섰다. 재봉대와 병기창, 병원에 들어와서 혁명군을 따라다니겠다고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격구해산과정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의 대오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광활한 대지에서의 유격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후방물자의 확보, 무장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부녀회원들은 그때 농짝에 있는 밀천을 다 들어내여 유격구를 떠나가는 혁명군 대원들에게 군복을 지어 주고 배낭이며 손수건이며 행전이며 담배쌈지며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우리도 소개지로 떠나가는 인민들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다하였다. 이 봉사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소개주민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이동준비사업을 다그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이동준비 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였는가 하는 것은 간도의 각 유격구들에서 주민소개를 앞두고 작성했던 호구조사표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조사표에는 유격구를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의 성명, 연령, 직업, 친척, 친우의 주소, 성명, 담당공작, 지식, 기술유무, 행선지, 보유식량 등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태병열

유격구의 지도일군들은 이 호구조사표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적구와 국내에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한 친척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찾아갈 수 없는 사람, 무의탁 어린이들과 환자들을 구분하여 대열을 편성하였으며 그 매개 대열에 무장소조들을 붙여 목적지까지 책임적으로 호송해가게 하였다.

유격구를 떠나 적구나 국내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가정들에는 세대당 평균 30-5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분배되었으며 천, 신발, 그릇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과 화식가구들이 공급되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줄 돈 과 물자를 확보하려고 우리는 전투도 여러 번 조직하였다. 그런 전투들 가운데서 내 기억에 지금까지도 인상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오백룡이 자기 삼촌을 혼쌀낸 파격적인 사건과 극적으로 얽혀져 있는 대왕청집단부락습격전투이다.

오백룡이 자기 삼촌의 뺨을 친 것은 우리의 수난 많은 민족사가 엮어 놓은 일종의 희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집단부락을 치고 많은 물자들을 노획하였다. 40여 자루의 38식보총, 40여 마리의 우마, 수십 포대의 쌀과 밀가루, 수만 원의 돈… 실로 군인들의 힘만으로는 운반해가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전리품이였다. 지휘관들은 전투현장으로부터 500-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락에 가서 인민들을 데려왔다. 급행급습, 급행이탈이 유격전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술적 원칙인 것만큼 전리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대의 철수가 늦어지고 적이 반격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최순산

이처럼 분초를 다투는 때에 콧수염을 기른 어떤 농민이 짐을 지려 하지 않고 게정을 부렸다. 그는 지어 ≪이 사람들아, 빨치산의 짐을 지고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려구 그러는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경거망동하지 말라구!≫하면서 남들이 짐을 지는 것까지 막아 나섰다.

오백룡은 보다못해 ≪손님, 짐을 지기 싫으면 돌아가도 좋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염쟁이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짐을 지면 큰 화를 당한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오백룡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수염쟁이의 뺨을 불이 번쩍나게 답새겼다. 그리고는 먼 친척에게 ≪저 놈이 반동이 아닌가요?≫하고 물었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의 친삼촌 오춘삼이야.≫

오백룡은 그 대답을 듣고 펄쩍 놀랐다. 자기 삼촌이 조선사람 구실을 못하고 반편같이 행동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20살이 넘도록 삼촌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웠다. 오백룡이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오춘삼은 가문을 떠나 타지방에 가서 떠살이를 하였다. 그러다나니 삼촌도 오백룡을 몰랐고 오백룡도 삼촌을 알 수 없었다. 오백룡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사이에 오춘삼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되었다. 삼촌은 자기 자신이 혁명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혁명에 나서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소심하고 비겁한 사나이었다.


오백룡

오백룡은 삼촌의 따귀를 친데 대하여 몹시 후회하였으나 그것을 사과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먼 친척을 통하여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

삼촌, 내가 삼촌도 몰라보고 무례한 짓을 했는데 모르고 한 것이니 다 잊어 주십시오.

젊은 녀석들에게 괄시를 당하지 않으시려거든 삼촌도 앞으로 혁명에 나서 주십시오.

오춘삼은 그 후 조카의 권고대로 온 가정을 혁명화하였다. 자기 자신도 혁명가가 되었거니와 처자들까지도 항일운동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의 아들 오규남은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바쳤다.

≪조카의 주먹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소.≫

오춘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오백룡은 군민관계에 쐐기를 친 것으로 하여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삼촌이라면 부모 다음으로 존수가 밭은 친척이지만 인민혁명군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오춘삼도 민중의 한 개 성원이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희비극이 한 장면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그가 인민들을 동원시켜 실어온 전리품들은 유격구를 떠나가는 주민들의 장래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었다.

유격구해산조치의 정당성은 1930년대의 후반기 앙양일로에 있던 항일혁명에 금상첨화의 봉우리를 얹어주면서 조국해방의 대단원을 행해 줄기차게 달리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의 전반적 발전과정이 생활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유격구역의 주동적 해산가 더불어 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항쟁역량을 간도의 협소한 산악지대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남북만주와 북부조선의 무변광대한 천지에서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과감히 타승해 나갔다. 인민혁명군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한 것은 골짜기에서 광야로 나갈 것과 같은 거사였다.

무장투쟁의 강력한 배경밑에서 유격구를 떠난 인민들은 광야에 뿌리를 박고 조

직들을 확대하며 광활한 대지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했다. 귀순문서장에 인장을 박은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륙을 불태우는 한점한점의 불씨가 되고 성냥가치가 되었다. 정치공작원들도 적구를 휘저어 놓았다.

1935년 5월에 시작된 유격구해산사업은 그 해 11월초에 결속된 처창즈 유격구역의 해산을 마감으로 하여 완료되었다.

처창즈에서 유격구해산사업이 다른 고장보다 반년 정도 뒤늦게 진행된 것은 우선 이 근거지주변에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이 굶어죽기를 고대하고 있던 적들의 집요한 봉쇄작전의 결과였고 이 구역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이 낳은 귀결이었다.


처창즈 유격구역

명월구회의에서 유격구후보지를 선정할 때 처창즈를 적지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화룡현출신들이었다. 안도현대표 김정룡도 처창즈가 명장자리라고 하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산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이 고장이야말로 적아가 다같이 눈독을 들이는 이상적인 천연요새였다. 간도의 다른 고장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쓸쓸한 산골이었으나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사률계를 좀 아는 신식풍수쟁이들의 덕으로 처창즈의 금새가 부쩍 올라갔다.

지명의 유래를 들어보아도 군사와 관련된 신비한 것은 아니였다. 그 고장 토배기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처창즈란 달구지를 거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화룡사람들은 처창즈가 유격대의 군사요충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홍범도부대가 일본군을 고동하기슭으로 유인하여다가 청산리에서 소멸한 것도 이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매력때문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처창즈유격구역 건설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1954년 봄에 독립연대를 안도지방에 파견하였다. 김일환, 김일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처창즈로 들어갔다.

독립연대는 처창즈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1개 중대를 손쉽게 쫓아버리고 이 고장의 새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무력을 배경으로 어랑촌유격구의 주민들이 처창즈에 쓸어 들어와 고동하 건너편에 화룡현인민혁명정부 건물을 세웠고 뒤미처 왕우구와 삼도만의 주민들이 신선동을 거쳐 이곳에 연줄연줄 나타나 동남차골짜기 입구에 연길현인민혁명정부 깃발을 게양하였다. 그리하여 처창주에는 두 개의 현에서 온 인민혁명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이 1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창즈유격구역은 마치 두 개의 발동기를 가진 자동차나 두필의 청총말을 태운 쌍두마차와도 같이 기세충천하여 돌진하였다. 초기에는 식량 형편도 그다지 궁색하지 않았다.

요영구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창즈유격구역 해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안도에서 파견된 당지도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성원들은 군대와 인민에게 유격구해산방침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어 처창즈에 있던 특파원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려고까지 하였다. 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처창즈는 간도의 혁명군중, 특히는 연길, 화룡, 안도 지방의 혁명군중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최후의 지탱점이었다. 최후의 지탱점이라는데로부터 이 지구의 해산을 책임진 일군들이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했을 수도 있다.

숨막히는 봉쇄속에서 처창즈인민들이 군대와 함께 1935년 11월까지 유격구를 지켜낸 것은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기

아로 하여 수많은 혁명군중이 곤경을 치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서 대부대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김평, 유경수, 오백룡, 박영순이들은 처창즈에서 겪은 그 기아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였다. 김명화, **김정숙**, 황순희, 김철호, 전희와 같은 여성동무들은 해방 후에도 음식상앞에 마주 앉으면 처창즈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김명화와 **김정숙**은 그 당시 군부에서 작식대공작을 하였다.

이 유격구의 정상은 군부의 식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왕덕태

왕덕태를 비롯한 군부의 여러 지휘성원들을 위하여 작식대원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솔껍질을 벗겼다. 콩단만큼한 송기 두 단을 해와야 군부의 하루식량이 되었다. 매문 재물에 송기를 넣고 3시간 이상 끓인 다음 흐물흐물해진 것을 건져내어 강물에 헹군 후 돌위에다 놓고 망치로 두드렸다. 그리고는 또 물에 씻어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런 공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쌀겨를 섞어 죽을 쑤든가 떡을 만들었다. 이것이 처창즈의 일등음식이었다.

송기떡을 먹으면 홍문이 메였다. 아이들이 그때 뒤를 보느라고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다. 그럴때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고챙이로 뒤를 봐주었다. 어른들도 홍문이 메여서 고통을 자주 겪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이면 또 송기음식을 먹었다.

소금도 없어서 싱거운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죽이나 떡 같은 것은 싱거운 대로 참고 먹을 수 있었지만 산채나 나물국 같은 것은 소금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였다. 간혹 통신원들이 이따금씩 처창즈에 들려서는 괴춤에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주머니에서 소금알을 몇 알씩 꺼내주고 가곤하였다. 소금알 한알을 여럿이 순번으로 한번씩 혀끝에 살짝 대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곤 하였는데 그야말로 목안에 털이 날 지경이었다.

송기마저 떨어지면 방앗간에 가서 겨를 가져다가 죽을 쑤어 먹었다. 그래도 그 겨죽이 묵은 풀로 쑨 죽보다는 먹기가 한결 나았다고 한다. 묵은 풀로 쑨 죽은 껄껄하고 굳어서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 목을 찔렀다. 그런 죽마저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봄을 기다렸다. 춘삼월만 되면 자비롭고 풍만한 대지가 불쌍한 생명들을 기아에서 구출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봄도 아사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봄이 사람들을 위해 선사한 것은 눈밑에서 돋아난 연약하고 보잘것없은 새싹들이었다. 그 싹만으로는 유격구주민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동면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 먹었다. 처창즈에서는 설치류가 멸종되었다. 개구리와 개구리알도 주민들의 끼니감으로 되었다. 개구리알을 삶으면 기장밥처럼 풀기가 있고 차분차분해서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김철호가 회상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찐득찐득한 음식물이 목에 와닿는 것만 같아 섬찍한 감촉마저 받았다. 대원들과 함께 별의별 잡식을 다해온 나도 삶은 개구리알의 맛에 대해서만은 좀처럼 그럴듯한 표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씨붙임을 할 때 신고 일하던 도로기도 작식가마에 들어갔다. 도로기를 우린 쩝쯔레한 물을 한공기씩 마시고 병사들이 포복전진을 하듯이 배밀이를 해가며 유격구 주민들은 봄파종을 하였다. 오늘 씨를 뿌리고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그 씨를 파먹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대중단체들에서는 씨붙임이 끝난 밭들에 보초를 세

우고 종자를 파먹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보초들마저도 주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씨앗을 파먹었다.

밤이면 아이들이 군부 부엌에 몰래 기여들곤 하였다. 군장이하 모모한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니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엉터리없는 공상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굶을 때 왕덕태도 굶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부엌에 가마치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가지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죽음앞에 굴복당하였을 것이다.

작식대원들이 가마치를 주면 아이들은 흐느껴 울면서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군 하였다. 그리고는 수치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하고 맹세하곤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작식대원들은 부엌문밖에서 먹을 것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발견하곤 하였다.

이런 기아속에서 처창즈사람들은 밭고랑을 기여다니면서 김을 매였다. 손으로 땅을 우비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또 일어나 손톱끝이 모지라지도록 땅을 우비였다. 두벌김까지 매고나니 보리이삭이 패였다. 속살은 없고 맹물만 차있는 알들을 정신없이 훑어 먹었다. 일어서서 걸어다닐 기력조차 없어 밭고랑에 엎드린 채 간신히 보리대를 후려당겨서는 한알두알 입에 따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처창즈사람들이 이런 아사지경에서도 순수한 인간으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탱해온 공산주의적 이념,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도덕이 간도의 모든 혁명군중을 성인군자로 만들어 준 덕이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팔다리를 삶아먹는 것과 같은 비인륜적인 현상이 처창즈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었다.

보릿고개가 되자 아이들이 먼저 기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남자들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자기자신들은 굶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의무를 걸머쥐고 태어난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차려졌으니 하나하나의 시신앞에서 온 육신이 깡그리 타서 재가 될 지경으로 슬프게 울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처창즈가 당한 기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구역을 봉쇄하고 야수적인 토벌을 거듭한 일본침략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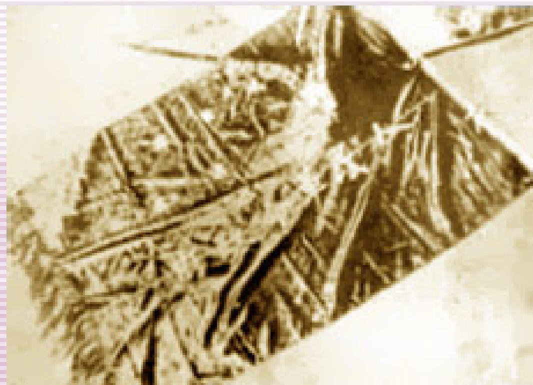
유격구를 책임진 일군들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휘부에 기여든 반동들과 불순분자들은 덮어놓고 ≪배고파도 견뎌내야 한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죽는 것은 투항이다.≫라는 초혁명적인 언사로 대중을 우롱하였다.

처창즈인민들은 ≪민생단≫으로 몰려죽고 굶어죽으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유격구를 지켜세웠다. 그들이 발휘한 견인불발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개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유격구해산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1935년 10월과 김일네 집안, 남창수네 집안, 이제순네 집안, 권일수네 집안을 비롯한 20여명에 달하는 ≪민생단≫연루자 가족들은 단합살림이라는 것을 뭇고 동남차골짜기 막바지에서 1936년 여름까지 투쟁을 계속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생단≫투쟁을 벗어던지자는 것이였다. 단합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살림으로 합치여 생활도 유지해가고 투쟁도 해가는 그런 특이한 생활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귀틀집 한채에 세간들을 합치고 책임자도 정하고 매일, 매주, 매달 각자에게 알맞는 분공도 주고 그 분공수행정형을

총화도 하면서 조직적인 생활을 하였다.

단합살림에 망라된 그 가정들은 마지막까지 처창즈를 지킨 최후의 방위자들이였다.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깃발

적들은 수천 명 병력을 동원하여 군경들에 의한 종전의 초토화식 토벌일변도의 전술로부터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치는 종합적인 대봉쇄전술로 이행하여 처창즈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려고 토벌에 토벌을 거듭하였지만 그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1935년 10월의 대토벌에는 수천 명의 적이 투입되었다.

처창즈의 용감한 방위자들은 이번에도 적들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들은 저격무기로 유격구를 공습하는 비행기까지 쏴 떨구는 전공을 기록하였다.

그 해 11월 처창즈인민들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군대와 함께 대부분 내도산쪽으로 이동하였다.

적의 봉쇄속에서도 오랫동안 인민들과 함께 굶어도 보고 앓아도 보고 싸워도 본 처창즈 방위자들 중의 한 사람인 백학림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처창즈사람들이 겪어온 항일전쟁시기의 참상을 모른다면 그 무슨 생활난에 대해서 감히 입밖에 내지도 말라. 처창즈의 군민이 봉쇄속에서 어떻게 기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적의 토벌을 이겨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곤란극복에 대해서도 감히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유격구해산의 조직과 그 실천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조직성과 강철같은 규율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그런 인민을 잘 동원하고 지도만 한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였다.

어떤 인민이나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쳐물리치기 위해 거족적으로 궐기한다면 그런 인민에 대한 봉쇄나 초토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힘있는 교훈이다. 신생 러시아에 대한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국제적 봉쇄가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은 만국의 인민들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히틀러 독일도 레닌그라드 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폭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탱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추켜올렸다. 온 세계의 부르조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1942년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중국의 항일근거지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치는 장개석군의 봉쇄와 토벌도 역시 참패를 거듭하였다. 30년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자그마한 섬나라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막대한 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크게 은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리첼리법안≫을 배격하는 쿠바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봉쇄정책에 냉소를 보낸 셈이다. 카스트로는 ≪위험한 순간에 부

닥칠 때 인체안에서는 더 많은 량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언명하였다. 아드레날린은 심장기능을 강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 아드레날린은 쿠바공산주의자들의 낙관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현대제국주의는 지금 우리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도 그 봉쇄를 보기 좋게 격파할 활력소가 얼마든지 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질식, 압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망상이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의 국내진출이 적극화되었다. 혁명의 씨앗은 만주와 조선의 넓은 대지에 무수히 뿌려졌다.

나는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왕청을 잊지 않았고 간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간도의 5개 현은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중시한 기간적인 항일전구로 되어왔다. 최현부대를 비롯한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왕청일대에서만도 북하마탕 상촌집단부락습격전투, 사도하자습격전투, 백초구중평촌습격전투, 대리수구습격전투, 장가점매복전투, 상팔인구습격전투, 태양촌습격전투, 다홍왜습격전투, 쟈피거우매복전투, 소백초구용구촌습격전투, 십리평채목공사장습격전투, 석방촌서두하전투, 나자구상르모자하습격전투 등 무수한 전투들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전력을 다하였다. 간도지방의 주요간선철도들에서는 군용차와 객차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중무장을 한 장갑차가 항상 선행하였다. 객차가 야간에 산간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차창마다 차광막을 드리워 철저한 등화관제를 하게 하였으며 헌병, 사복경찰, 철도경호대가 찻칸마다 서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단속하였다.

차광막을 들고 잠깐만 밖을 내다보아도 통비분자라고 따귀를 맞아야 했다.

적들은 집단부락경비를 강화하고 인민들을 경비에 강제로 동원시켰다. 심지어 어떤 개척민부락들에서는 주민들에게 유사시 혁명군에 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목총과 발화관이 설치된 폭발물까지 나누어주었다. 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활동에 적들이 얼마나 질겁했는가 하는 것은 일본 경찰관들이 집단부락의 야간경비를 중국인 자위단원들과 조선인 자위단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날마다 잠자리를 바꾼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본경찰관들과 만주국의 자위단원들속에서는 염전염군사상에 물젖은 아편중독자들이 속출하였다.

석현지방에서 발생한 ≪마쯔무라사건≫하나만 보아도 1930년대 중엽 일제의 패배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마쯔무라란 일본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원적색노조사건으로 망명해온 인텔리었다. 그는 선금 2,000원을 받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두산목재채벌장 십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십장으로 간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부대가 채벌장을 습격하였다. 마쯔라무라는 혁명군의 전리품을 지고 우리를 따라왔다가 나도 만나고 연예공연도 구경하고 나서 혁명군의 위력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채벌장에 돌아가 주인에게 사표를 낸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일본의 패전이 시간문제로만 남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유격구의 물을 먹은 벌목노동자들에 의하여 왕청과 그 주변에서는 열차전복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유격구정신은 간도땅에 그대로 남아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